심기일전하여 세계 질서를 읽어내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10

EAI

EAI 사랑방이란?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목차

심양이라는 공간, 소현세자의 세계관과 정세 인식 **3**
_자금성 ① 김민수

등소평을 통해 중국을 고민하다 **45**
_모택동 기념관 ② 전선미

18 세기 문화교류의 복합체, 서양루의 건축사 **62**
_원명원 ③ 백경민

카타이가 구라파를 만났을 때: 곤여만국전도,
그리고 마테오 리치와 이수광의 세계관 **85**
_마테오리치 묘지, 고관상대 ④ 박시현

중국의 지능화전 분석과 예측 **113**
_중국과학기술관 ⑤ 김창하

중국현대미술과 정치: 연구문헌사 **153**
_798 예술구 ⑥ 김서원

1 장

심양이라는 공간, 소현세자의 세계관과 정세 인식
_자금성

김민수

서울대학교

Ⅰ. 서론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 남한산성을 지키던 군졸이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는 일이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큰 눈이 내렸다.[1] 성은 고립되었고 멀리 강화도가 끝내 함락되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 안의 사람 중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2] 1 월 30 일, 청(淸)의 장수인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가 성 밖에서 인조의 출성(出城)을 재촉하였고, 인조는 푸른 옷에 백마를 타고 서문으로 나갔다. 소현세자가 그 뒤를 따랐으며 성 안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뛰면서 통곡하였다.[3]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고, 강화도에서 사로잡힌 봉림대군과 인평대군도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어두워질 무렵, 인조만이

창경궁으로 돌아가고 소현세자와 세자빈, 봉림대군과 인평대군 및 그 부인들은 청나라 진영에 인질로 남았다. 5 일 뒤에 소현세자가 청의 진영에서 와 하직을 고하고 떠나니, 이는 8 년이라는 오랜 심양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4] 그러나 그 누구도 처음에는 청에서의 생활이 그토록 길어질 줄 알지 못했고, 끝내 명이 사라지는 것 역시 예상하기 힘든–혹은 예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소현세자는 26 세가 되는 1637 년부터, 33 세가 되는 1644 년까지의 8 년 동안을 청의 수도인 심양(瀋陽)이라는 공간에서 보냈다. 심양, 만주어로는 묵던(Mukden)이라고 불리던 이 장소는 만주족의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서, 1644 년 명의 수도 북경(北京)을 점령한 후에도 제 2 의 수도로 기능했다.[5] 이러한 심양에서의 8 년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명이 패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이자, 기존의 제도나 규칙을 무력으로 짓밟은 청이 팽창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이었다. 따라서 이는 결코 단순한 차원에서의 세력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과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심양이라는 공간의 미시적 행위자였던 소현세자는 과연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을까? 8 년의 심양 생활 끝에 북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서양의 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당대를 기록한 사료–《소현심양일기(昭顯瀋陽日記)》·《소현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심양장계(瀋陽狀啓)》·《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들을 토대로 소현세자의 정세 인식과 세계관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소현세자 본인이 남긴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사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그의 심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존 연구사와는 구분되는 서술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간략하게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는 연구 경향의 변화 속 이 글을 어디에 위치 지울 수 있을지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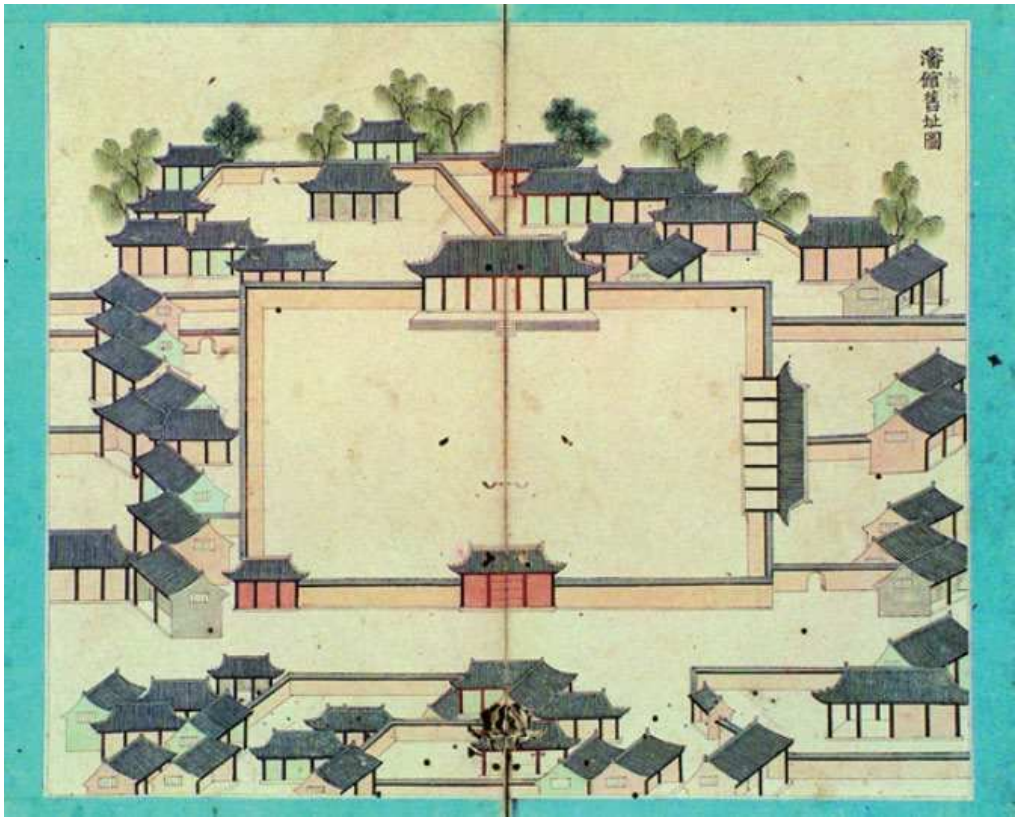
소현세자에 관한 첫 학술연구는 일본의 교육자인 야마구치 마사유키(山口正之)에 의해 처음 이뤄졌다.[6] 그는 "소현세자와 아담샬(昭顯世子と湯若望)"(1931)이라는 연구에서 소현세자와 아담 샬의 교유를 소개하였다. 여기서 야마구치는 아담 샬의 회고록인 Historica Relatio 의 주요 내용을 번역해 실으면서, 소현세자가 기독교에 몰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선에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가 요절함에 따라 조선은 어떠한 역사적 발전도 이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7] 이와 같은 식민지기의 연구성과는 당시 교과서 등에서 반복되었으나 학술연구는 30 년이 흘러서야 다시 이뤄졌다. 김용덕의 "소현세자연구"(1964)는 이상의 연구성과를 받아 단적으로 대명의리(對明義理)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인조(仁祖) 세력과 청과 서양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혁신적인 소현세자를 대비하여 서술하였다.[8] 이러한 비현실적 명분론 대 현실주의의 구도는 비단 소현세자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선 후기 연구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청사 연구자인 최소자 역시 자신의 소현세자 연구에서 대명 사대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하였다.[9]

이상의 연구를 조선 후기사 및 소현세자 연구에 관한 '전통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2000 년대 이후의 연구는 《소현심양일기》 및 《소현분조일기》의 국역에 따라 훨씬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현세자 독살설에 관한 재검토라든가, 구체적인 심양에서의 생활, 세자빈 강씨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10] 이상의 연구들은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다뤄진 주제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른바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 접근이 전제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도-보수적인 인조(및 서인) 세력 대 진보적인 소현세자, 혹은 허구적 명분론 대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당대 조선의 지식인, 관료들에게 있어 대명의리로 대표되는 세계관이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었음을 고려하면 명분론 대 현실주의의 구도로 각 행위자를 이분(二分)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현세자를 포함한 조선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명분이었으며, 이들이 보여주는 기록 역시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기존의 연구사가 제시한 구도와는 다르게 총 세 가지의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한양의 인조와 신료들은 물론이고, 심양의 소현세자 역시 '숭명반청(崇明反淸)'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소현세자 측에서 먼저 청의 유력자들에게 접근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숭명'의 자세는 명의

모든 것을 순진하게 긍정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었으며, 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사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심양의 소현세자는 물론이고, 한양의 인조와 신료들 역시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었으며, 선행연구에서 '허구적 명분론'으로 지적되었던 대명의리론이 정확한 정세파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3) 북경 입성 이후, 소현세자가 아담 샬과 교류한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교류가 소현세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성리학적 사고, 대명의리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기독교에 투신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던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애초에 아담 샬의 편지나 그가 남긴 기록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소현세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기독교에 대한 것인지 혹은 당대 서양의 천문 혹은 과학기술에 관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류가 가능했던 것 역시, 선행 연구가 지적한 것처럼 소현세자가 한양의 인식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분되는 개방적 혹은 진보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현세자가 한양의 인조와 신료들과 마찬가지로 대명의리론을 중요시했으나 동시에 서양의 학문이나 기술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논리적 귀결은 대명의리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명이 남긴 문물 이외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상의 논점들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그림 1] 심관구지도(瀋館舊地圖). (출처: 《조선일보》)

영조(英祖, 1694~1776)가 연행사 편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현종(顯宗, 1641~1674. 효종의 외아들)이 태어난 심양관을 그려오게 한 그림.

Ⅱ. 세계관: 균형적 비판의식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사의 구도는 '대명의리론을 고수하는 한양' 대 '새로운 세계관을 지향한 심양'으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허태구(2012), 이명제(2022) 등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소현세자를 비롯한 심양의 인질들이 대명의리를 저버렸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료 전반적으로 이들이 여전히 명에 대한

의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명에 대한 의리는 명의 모든 것을 순진하게 긍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명의 내정이나 명의 황제에 대한 혹평은 조선이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구분하여 말하자면, 조선은 실체로서의 명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나 한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비판하면서도, 명으로 상징되는 도덕적 원칙이나 규범에 대한 존중(이른바 대명의리론)은 지속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1) 실체로서의 명에 대한 비판의식

《소현심양일기》나 《인조실록》 모두 명의 잘못을 가리거나 명의 행태를 긍정하기보다는, 잘잘못도 솔직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崇禎帝)에 대한 비판이나, 북경 고위 관료들의 사치스러운 행적 등은 명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근거가 되었다. 《소현심양일기》의 관련 사료를 직접 살펴보자.

> 【명나라 태복경(太僕卿) 장춘(張春)과의 대화】
> "귀국은 본디 충순(忠順)한데 천조(天朝, 명나라)가 잘 다스리지 못하여 속국(屬國)으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귀국의 이번 일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어찌하겠습니까?"[12]

【포로가 된 명나라 사람 2 명과의 대화】

포로가 되었던 명나라 사람 2 명이 마침 관소 근처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역관) 박경생(朴庚生)이 몰래 명나라의 소식을 물으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상(皇上)이 술 마시기를 좋아해 술주정을 하여 정사(政事)가 어긋나는 방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화친(和親)하는 일로써 3 인의 사신을 보냈는데, 돌아올 즈음에 황상이 때마침 술에 취하여 곧 그들을 목 베어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상이 사신이 간 곳을 묻고, 좌우가 사실대로 대답하니, 황상이 또 어제 사형을 감독했던 사람을 목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화사(和使)를 다시 차출하게 하니, 차출된 사람이 전(前) 사신을 죽인 행동을 보았기에 늑장 부리고 망설이는 기색이 있는 듯하자, 황상이 또 목 베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13]

【금주위(錦州衛)에 도착한 소현세자】

세자가 조대수(祖大壽)와 조대락(祖大樂)의 옛 집에 들렀다. 범문정도 함께 가서 두 사람의 집을 두루 보았다. 집의 규모가 매우 커서 성 안에서 으뜸이었고, 중문(重門)과 복실(複室)에 금칠한 벽은 휘황찬란하였으며, 벽돌과 섬돌에는 기이한 문양을 새겨 놓았고, 무늬를 넣어 색칠한 담장은 지극히 화려하였다. 조대수의 집은 더욱 사치스러웠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중원에는 이보다 규모가 큰 집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비록 지존의 거처라 해도 이러할 수 없다. 화려하고 사치하며 재물을 탐함이 원망을 불러 결국 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허튼 소리가 아닌 듯하다."[14]

이상의 사료는 모두 명이 망하게 되는 이유나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서술이 가감 없이 기록되었다는 점은 조선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소현심양일기》 뿐만 아니라 《인조실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명의 패망에 관한 인조의 질문과 답변】
상(인조)이 이르기를,
"상국(上國)이 어찌하여 유적(流賊)을 방비하지 못하고 끝내 패망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중원은 환관이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고 사졸들이 반심(叛心)을 품음으로써 드디어 적의 돌격을 받아 끝내 멸망되었다고 합니다."[15]

이렇듯 조선이 오래도록 상국으로 여겨왔던 명은 끝에 가서는 부도덕하고 사치스러운 지도자 및 권력자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양의 소현세자는 반청(反淸)의 태도를 고수하다가 심양에서 죽은 삼학사(三學士)나 감옥에 갇히게 된 김상헌(金尙憲, 1570~1652)·최명길(崔鳴吉, 1586~1647)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한편, 친청(親淸)적으로 행동해 이익을 도모한 역관(譯官) 정명수(鄭命壽, ?~1653)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을 취했다. 그렇다면 왜 심양과 한양 모두 부패해 무너져 가는 명과 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을 지지하고자 했던 것일까?

(2)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과 반청(反淸) 의식

조선의 패전과 함께 소현세자, 봉림대군 등 왕실의 자제는 물론 삼공육경(三公六卿) 등 고위관료와 그 자제들까지 모두 심양으로 잡혀가게 되었다. 심양에서는 많은 조선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당대 사료에서 주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삼학사의 죽음과 정뇌경(鄭雷卿, 1608~1639) 사건, 그리고 심옥(瀋獄) 사건이다. 소현세자는 명에 대한 의리 및 나라의 보전을 위해 힘쓰다가 심양으로 끌려오게 된 사람들의 안위를 챙겨주었다. 현대의 척화론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 나라를 망하게 한 태도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심지어는 주화론을 주장한 최명길 역시 대명의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척화론은 조정의 완전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인식이었다.[16]

삼학사인 윤집(尹集, 1606~1637), 오달제(吳達濟, 1609~1637),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은 척화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현세자보다 먼저 심양으로 압송되었다. 홍익한은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가는 도중 참형에 처해 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7] 한편 윤집과 오달제는 세자가 이미 심양에 도착한 뒤인 4 월 19 일에 사망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용골대가 윤집과 오달제를 뜰에 끌어다 놓고 생살 여부를 물었을 때 재상이 “살려주기를 간청하였으나 듣지 않고 죽였다”라고 한다.[18] 삼학사 사건은 청이 심양과 한양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서, 앞으로도 반청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악수(惡手)로서, 조선은 이 사건으로 청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강화했으며 삼학사는 청에 대한 복수 의식을 지속하게 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림 2] 현절사(顯節祠). (출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삼학사를 기리는 사당. 1693 년(숙종 19)에 현절사라 사액되었으며, 1711 년(숙종 37)에 김상헌(金尙憲, 1570~1652)과 정온(鄭蘊, 1569~1641)을 추가로 입향(入享)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함.

《소현심양일기》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정뇌경의 죽음이다. 정뇌경은 1630 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수재로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인조를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으며, 세자가 볼모로 심양에 가게 되었을 때 자진하여 수행하였다. 심양에서 그는 문학(文學)으로 승진하여 소현세자를 직접 가르쳤다.[19] 이처럼 충직했던 정뇌경은 부패한 역관인 정명수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무고죄(誣告罪)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정명수라는 사람은 평안도 은산(殷山) 출신으로, 광해군 대에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이 청군에 투항했을 때 포로가 되었다. 그는 이때 청나라 말을 배우고 조선의 사정을 밀고하여 황제의 신임을 얻었으며, 병자호란 때도 용골대나 마부대 등 청 장수의 역관으로 조선에 와 각종 악행을 일삼았다. 그의 악랄함은 심양에 가서도 계속되었는데, 몸이 안 좋은 소현세자가 청 황제가 여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제한다든가, 도망친 조선 사람이나 한인(漢人)들을 다시 잡아들인다든가,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고 중간에 일부를 가로채 청의 신임을 얻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렸다. 때문에 그와 또 다른 역관인 김돌시(金乭屎)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졌고, 정뇌경은 몽고인으로 가장한 심천로(沈天老)라는 인물로 하여금 정명수와 김돌시가 뇌물을 받은 일을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명수와 김돌시가 이를 먼저 알아채고 증거를 인멸해 정뇌경은 그들의 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 용골대는 세자의 관소를 찾아와 “세자께서 만약 이번 음모에 가담하지 않으셨다면 서약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셔야 되겠다”라고

협박하였다.[20]

정뇌경이 죽던 4 월 18 일은 음산한 날씨였다. 세자는 정뇌경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처음에 재신(宰臣)들은 돈을 내고서 정뇌경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용골대와 마부대, 그리고 두 역관(정명수와 김돌시)의 말이 "매우 사나웠다". 이에 세자는 직접 나서 몸소 몸값을 바칠 테니 정뇌경을 풀어달라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세자가 문을 나서자 청측의 역관들이 길을 막아섰고, 사서(司書) 정지화(鄭知和, 1613~1688)가 이들에게 용골대와 마부대의 반응을 살펴봐달라고 부탁하였다.[21] 이때 정명수는 ""너는 어느 놈인데 또 나서는가?"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주먹으로 정지화의 뒤통수를 때려 갓끈과 옷고름이 다 끊어질 정도"였다고 하니, 정명수와 청이 심양의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하대했는지, 또 그들의 악랄함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잘 드러난다. 모든 수가 통하지 않았고 정뇌경 본인도 죽음을 각오했다. 세자는 정뇌경의 손을 붙들고는 눈물을 흘렸고, 재신들의 간청으로 정뇌경은 참형 대신 교형(絞刑)에 처해졌다.[22]

자진하여 심양에 함께 와 3 년간 자신을 가르친 스승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본 소현세자가 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을 리는 만무하다. 이러한 세자의 청에 대한 불만이 곧 그 반작용으로 강렬한 대명의리의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청은 분명히 명과는 너무나 달랐으며, 그들은 무력이나 협박을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도 강제하곤 하였다. 조선인 여성들을 골라



[그림 3] 충정공(忠正公) 정뇌경. (출처: 《기호일보》)

보내라든지, 죄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즉결처분한다든지, 쇄환인(刷還人)을 잡아 오라든지 하는 요구에 대해 소현세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다든지”, “사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최대한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23] 청에 대한 이와 같은 미시적 불복종은 간접적으로 소현세자 본인이 청 주도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 소현세자의 태도는 단지 심양 생활 전반기에만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1640 년 이후에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심옥 사건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정뇌경이 죽은 이듬해인 1640 년 11 월, 청 장수 용골대는 과거 대표적인 척화신이었던 김상헌이 아직도 명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직에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아 그를 심양으로 압송하였다. 김상헌 외에 신득연(申得淵, 1585~?), 조한영(曺漢英, 1608~1670), 채이항(蔡以恒, 1596~1666) 등이 함께 심양으로 끌려왔는데, 이들은 모두 병자호란 시에 척화를 주장하고 직접 전장에서 싸운 경험이 있기도 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심양의 감옥인 남관(南館)에 갇혀있다가, 1641 년 1 월 8 일 심문을 받고서는 북관(北館)으로 옮겨졌다. 이때 신득연이 정명수에게 살려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김상헌은 “곧 죽을 사람이 애걸한다고 살 수 있겠는가”라며 안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심문에 임하였다. 청은 그 이후로도 조선이 명과 내통하거나 친명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감시했는데, 1641 년 10 월 말에 조선이 남조(南朝, 명나라)에 쌀을 보냈다는 소문이 났다.[24] 이듬해에는 조선이 한선(漢船, 명나라의 배)을 통해 명나라와 내통하고 있음이 발각되어 그 책임자로 최명길이 심양으로 압송되었다.[25] 최명길은 과거 주화(主和)를 주장한 내력이 있으므로 바로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으나, 용골대는 소현세자가 함께 최명길의 심문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6] 이에 세자는 지금까지 처신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했으나, 용골대는 굳이 세자를 압박하여 그가 심문에 참여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결코 따를 수 없다고 했고, 이는 없던 일이

되었다. 이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자는 용골대에게 계속 추궁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세자는 불복하며 어쩔 수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세자가 최명길과 함께 잡혀온 신하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름대로 청원을 지속한 덕분에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는 하였으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27]

소현세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 반청의 태도는 도저히취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미시적 불복종이나 소소한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다. 이상을 고려하면 소현세자가 현실주의적 사고에서 친청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은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정세 인식: 전황(戰況)의 입수와 출병 경험

소현세자는 심양관(瀋陽館)에 머물면서 용골대(龍骨大)나 마부대(馬夫大) 등을 통해 전황을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징병 요청이 오기도 하였고, 소현세자나 봉림대군 본인이 직접 출병에 나가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심양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의 전개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실제 전투에 참여했을 때 “기밀 사항이라 알 수 없었다”라는 서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이

전략상의 방책까지 공유할 정도로 조선을 신뢰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쟁의 향방에 대해서는 한양 역시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려고 했으며, 그 정보는 심양을 통해 오는 것과, 최명길의 심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지의 심양과는 약간의 시간적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허구적 명분론'으로 지적되었던 대명의리론 때문에 조선이 정세파악을 시도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 것도 아니다. 이하에서는 징병 및 남한산성 재건 문제와 관련된 소현세자의 태도 및 그의 출병 경험을 중심으로 소현세자가 어떤 식의 정세 인식을 하고 있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간자의 어려움: 징병과 남한산성 재건 문제

청의 조선 침략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륙 진출 이전에 명과 가까운 조선과의 양면전(兩面戰)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있었다. 한편 1637 년에 조선이 청에 항복한 것은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조력자가 사라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대 세력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던 명을 배신하게 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른바 중립 정책을 구사하고자 했던 광해군에 대해 폐모살제(廢母殺弟;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임)와 중국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반정(反正)을 일으킨

인조에게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정치적으로 매우 타격이 큰 것이었다.[28] 때문에, 조선은 항복 이후에도 명과의 연락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조선이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은 한편으로는 대명의리론과 같은 명분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청이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후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명청 교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당대로 돌아가서 보면 북경이 함락되기까지는 무려 8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명이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1368 년부터 250 년 넘게 유지된 나라였음을 고려하면 갑자기 나타난 북방 세력이 완전히 중원을 접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무엇보다 1644 년에 북경이 청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남명(南明) 세력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1662 년이 되어서야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637 년의 항복 이후 조선이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29]

청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볼모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심양에 데려오기는 했으나 조선이 명과 연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의심했다. 특히 심양 생활 초반에 조선이 남한산성을 재건하는 일이나, 제대로 징병을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그때마다 소현세자는 조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와 같은 소현세자의

중간자적 입장-청으로부터는 조선이 명과 내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조선으로부터는 청과 지나치게 가까워진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은 그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으며 소현세자가 심양 체류 중 몇 번이나 앓아눕고 심지어는 어의(御醫)도 세 번이나 불려왔던 상황은 그의 어려운 위치를 잘 보여준다.

심양 생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소현세자와 조선을 괴롭힌 문제는 징병 문제였다. 패전 직후 조선은 전쟁의 여파로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는 데다가, 잇단 가뭄과 병해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군사를 징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명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차원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전자의 차원이 명을 배신하고 청의 편에 서는 것의 부담감이라면, 후자의 차원에서는 실제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초기 상황에서 명을 공격하는 것의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었겠다. 조선이 항복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1641 년에도 명은 밀서를 보내 함께 협공하자는 제안을 보내오기도 하였다.[30] 그러나 당장 청의 위협이 눈앞에 있었고, 소현세자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징병 요청 시 그것을 최대한 미루거나 그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여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31]

징병 문제와 함께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한산성의 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1637 년 7 월 처음으로 남한산성을 복구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징병 요구에 불응했을 때 청과의 무력 충돌을 우려한 것에서 비롯하였다.[32] 이때 단순히 원상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포대를 증설하여 방어력을 증강하였는데, 1638 년 3 월에 이 일이 청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연히 용골대나 마부대 등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결국 1639 년 12 월 조선을 방문한 청나라 사신 일행은 증축된 포대와 성곽의 보수 부분을 철거할 것을 강요했다. 조선은 남한산성의 보수가 남방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항변하였으나, 청이 조선의 모든 산성에 대해 증·개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 남한산성의 증설된 포대는 철거되는 일이 일어났다.[33]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은 장기적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지만, 청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과 남한산성 축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소현세자는 그 팽팽한 긴장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과 조선 양측으로부터 의심받지 않을만한 수준에서 적당히 협조하는 것이 소현세자가 취할 수 있는 좁은 운신의 폭이었다. 그러나 당대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양 생활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청이 소현세자를 포함한 조선을 완전히 신뢰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태도 역시 썩 따뜻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 4] 남한산성(南漢山城). (출처: 문화재청)

(2) 소현세자의 출병: 전황의 직접적 경험

때때로 청은 소현세자나 봉림대군에게도 직접 출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앞서 설명한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소현세자가 아픈 일이 많아 봉림대군이 대신하여 출병을 다녀오곤 했으며, 세자는 그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소현세자의 출병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된 것은 1641 년 청의 금주(錦州)를 포위 작전에 동원되어 서행에 나섰을 때이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8 월 15 일에 신하들의 전송을 받으며 관소를 떠났다. 사실은 이미 6 월에 조선은 청에 원병을 보낸 상태였는데,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소문이 퍼져있어 민심이 좋지 않았다. 인조실록은 병조가 전투 기금으로 준 면포를 한 병사가 내동댕이치면서 “이번에 내가 가면 죽을

것인데 이것을 받아 무엇하겠는가"라며 분노를 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34] 조선인 병사들은 교전 중에 사망하기도 하였지만, 전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사룡(李士龍)이란 사람은 의도적으로 탄환을 제거한 채 공포(空砲)를 쏘았다는 이유로 참형을 당하였으며, 김득평(金得平)이란 사람은 대포를 적중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아야 했다.[35]

다시 심양의 소현세자 이야기로 돌아오면, 심양에서는 모든 일이 극비여서 언제 출발할지를 알 수 없었으며, 다만 금주에서의 전투 상황이 좋지 않아 군대를 증원하고 있다는 상황만을 파악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결국 출병 직전 급하게 짐을 꾸리게 되어 비축한 것을 모두 써버리는 바람에 관소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었으며, 그나마도 부족해서 행장은 초라한데 날은 추워지는 암울한 상황이었다.[36] 소현세자 일행은 먼저 출발한 황제의 행차를 따라잡기 위해 매일 아주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며 충분한 식량과 물을 준비하지 못해 기갈에 시달려야 했다. 금주에 도착한 이후에는 명과 청의 군대 간 교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 뒤숭숭한 밤을 보내는 날도 많았다.[37] 포탄이 세자의 막사 근처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38] 불행인지 다행인지 황제의 둘째 부인이 위중한 상황에 빠져 세자는 한 달쯤 뒤인 9 월 18 일에 다시 심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 달 남짓한 서행에서 세자는 전쟁의 비참함과 죽음을 목격했으며, 청의 부도덕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1641 년 8 월 25 일(戊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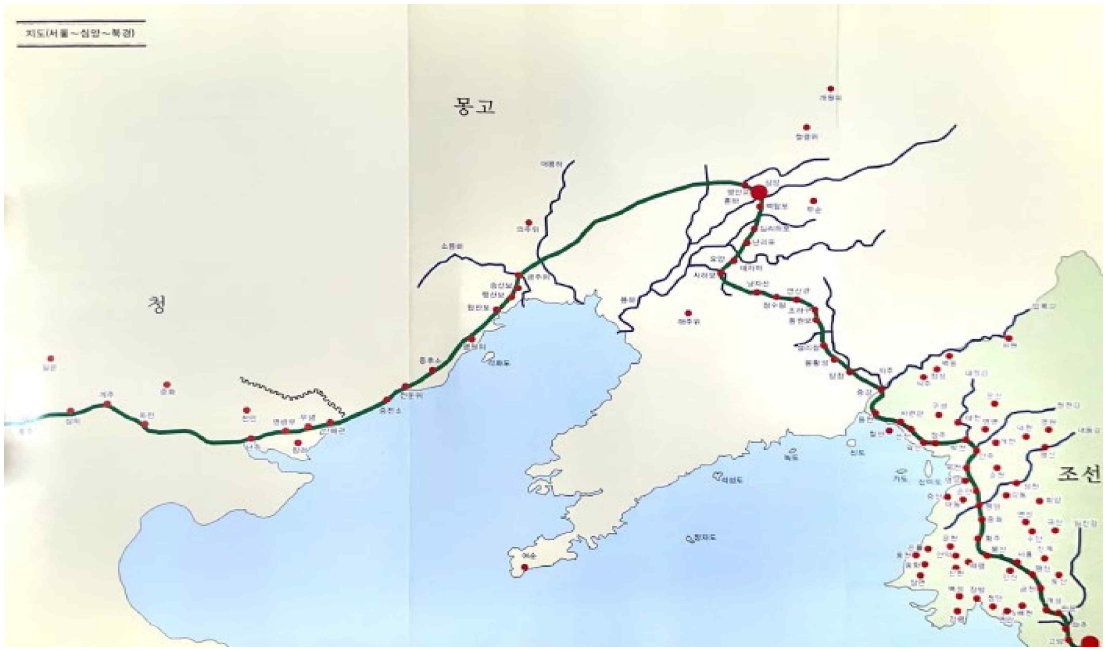
청군이 사흘 동안 수색하여 죽이며 참혹한 짓을 다했으나, 명인들은 죽음을 고향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 항복하는 자가 드물었고, 그들의 장군을 옹위하여 바다 가운데 서서 팔을 뻗어 가려주어 화살을 맞지 않게 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는 모습을 잃지 않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 일은 청인들 또한 말하는 바이다.[39]

【1641 년 8 월 30 일(癸酉)】

청인이 싸움에 이긴 뒤로 나가서 노략질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떤 때는 날랜 기병을 보내 영원 근처로 돌진하게 했는데, 나무하는 사람이며 짐승을 기르는 장정, 말이나 소가 많은 곳을 만나기라도 하면 약탈해 왔다.[40]

세자가 심양으로 돌아온 3 일 뒤에 한양도 명·청의 전투 상황 및 아군의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였고 "대명(大明)의 군사"가 "청인(淸人)"에게 크게 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조선이 명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었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앞서 언급한 최명길의 심옥 사건이다. 조선은 더욱 궁지에 몰렸고, 그 위기감은 심양에 있는 소현세자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전투에 참여한 뒤 소현세자는 금방 조선에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투 이후의 기록

여러 부분에서 소현세자가 관소를 정비하는 데 과도한 물자를 들이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41] 다만 이것이 청에 대한 친화적 자세에서, 심양 생활에 익숙해진 점에서 비롯한 것인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관소의 정비는 앞서 언급한 최명길의 심옥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진 것으로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 사안에 대해 세자는 청에 대한 소소한 반기를 들며 조선의 신하들을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조선으로의 빠른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생활을 낫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인다.



[그림 5] 지도(한양~심양~북경). (출처: 소현심양일기(昭顯瀋陽日記) (서울: 민속원, 2008))

Ⅳ. 세계관과 정세 인식의 근본적 전환?: 아담 샬과의 교류

1642 년부터 산해관이 곧 함락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실제 산해관이 함락된 것은 그로부터 2 년 뒤인 1644 년 4 월 22 일이었다. 산해관에 도착하자 명의 장수 오삼계(吳三桂)가 장수와 기병들을 데리고 투항하였으며, 청나라 군대가 들어가 성 위에 백기(白旗)를 세웠다. 남은 유적(流敵)과의 전투가 끝나고 나니 텅 빈 전장에 시체가 이리저리 뒤엉켜 큰 벌판에 가득 쌓여있었다. 청군은 달아나는 명의 기병들을 쫓아가 모두 죽였으며 도망치다 해자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다. 1641 년의 금주위 전투에서는 약탈을 일삼았던 청군이었으나, 산해관이 함락된 뒤 섭정왕 도르곤은 유시(諭示)를 내려 약탈을 금하였다.

【산해관 함락 후 섭정왕 도르곤의 유시】

관리와 병사들은 명심하라. 지난날 세 차례에 걸쳐 명나라를 정벌하여 사람을 사로잡고 재물을 빼앗았으나, 지금 큰일을 하면서 그리해서는 안 될듯하다. 하늘의 도움을 입어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켜 대업을 이루어야 한다. 변경을 넘어 들어가는 날 귀순해 오는 성에서는 살인을 불허하며, 머리를 깎아 변발하는 일 외에는 털끝하나 범하지 말라. 마을에 흩어져 사는 인민 또한 함부로 살해하지 말 것이며, 함부로 빼앗아 종으로 삼는 일, 의복을 벗기는

> 일, 집을 훼손하는 일, 민간의 기물을 함부로 빼앗는 일도 모두 허락지 않는다. …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죽여서 여러 사람에게 경계로 삼게 할 것이다. … 무릇 우리 장군들은 휘하 관리와 군인의 도움을 받아 마땅히 이 명령을 되풀이 전달하여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별히 유시한다.

이후 소현세자는 6 월 18 일에 일단 심양으로 돌아왔다가, 2 달 뒤인 8 월 18 일에 북경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북경에 머무른 약 70 일간의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아 소현세자가 북경의 문연각(文淵閣)에 있으면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유일하게 남은 기록은 북경에 있던 독일의 선교사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이 남긴 편지이다. 야마구치 마사유키의 연구는 아담 샬이 남긴 라틴어 회고록 *Historica Relatio* 중 소현세자와 나눈 편지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선행연구 정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야마구치의 의도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소현세자가 일찍 사망함에 따라 조선의 자체적 개혁 기회가 사라졌음을 논증하는 데 있었다. 이상의 의도에서 당연히 야마구치의 구도는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려는 소현세자와 세상과 단절된 조선 왕실의 대비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과연 그러한 구도가 타당성을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소현세자가 새로운 학문체계에 어떠한 대응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Historica Relatio.*

(출처: https://library.maastrichtuniversity.nl/resources/special-collections/exhibitions/china-exhibition/)

[그림 7] 아담 샬(湯若望)

(출처: https://library.maastrichtuniversity.nl/resources/special-collections/exhibitions/china-exhibition/)

야마구치의 구도에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문은, 조선이 인조대는 물론 그 이후로도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외부의 학문이나 문물을 전혀 수용할 의지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때 외부를 '서양'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서양의 사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은

1520 년(중종 5 년) 북경에 사대사행의 통역관[通事]으로 파견되었던 이석(李碩)에 의해서였다. 그는 국왕에게 제출한 여행 보고록인 《문견별단(聞見別單)》에서 서양의 '불랑기국(佛朗機國, 프랑스)'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다루었다. 이후 1627 년(인조 5 년)에는 벨테브레 일행 3 인이, 1653 년(효종 4 년)에는 하멜 등 36 인이 조선에 표류해 몇 개 지역에 분산 수용되는 일이 있었다. 한편으로 연행사신들에 의해 《천주실의(天主實義)》·《교우론(交友論)》 등의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와 《치력연기(治曆緣起)》·《천문략(天問略)》 등의 《천문역산서(天文曆算書)》, 《원경서(遠鏡書)》·《천리경서(千里鏡書)》 등의 기기서(機器書)가 전파된 바 있다. 이상을 고려한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부와 단절된 채 아무런 정보도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소현세자가 반드시 외부 문물의 적극적 수용자일 필요성도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42]

그 연장 선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문은, 소현세자가 과연 얼만큼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으며, 아담 샬과는 어느 수준의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야마구치의 연구 이전에도 소현세자와 아담 샬의 교유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 19 세기 후반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신부인 황백록(黃伯祿)이 간행한 중국 천주교 역사 저작인 《정교봉포(正敎奉褒)》가 그것인데, 이 책은 둘 간의 교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이능화(李能和, 1869~1943)의 《조선 기독교와 외교사(朝鮮基督敎及外交史)》(1928)은 아담 샬과 교유한 것은

소현세자가 아닌 봉림대군으로 보고 있어 아담 샬과 소현세자 간 교유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야마구치의 연구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43] 이능화와 야마구치가 각각 아담 샬과 교유한 인물을 다르게 설정하게 된 이유는, 아담 샬의 기록이 자신과 교류한 인물이 "조선의 왕(le Roi de Coree)"이었다고 적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소현세자도 봉림대군도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마구치와 그의 연구성과를 수용한 후속연구들은 아담 샬이 착각을 했거나 과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44] 반면 이능화의 경우, 왜 아담 샬이 언급하는 조선의 왕이 봉림대군인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후에 효종으로 즉위하기 때문에 "조선의 왕 = 봉림대군(효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이상의 차이는 아담 샬과 조선 왕실 인물 간의 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현세자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는다.

설령 "조선의 왕"을 소현세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담 샬의 기록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소현세자가 학문적 성과인 역법 수용을 넘어서서 기독교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장정란(1994)이 소개한 라틴어 직역본을 참조할 때, 아담 샬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담 샬의 *Historica Relatio*】

그[조선의 왕]는 중국에서 역학을 좀 더 익히도록 하려고 조선에서 역관(曆官)으로 일하는 이들 몇몇을 데려왔습니다. … 조선인들이면

> 누구나 흔히 그렇듯이, 조선 임금 역시 학문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닌 책들도 모조리 선물했습니다. 역서(曆書)들뿐만 아니라 [천주(天主)의] 계명을 다루는 책들도 선물하고 천구의와 구세주상도 선물했습니다. … (조선의 왕이 자신에게 서한을 보낸 내용) "몇몇 서책들을 대충 살펴보니 저희가 이제까지 모르던 교리를 다루더군요. 마음을 닦고 덕을 기르는 데 매우 적절한 교리입니다. 저희 나라는 명오(明悟)가 어두워 이제까지 이 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 사람들이 매우 먼 땅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학문으로 합치될 수 있다는 사실만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 기록에서 언급되는 내용-특히 소현세자가 구세주상(성화상)을 가지고 왔다는 설, 아담 샬이 기독교 신자인 환관과 궁녀들을 보냈다는 설-은 과장되었거나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 정도로 조선의 왕이 기독교에 감화되어 실질적 조치가 취해졌다면 동료 선교사들의 서한이나 보고문 등에도 관련된 언급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5]

다만 이상의 지점들은 사료의 부족으로 엄밀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당대의 인물들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될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질문은, 소현세자가 서양 문물을 수용했다고 할 때, 그것이 소현세자의 특별한 개방적

시각-특히 조선의 폐쇄적 시각과는 대비되는- 덕분이냐는 점이다. 앞서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소현세자의 세계관이나 정세 인식은 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소현세자가 물론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청의 새로운 문화나 문물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기존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간접적인 서술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소현세자는 대명의리론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도덕 관념 혹은 규범을 여전히 내재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새로운 문물의 수용-특히 서양의 그것-이 그러한 관념의 유지와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명의리론 그 자체는 명이 남긴 문물 이외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았고, 이는 소현세자뿐만 아니라 조선의 많은 인물들이 서양의 자료를 수용해왔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당대의 사료들을 통해 소현세자가 심양 생활 동안 보여준 세계관과 정세 인식을 복원해보고자 시도했다. 이상에서 필자는 선행연구와는 구분되는 세 가지의 주장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소현세자 역시 반청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실체로서의 명에 대한 비판의식과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현심양일기》는 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서술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사료 인용을 통해 확인했다. 한편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이동하거나 그곳에 머무는 도중 발생한 삼학사 사건, 정뇌경 사건, 심옥 사건에서 소현세자가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 소현세자가 미시적 불복종으로서 청에 소소한 반기를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소현세자는 물론이고 조선 역시 전황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도 앞서 지적한 도덕 관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징병과 남한산성 문제에서 청은 무력사용을 암시하는 협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조선을 다루려고 했다. 또한, 소현세자가 직접 출병한 금주위 전투에서 청군이 보여준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에 관한 서술 역시 청을 바라보는 조선인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심양과 한양 모두 빠른 정보 입수를 통해 객관적인 정세 인식을 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관련한 도덕적 평가를 병렬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소현세자와 아담 샬의 교유와 그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소현세자가 보여준 세계관이나 그의 정세 인식이 조선(한양)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서양 문물의 수용을 가능하게 했는지 논증하고자 했다. 만약 선행 연구의 구도-개방적·진보적인 소현세자와 폐쇄적·보수적인 조선 왕실-가 성립하지 않고, 둘 간의 친연성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물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설명되려면, 그 유일한 방식은 대명의리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도덕 관념 혹은 규범 인식이 외부 학문이나 문물의 수용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후 청의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북학파의 등장 같은 것도 조선 성리학의 내재적 체계 안에서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본 글의 연구 주제가 아닐뿐더러 시기적으로도 떨어져 있어 추후 별개의 작업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1]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14일 갑인 2번째 기사.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워 성 위에 있던 군졸 가운데 얼어 죽은 자가 있었다. ○時, 風氣甚寒, 城上軍卒, 有凍死者。;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18일 무오 5번째 기사. 눈이 크게 오다. ○大雪。

[2]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6일 병인 2번째 기사. 강도의 함락 보고를 처음 듣다. 홍서봉·최명길·김신국이 오랑캐 진영에 가서 세자가 나온다는 뜻을 알리니, 용골대가 말하기를, "지금은 국왕이 직접 나오지 않는 한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윤방·한흥일의 장계와 대군(大君)의 수서(手書)를 전해 주었다. 이에 처음으로 강도(江都)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성 안의 사람들이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洪瑞鳳、崔鳴吉、金藎國出往虜營, 諭以世子出來之意。 龍將曰: "今則非國王親出, 決不可聽。" 仍傳尹昉、韓興一狀啓、大君手書。 始聞江都失守之報, 城中莫不痛哭。

[3]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30일 경오 2번째 기사.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가 성 밖에 와서 상의 출성(出城)을 재촉하였다. 상이 남염의(藍染衣)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의장(儀仗)은 모두 제거한 채 시종(侍從) 50여 명을 거느리고 서문(西門)을 통해 성을 나갔는데, 왕세자가 따랐다. 백관으로 뒤쳐진 자는 서문 안에 서서 가슴을 치고 뛰면서 통곡하였다. ○龍、馬兩胡, 來城外, 趣上出城。 上着藍染衣, 乘白馬, 盡去儀仗, 率侍從五十餘人, 由西

門出城, 王世子從焉。 百官落後者, 立於西門內, 搥胸哭踊。

[4]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2월 5일 을해 3번째 기사. 왕세자가 오랑캐 진영에서 와서 하직을 고하고 떠나니, 신하들이 길 가에서 통곡하며 전송하였는데, 혹 재갈을 잡고 당기며 울부짖자 세자가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王世子來自虜營, 告辭而行, 群臣哭送於道傍, 或執鞚攀號, 世子按馬久之。

[5] 청 태조 누르하치는 만주지역의 여러 여진족을 통합하여 1616년 흥경(興京; Hetu Ala)에서 후금국을 세웠다. 1621년, 요양(遼陽)과 심양을 명으로부터 빼앗고 1625년에 심양으로 천도하였다. 청 태종 홍타이지는 1631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양성(瀋陽城)을 개편, 증축하여 완전한 수도의 모습을 갖추도록 했다. 1643년에는 심양을 성경(盛京)으로 개칭하였으며, 이듬해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다음에는 심양을 배도(陪都)로 삼았다. 이상은 유지원, "조선인의 기록을 통해 본 滿洲의 聖道,"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3-1(2012), III장. 및 김기림, "조선인의 심양 공간인식 양상: 병자호란 이후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1(2016), p.10. 참조.

[6] 야마구치 마사유키(山口正之, 1901-1964). 후쿠오카현(福岡県) 구루메시(久留米市) 출신으로, 1929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法文学部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평양고등여학교(平壌高等女学校)에서 교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1949년 오쓰시(大津市) 교육위원회 교육장, 1956년 시가현립코가고등학교(滋賀県立甲賀高等学校) 교장, 1958년 시가현립도라히메고등학교(滋賀県立虎姫高等学校長) 교장, 1960년 히코네시(彦根市) 교육위원회 교육장 등을 역임하였다. 교직에 있으면서 일본 기독교사를 연구하였다.

[7] 山口正之, "昭顯世子と湯若望", 《靑丘學叢》 (1931).; 야마구치의 한국천주교회사 연구는 《朝鮮西敎史》 (19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마구치의 1931년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는 장정란의 "昭顯世子 硏究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1994)라는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상은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2022), pp.193-232를 일부 참조.

[8]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사학연구》 18(1964), pp.433-490.

[9] 최소자, "호란과 조선의 대명·청관계의 변천-사대교린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대사원》 12(1974), pp.29-55.; 최소자, "淸廷에서의 소현세자", 《全海宗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일조각: 1979).; 최소자, “청과 조선-명·청 교체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이화사학연구》 22(1995), pp.183-196. 다만 저자는 후기 연구로 갈수록 조선의 대명의리론 역시 소화(小華)로서 조선의 유지를 꾀했다는 점에서 비판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김경미, “특집: 한국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소현세자의 ”청“ 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 10, 2006.; 김기림, “조선인의 청국 생활: 소수자의 삶,” 《이화어문논집》 34, 2014.; 남은경, “《瀋陽日記》 연구: 소현세자, 봉림대군의 심양 체험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2, 2005.;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2022.; 허태구,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심양(瀋陽) 억류와 인질(人質) 체험,” 《한국사상사학회》 40, 2012.

[11] 허태구, “昭顯世子의 瀋陽 억류와 人質 체험”, 韓國思想史學 40(2012), pp.143-176.;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2022), pp.193-232.

[12] 《소현심양일기》 권1 1638년(戊寅年) 1월 1일(乙丑). 태복경 장춘은 대릉하(大陵河) 전투를 구원하러 왔다가 청에 사로잡힌 인물로, 끝내 변절하지 않고 억류된 상태였다.

[13] 《소현심양일기》 권3. 1643년(癸未年) 6월 22일.

[14] 《소현심양일기》 권4. 1644년(甲申年) 4월 19일(丙子).

[15]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8월 23일(戊寅) 2번째 기사(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대신과 비국 당상 및 문학 이래를 인견하여 정사를 논의하다.

[16] 한명기, 《최명길평전》 저자는 95%가 척화론자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7] 《소현심양일기》 권1. 1637년(丁丑年) 3월 15일(甲寅).

[18] 《소현심양일기》 권1. 1637년(丁丑年) 4월 19일(戊子).

[19] 문학(文學)은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5품 관직이다. 조선이 건국된 후, 좌우 문학 2인으로 설치되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명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겸직으로 겸문학(兼文學) 1명이 증치되었다. 세자시강원의 녹관(祿官)이며, 상번으로 서연에 참여하였다. 문학은 주로 문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경전이나 서적을 탐

구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출처: 문학(文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소현심양일기》 권1. 1637년(丁丑年) 1월 26일(甲申).

[21] 사서(司書)는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이다. 조선 초기에 세자관속으로 설치된 사경이 1469년(예종 1)에 사서로 바뀌었으며, 이후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으로 조선 말까지 운영되었다. 중종 대 이후에는 겸사서가 증치되기도 하였다. (출처: 사서(司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소현심양일기》 권1. 1637년(丁丑年) 4월 18일(乙巳).

[23] 《소현심양일기》 권1. 1638년(戊寅年) 7월 10일(辛未). “세자는 본국에서도 문안을 여쭙고 수라를 살피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군사와 국정에 관계된 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신이 이 자리에 있으니 이 일은 사신에게 묻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소현심양일기》 권3. 1642년(壬午年) 11월 11일(丁丑). “세자의 직책은 비록 본국에 있을 때에도 강학(講學)과 수라를 살피는 일 이외에는 감히 조정의 정사에 간여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영상은 대조(大朝)의 대신(大臣)으로 세자의 사부입니다. 함께 하여 심문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24] 다만 소현세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아마도 세폐미(歲幣米)를 실은 배 2척이 풍랑을 만나 떠내려간 것이 와전된 것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 한편으로 당시 조선은 가뭄이나 병해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청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의심을 살만한 일을 자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호부의 아리암배와 보대평고는 이 소문을 전한 한인(漢人) 2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사형에 처했다. 《소현심양일기》 권3. 1641년(辛巳年) 10월 29일(辛未); 10월 30일(壬申).

[25] 《소현심양일기》 권3. 1642년(壬午年) 10월 25일(壬戌); 10월 28일(乙丑).

[26] 《소현심양일기》 권3. 1642년(壬午年) 11월 11일(丁丑).

[27] 《소현심양일기》 권3. 1643년(癸未年) 4월 1일(甲子).

[28]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4일 갑진 8번째 기사(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백관의 하례를 받고 교서를 반포하다. “우리 국가는 열성(列聖)이 계승하여 그 가법이 가장 올바르다. 인으로 정사를 펴고 효로 다스려 그 빛나고 흡족한 교화가 소경 대왕에 이르러 극진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돌보지 않아 드디어 비운을 만났다. 지난 10여 년 이래로 적신 이이첨(李爾瞻)이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국권을 천단하며 모자간에 이간을 붙여 끝내 윤리의 사변을 자아내 모후를 별궁으로 폐출하는 등 갖은 수욕을 가하였다. 진 소양왕(秦昭襄王)과 진 혜공(晋惠公)의 화도 이에 더 지나칠 수 없다. 더구나 부모와 같은 중국 조정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동방 예의의 풍속을 무너뜨려 삼강(三綱)이 땅을 쓸은 듯 없어졌으니, 이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사치가 도에 넘치고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곤궁하고 재정이 고갈되며 내외의 질서가 무너짐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망치고 종사를 전복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소소한 일들은 자전의 하교에 모두 거론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惟我國家, 列聖相承, 家法最正, 以仁爲政, 以孝爲理, 重熙累洽之化, 至先昭敬大王而極矣。 昊天不弔, 遂値否運, 越自十數年來, 賊臣爾瞻熒惑君心, 圖竊國柄, 仍搆母子之隙, 竟成彝倫之變, 出廢別宮, **僇辱備至**, 秦 昭、晋 惠之禍, 不啻過之。 況乃背天朝父母之恩, 滅吾東禮義之風, 三綱掃地, 胡可忍言! 至如侈欲之無度, 刑政之紊亂, 民窮財盡, 外潰內訌, 足以亡國殄祀, 猶是薄物細故, 悉具慈敎, 無容贅擧。)”

[29] 한선(漢船)이 먼저 조선에 접근하기도 하였으며, 최명길의 심옥 사건은 조선과 명이 내통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선은 일단 청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명과의 관계도 비밀리에 유지함으로써 전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든 지나치게 불리한 위치에는 처하지 않는 위험 최소화(risk-minimizing)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0] 《인조실록》 42권. 인조 19년 8월 25일 무진 2번째 기사. 중국과 밀통하다. 칙서 중에 “이전의 허물은 거론치 않을 것이니 기어코 함께 협공하자.”는 말이 있었다. 비국의 신료들 중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자도 있고,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자도 있었는데, 그 일이 비밀에 부쳐져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勅書中有不錄前過**, 期與夾攻之語。 備局諸臣或以爲不可不受, 或以爲不受便, 其事秘, 人莫知之。)

[31] 《소현심양일기》 1638년(戊寅年) 8월 6일(丙申). 아침에 용골대와 마부대 두 장수가 와서 세자를 뵙고 말하였다. “6월 안으로 군사를 정비해 놓고 기다리라고 이미 여러 차례 분부하였으니 이제 다시 분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만약 이 날짜를 놓치면 기일에 늦은 죄는 마땅히 국왕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와 세자도 반드시 예측하지 못할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세자

가 말하였다. “변경의 신하가 비록 이미 정비해 두었더라도 조정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먼저 들어올 리가 없을 듯하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용골대 장군은 ”그렇다면 틀림없이 기일을 놓친 죄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일어나 갔다. 즉시 선전관 최명후로 하여금 급마(急馬)를 타고 장계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다.

[32]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7월 21일 정해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시전》의 강이 끝난 후, 최명길 등이 강도 등의 수비와 연호에 대해 아뢰다

[33] 《소현심양일기》 p.137. 역자 주 참조.

[34] 《인조실록》 42권, 인조 19년 6월 18일 임술 1번째기사 1641년 명 숭정(崇禎) 14년 심양가는 군병을 위문하다

[35] Ibid., 인조 19년 5월 4일 무인 1번째기사 1641년 명 숭정(崇禎) 14년청나라에 원병간 이사룡이 참형당하고 김득평이 장형에 처해지다

[36] 《소현심양일기》 권2. 서행 시의 행장을 꾸린 일에 대한 기록. 1641년 신사년 8월 모일.

[37] 《소현심양일기》 권2. 1641년(辛巳年). 8월 22일(乙丑).

[38] Ibid., 8월 30일(癸酉).

[39] Ibid., 8월 25일(戊申).

[40] Ibid., 8월 30일(癸酉).

[41] 《소현심양일기》 권3 1642년 6월 14일(壬子). 7월 14일(壬午). 7월 19일(丁亥). 9월 19일(丙戌). 1643년 4월 27일(庚寅).

[42] 국사편찬위원회, “17세기 서양 문물의 도입,” 《신편한국사》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31_0050_0030_0020#ftid_0603)

[43]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2022. pp. 200-201.

[44] 한편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판한 베르나르(H. Bernand)는 여기서의 “조선의 왕”이 바로 인조(李倧)라는 주석을 달았으며, 황백종은 “朝鮮國王李倧之世子(조선 국왕 이종의 세자)”라고 서술하였다. 다만 인조는 이 시기 북경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베르나르의 주석은 잘

못된 것이다.

[45]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2022.

참고문헌

1 차 사료

《소현심양일기(昭顯瀋陽日記)》(서울: 민속원, 2008)

《소현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서울: 민속원, 2008)

《심양장계(瀋陽狀啓)》

《인조실록(仁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구범진, 2009.《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서울: 까치,

김한규. 1999.《한중관계사II》. 서울: 아르케.

최소자, 2005.《淸과 朝鮮: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서울: 혜안.

마크 C. 엘리엇. 2009.《만주족의 청제국》. 이훈·김선민 역. 서울: 푸른역사.

山口正之, 朝鮮西教史：朝鮮キリスト教の文化史的研究 (東京：雄山閣, 1967)

연구논문

김경미, “특집: 한국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소현세자의 ”청“ 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 10, 2006.

김기림, “조선인의 청국 생활: 소수자의 삶,” 이화어문논집 34, 2014.
김남윤, “『昭顯乙酉東宮日記』로 본 昭顯世子의 죽음,” 奎章閣 32, 2008.
_____, “ 瀋陽日記 와 昭顯世子의 볼모살이,” 奎章閣 29, 2006.
김민호, “병자호란(丙子胡亂) 전후 만주인이 본 조선인: 소현심양일기(昭顯瀋陽日記) 및 선약해(宣若海)의 심양사행일기(瀋陽使行日記) 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41, 2013.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사학연구 18, 1964.
남은경, “특집: 전쟁과 인간: 그 체험과 기역, 그리고 재현; 병자호란과 그 후의 기록 심양장계(瀋陽狀啓) ,” 한국문화연구 14, 2008.
_____, “ 瀋陽日記 연구: 소현세자, 봉림대군의 심양 체험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2, 2005.
박주, “한국사상(韓國思想): 조선후기 소현세자빈 강씨의 리더십에 대한 재조명,” 한국사상과문화 62, 2012.
안유림, “명청교체기 심양관의 역할,” 한국문화 50, 2010.
안재원, “아담 샬, 순치제, 소현세자,” 인간·환경·미래 8, 2012.
우경섭,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청외교, 1637-1700,”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조선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2022.

_____, “소현세자의 2 차 귀국을 통해 본 도르곤의 對 조선 전략,” 동양사학연구 160, 2022.

정혜중, “『청사고(淸史稿)』 「속국전(屬國傳)」 조선 관계 기사(記事) 분석,” 중국사연구 51, 2007.

최소자, “淸廷에서의 소현세자,” 전해종박사 회갑기념사학논총 (일조각, 1979).

허태구, “소현세자의 심양 억류와 인질 체험,” 한국사상사학회 40, 2012.

황정욱, “소현세자와 아담 샬,” 신학논단 69, 2012.

山口正之, “昭顯世子と湯若望–朝鮮基督教史研究其四,” 青丘學叢 6, 1931.

2 장

등소평을 통해 중국을 고민하다
_모택동 기념관

전선미

푸단대학교

들어가며

지난 2021 년 시진핑 주석은 '당의 100 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발표하였다. 역사결의란 중국공산당이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발표하는 문건을 말하는데 첫번째 역사결의인 1945 년 모택동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시작으로 1981 년에는 등소평의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이후 약 40 년만에 발표된 것이다. 사랑방 답사지인 모택동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왜 나는 등소평을 주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중국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과거의 교훈을 통해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등소평의 시련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의 초석

등소평의 삶은 근현대 중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그는 권력에서 두 번이나 밀려났지만 다시 현실 정치의 중앙무대로 복귀한 경험을 가진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모택동 주석 시기 류사오치와 함께 주자파로 낙인 찍혀 하방을 당하면서 첫번째 좌절을 맛보았다. 어렵사리 재등용 된지 3 년 뒤 1976 년, 그는 주은래 사망을 추모하기 행렬이 천안문 시위로 번진 여파로 또 다시 권력을 박탈당하면서 두번째 시련을 겪게 되었다. 모택동 주석의 서거 이후 문화대혁명의 상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복권 되었고, 이후 중국은 등소평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등소평이 어떻게 그의 꿈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켰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등용 된 배경과 이후 당내 권력이 재편되는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소평은 “정확한 모택동의 사상을 가지고 당과 군과 인민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통해 모택동과 당 원로들의 지지를 다시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당 중앙으로부터 복귀를 명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등소평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세운 인물로 모택동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고자 했던 화궈펑과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1970 년대 후반, 중국을 이끌었던 두 그룹간의 입장차이는 결국 개혁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간에 판단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사상해방을 통해 이룩한 역사결의

중국에 여러 세력이 있었지만 개혁개방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세력 은 양개범시론을 앞세운 화궈펑과 실사구시론을 앞세운 등소평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등소평은 화궈펑 진영 최고 국정 방침이자 이론으로 간주되었던 양개범시(두가지 무릇)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양개범시론은 문화혁명 시기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복권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궈펑에게 등소평의 복직은 여러 측면에서 화궈펑 체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권력 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런 화궈펑의 입장에서는 등소평과 그를 따르는 인물들의 복권을 저지할 수 있는 양개범시론은 여러 의미에서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등소평의 입장에서는 복권을 위해서는 화궈펑 체제의 최고 국정 방침인 양개범시가 폐기되어야 했는데, 화궈펑이 당정군의 최고 직위에 있는 상황에서 양개범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중국의 정체 체제를 감안한다면 당에 전면 반기를 드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국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는 더욱 치열한 정치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화궈펑의 범시파와 등소평의 실천파는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범시파는 옳은 것과 그른것을 가리지 않고 마오 사상과 그의 모든 말을 그대로 따라야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반면 실천파는 마오의 말 중에서

실천을 통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고, 옳은 것만을 마오 사상으로 따라야한다는 입장을 두고 대립하였다. 양측은 모택동 서거 1 주기에 맞춰 당 기관지에 관련 의견을 담은 글을 발표하고 또 반격을 거듭하는 펜끝의 싸움도 치열하게 벌였다. 양개범시냐 실사구시냐의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권력의 대립이며 큰 틀에서는 당의 노선과 연관된 진리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대립과 충돌을 통해 역사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거대한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사상해방'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1978 년 11 월과 12 월에 개최된 중앙공장회의에서, 또한 그 직후에 개최된 11 기 3 중전회에서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등소평의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 단결하여 앞을 보자」라는 연설과 토론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보를 통해 모택동 시대를 청산하고 개혁 개방의 새로운 노선을 선언함으로써 당시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진리 기준 논쟁은 사상해방과 사상노선의 시정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인정하면서 양개범시의 폐기를 공식화하였다. 만약 사상해방이 없었다면 양개범시라는 시정 방침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모택동 말기의 이론인 '계급투쟁 중심'과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계속 혁명'의 역할로 인해 당시 중국이 기존의 공산당 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선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연장 선상에서 역사결의까지 확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1981 년 6 월 27 일 열린

공산당 제 11 기 6 중전회에서 실질적 권력자였던 등소평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을 확고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 차 역사결의가 통과되었다. 총 8 장으로 구성된 이 문건을 통해 공산당의 과거 노선과 활동을 정리하고,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을 평가하는 동시에 문화대혁명의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이 직면한 현실 정치의 난제이자 역사적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산당은 여전히 모택동을 '위대한 영도자'로 평가함으로써 모택동 사상을 공산당의 지도 이념으로 유지시켰는데 이는 혹시 모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공산당의 단결과 통합을 한 단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조영남 2016, 403).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한계내에서 모택동의 정치적 유산을 청산하고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 집단의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그와 동시에 문화대혁명과 그 이전 좌경화의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건(1989 년과는 다른)의 관련자들, 전 국가주석 류샤오치는 물론 펑더화, 양산쿤 등 모두 복권시켰다. 권력 기반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세력을 모은 등소평은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계획경제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해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새로운 중국의 모습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실업문제, 인플레이션, 빈부 격차 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면서 이념적 측면에서의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중국 외부에서 내부로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은 독재로부터 벗어나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 역시 다당제를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역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일당 독재체제가 아닌 민주화를 추진하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1989 년 4 월 17 일 갑자기 후야오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것이 또다른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의 학생들은 후야오방의 죽음을 애도를 표하며 당 중앙에 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였다.

후야오방을 애도하는 추모 인파는 날로 늘었고 점차 시위의 물결로 변하였다. 한달이 넘어도 끝나지 않자 결국 지도부는 베이징시에 계엄령을 선포, 6 월 4 일에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천안문 사태를 동란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제때 수습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자오쯔양 총서기는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당시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끌던 세력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고, 등소평의 지지 아래 장쩌민과 리펑 등 보수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우리는 등소평이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접근하고 처리해 나가는지를 관찰해보면 등소평이 무조건적인 개혁개방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천안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대한 개입

그리고 자신의 측근이었던 자오쯔양을 실각시키고 보수파를 등용하는 일련의 처리 방식은 그가 그리는 중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이번 폭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지지했던 것이다. 비록 일부 동지들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나 결구에는 이해하고 중앙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사건이 발발한 직후 즉각 그 실체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기본적인 구호는 2 가지로서 첫째는 공산당을 타도하고 둘째는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서방국가에 완전히 예속화 된 부르주아공화국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그 핵심은 공산당타도와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에 있다...(인민일보 1989).

앞에서 보았듯이 등소평 시대의 개혁정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개혁개방을 둘러싼 강경파와의 견해 차이도 있었고, 개혁개방의 길 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영향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도 잘 관리해야 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만이 중국이 소련의 운명을 피하는 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허용적인 입장은 절대 아니었다. 적어도 그는 천안문 사건과 같은 국가와 당에 혼란을 야기하는 역사는 두 번 다시 반복되면 안된다는 매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즉, 사상해방을 통해 중국에 새로운 길을 마련하여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했지만, 개혁개방 노선은 당의 지도하에 견지하고 그 범위는 제 2 의 천안문 사태라는 역사적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책을 끌고 나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등소평의 돌파구 – 남순강화

1989 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동력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안으로는 개혁개방을 주장하였던 세력은 퇴진했고, 그 대신 등소평의 지지 아래 장쩌민과 리펑 등 보수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었었다. 밖으로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와해되면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베이징을 더욱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천윈 등 경제정책 신중론자들은 1989 년 천안문 사건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결국 경제정책에서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물론 정치 동란으로 사태를 진압하는데 일조한 등소평은 당시 최측근 이었던 자오쯔양을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그 대신 장쩌민과 천윈 등을 등극시켰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등소평은 통제가 아닌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만이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중앙의 입장과 분위기는 이러한 등소평의 의견에 회의적 시각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결국 등소평은 중앙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해방일보에

개혁개방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발표하였다. 그의 노력이 중앙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자, 황푸핑이라는 필명으로 4 편의 글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물론 등소평이 직접 쓴 글은 아니나 그의 발언과 생각을 상하이의 간부를 통해 정리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등소평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개혁개방의 의지를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중앙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오히려 계획을 중시하는 보수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등소평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등소평은 더욱 강력하게 개혁개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1991 년, 등소평은 이듬해 연말에 열릴 중국공산당 제 14 차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는 당을 향해 만약 장쩌민이 발전 가속화와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를 지지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영도자를 지지할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등소평은 관료들간 견제를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등소평은 주룽지를 중앙에서 부총리직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는 보수정책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리펑 총리에 대해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리펑 총리의 입장에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주룽지는 기존의 보수정책을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2 년을 맞이한 등소평은 1 월초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는 평당원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길이라는 표면상의 목적과 달리

사실은 중국과 지도부에 시장 개방 확대와 발전 가속화에 불을 붙이기 위함이었다.

베이징과 남쪽의 온도 차이

등소평은 중앙의 관례에 따라 자신의 남쪽지방 방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지않았고, 공식적인 보도 역시 내지 말라고 하였다. 비밀리에 움직였지만 사실상 그의 행보는 비밀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그의 속심 역시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선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홍콩 기자들이 그의 행보를 밀착 취재했다. 1 월 22 일, 등소평이 선전에 도착하고 사흘이 지난 후, 홍콩의 〈명보〉는 등소평이 선전을 방문했다는 소식과 함께 개방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보도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1 월 23 일에는 홍콩 텔레비전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홍콩은 물론 남쪽 지방의 호응은 대단했다.

반면 베이징 중앙에서는 등소평의 행보는 물론 남쪽에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는 곧 중앙의 입장이 등소평의 입장과는 다른 것임을 뜻했다. 그러나 등소평의 지지자, 특히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남쪽 지역 간부들은 그들의 발전 가속화를 허가해 줄 것을 원하며 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등소평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견을 전파하길 희망했다. 회고록을 통해 드러나는 당시 상황을 보면, 중앙에서는 등소평의 남순강화에 대한 어떠한 기사와 정보를 송출하지 않았다. 평당원 신분이었지만 혁명 원로인 등소평의 2 세대 핵심 정치인으로 그가 지닌 실질적 권력과 영향력은 막강했다. 게다가 당시 중국의 지도 체제는 원로정치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소평이 갖고 있는 권력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이 존재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주요 권력자들도 더 이상 모르쇠전략으로 일관할 수 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베이징)의 입장을 바꾸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등소평의 남쪽지방 시찰에 양상쿤이 동행한 사실도 주목해야하지만, 중앙의 입장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이벤트로 주하이에서 진행된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덩샤오핑의 남순 여행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책에는 주하이 회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공식 발행하는 덩샤오핑 연보에도 관련 기록이 빠져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하이에서 등소평은 형식적으로는 장쩌민의 영도하에 군사 계획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고, 그때 등소평은 “누구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우리들의 영도자는 마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쓸모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점이다. 앞서 우한에서 등소평이 같은 맥락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말의 무게가 더욱 무거웠고 회의가 진행된 면면을 살펴보면 장쩌민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회의는 정치국 상임위원 여섯 명 중의 한 사람인 차오스가 진행했다. 차오스는 국내치안을 맡고 있었는데 장쩌민의 잠재적 경쟁자로 최고 영도자의 소양을 지닌 사람이라 여겨지는 인물이었다. 또한 동 회의에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양상쿤과 또 다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류화칭 장군도 참석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 하고, 그 외에도 양상쿤의 남동생인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겸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양바이빙도 참석했다. 이 주요 간부들 모두 개혁 개방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등소평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에즈라 보걸 2014, 878). 측근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장쩌민은 자신이 대담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덩샤오핑이 자신을 해임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의 혁명원로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원로정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등소평은 원로 정치인은 물론 주요 영도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 월 중순, 덩샤오핑이 베이징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 장쩌민은 공개적으로 등소평의 개혁개방 확대에 대해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장쩌민의 입장 변화가 보수파 진영의 모든 인사들의 입장까지 이끌어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중앙의 주요 방송 매체들은 여전히 덩샤오핑의 남부 여행과 발언 내용을 선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장쩌민과 그의 동료들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국 승인을 거친 등소평 발언이 요약된 원고를 최고위층 간부에게 보냈다. 또한 등소평이 베이징으로

돌아오던 날, 중앙은 드디어 인민일보를 통해 남순강화와 관련된 보도를 내보냈다. 에서 진행한 발언(연설문)을 요약한 내용이 '더욱 담대하게 개혁을 진행하자'라는 제목의 사설로 대중에게 공개하였다(에즈라 보걸 2014, 881).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은 등소평 동지의 주요 발언 전달 및 학습에 관한 통지, 즉 중앙 2 호 문건을 하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3 월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양상쿤, 장쩌민 등 중앙의 주요 인물들이 등소평의 의견에 완전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 당의 11 기 3 중전회 이래의 노선·방침·정책을 견지하자. 이중 관건적인 것은 '하나의 중심과 두개의 기본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 개방하지 않으며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멸의 길만이 있다. 기본노선은 백 년간 계속되어야 하며 동요해서는 안 된다 (중앙 2 호 문건).

>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땅히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 국력을 증강시키는데 유리한가, 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한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특구는 사회주의이지 자본주의가 아니다…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 발전시키고 착취와 양극분화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공동부유에 도달하는 것이다…'좌'는 사회주의를 망치고 '우' 또한 사회주의를

망친다. 중국은 '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나 주로 '좌'를 방지하여야 한다(중앙 2 호 문건).

현재 주변국가와 지역들의 경제발전은 우리에 비해 빠르며,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거나 매우 느리게 발전한다면 인민들이 한 번만 비교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저속도의 경제발전은 정체와 같으며 심지어 후퇴와 같다.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이 아주 좋은 때이다…광동은 몇 개의 단계를 뛰어 넘어 20 년의 시간을 활용해야만 아시아 신흥공업국(네 마리 작은 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일본, 남조선, 동남아 등의 국가와 지역이 고도 성장 시기를 거쳤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조건은 구비되었고 국제환경도 우리에게 유리하며…경제 향상을 비롯하여 사회질서와 사회기풍 역시 잘 잡아 이 두가지 문명건설이 모두 네 마리의 작은용을 앞질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 할 수 있다 (중앙 2 호 문건).

이를 시작으로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은 엄청난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국은 등소평의 남순강화 발언 가운데 개혁 가속화와 개방 확대에 대한 관점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연말에 개최할 중국공산당 제 14 차 전국대표대회의 핵심 내용으로 삼는데 동의하였고, 결국 3 월 정치국 회의 이후, 덩샤오핑이 남순강화에서 한 발언의 요점이 정부 정책의 지도 방침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는 이후 14 차 당 대회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당의 지도 방침으로도 받아들여 졌다.

남순강화를 통해 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한중관계, 북중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등소평의 남순강화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남순강화에서의 주요 담화를 정리하여 발표한 중앙 2 호 문건에도 등소평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실질적 최고 지도자의 담화를 축약하여 다듬어 공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편집되지 않은 점과 한국전쟁 이후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이념과 정치·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내지는 적어도 중국의 대한반도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이 내부적으로 사상해방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두번째 역사결의(‘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면, 밖으로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살아있는 냉전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들이 이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사상해방을 맞이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의미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이념, 외교·안보적 측면에 작동되었다는 점, 특히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종속되어 전략적 고려에 의해 운용되었다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전통적 북중관계가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80 년대 이후 중국 스스로 국가 노선의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남한도 전략적 고려의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했던 한중 관계 발전의 과정 속에서 한중 양국은 공식적이기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경제분야에 국한된 제한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1990 년대 전후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변화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비공식적 수준으로 머물러 있던 한국과의 관계를 비경제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식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입장으로 정책변화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몇 가지 고민들, 예를 들어 중국이 남한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수교 관계로 전환할 경우 중국이 대만문제를 다루는데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고민들이 남과 북이 동시에 UN 에 가입하면서 논리적으로 해결되었다. 명분이 생긴 것이다. 중국의 대외 전략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소관계를 보더라도 더 이상 북한만이 레버리지로 작용되는 환경에서 벗어났으며, 무엇보다 한국이 대북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변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고, 남북관계의 화해분위기와 함께 중국이 말하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결국 1992 년 8 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론

사랑방 20 기의 베이징 답사를 통한 소회를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갑작스러운 현지 상황으로 우리는 모택동기념관을 방문하지 못했다. 가장 기대했던 답사지였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러나 나는 천안문 광장 밖에서 모택동 주석을 만났고, 어쩌면 이번 경험은 무엇보다도 진하게 중국을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나는 상하이 푸동에서 등소평의 흔적을 느끼며 답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만난 모택동과 등소평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중국의 작은 거인 등소평이 이룬 역사의 기적 앞에 내일의 중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여전히 품고 있다.

3 장

18 세기 문화교류의 복합체, 서양루의 건축사

_원명원

백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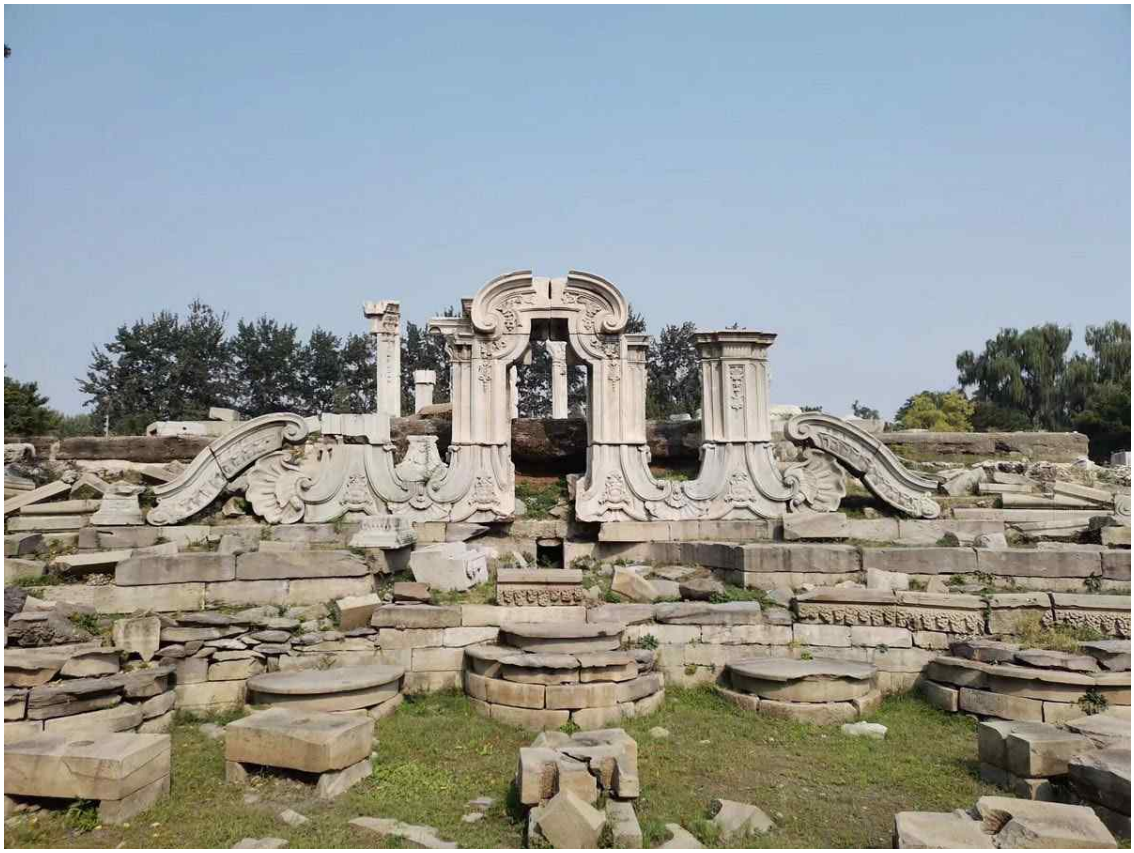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원명원이라는 공간은 원명, 장춘, 만춘의 3 원을 통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그리고 원명원의 장춘원, 동서쪽 끝 작은 공간에는 '서양루'라고 이름 붙여진 프랑스식 건물과 정원이 남아있다. 건륭제의 지시에 의해 서양루가 완성되기까지 원명원은 강희제부터 3 대에 걸쳐 건축과 확장의 역사를 거쳐왔다. 때문에 원명원에는 3 명의 황제와 수많은 중국인, 서양인 화가들과 건축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현실적으로 서양루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원명원이 영-프 연합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서양루는

남겨진 잔해 자체만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서양루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림 1 (출처 TripAdvisor)〉

기존의 학자들은 동서양 예술 집합체로써 가지는 의미, 국내 그리고 국제정치학적 의미, 청과 서양인들의 교류라는 역사적 의미, 예수회의 선교활동과 관련된 종교사적 관점에서 서양루에 깃든 여러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서양루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서양루에 대한 분석단위를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에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고자 한다. 첫번째 질문은 왜 건륭제가 원명원 내에 서양루를 건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두번째 질문은 왜 건륭제는 카스틸리오네에게 서양루의 설계를 맡기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청의 황제에게 원명원은 단순한 여름 별장의 개념을 넘어서는 공간적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양식 궁전을 청나라의 핵심적인 공간에 둔 것에 대한 의미와 수많은 건축가들을 두고 건축 전공이 아닌 회화 전공 말하자면 비전공자에게 맡기게 된 이유를 살펴보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양루의 건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미술, 종교, 철학, 정치와 사상이 복합적으로 엮인 실타래를 풀어가며 질문에 대한 대답에 도달해보고자 한다.

이은상의 '乾隆帝의 長春園 프로젝트에 관한 試論(2017)'에서는 장춘원 내 서양루가 건설된 문화적, 정치학적 이유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적 욕구에 의해 서양루를 건축했다는 기존 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가 서양루의 건축 이유로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Clifford 가 주장한 문화수집의 목적, 천하질서의 축소판 그리고 내부민족의 결속과 같은 정치적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co Musillo 의 'Reconciling Two Careers: The Jesuit Memoir of Giuseppe Castiglione Lay Brother and Qing Imperial Painter(2008)'에서는 서양 예수회 선교사로서 그리고 청의

궁정화가로 활동하였던 카스틸리오네의 삶을 소개하며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Victoria Siu 의 'Castiglione and the Yuanming Yuan Collections(1988)'에서는 카스틸리오네가 청의 궁정에서 받았을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그가 건륭제의 총애를 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들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화가로서의 재능을 강조하며, 서양루의 건축에 있어 그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다. Robert Weil 의 'Yuanmingyuan Revisited: The Confrontation of China and the West'(2013)에서는 18~19 세기 중국의 국제정치적 상황의 전반과 그 속에서 원명원과 서양루 건축에 대해 접근하며 원명원과 서양루의 건축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Hui Zou 의 저서 'A Jesuit Garden in Beijing and Early Modern Chinese Culture(2011)'은 원명원이 가지고 있는 종교철학적 의미를 시작으로, 강희제-옹정제-건륭제로 이어지는 원명원의 건축-확장의 역사를 다루며 원명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청나라에 소개한 서양식 화법이 중국식 회화의 철학과 만나게 되면서 발생한 문화적 만남을 시작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미술계와 청의 사회, 청의 황실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세 황제의 개인 시와 공식 기록, 예수회 선교사들의 편지들과 그림, 문서 등의 1 차자료를 기반으로 서양루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인 시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인의 '서양 예수회 선교사가 청나라 궁정화가가 된 과정에 관한 선교학적 고찰_ 주세페 카스틸리오네를 중심으로(2016)'에서는 카스틸리오네의 활동을 예수회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본 논문이다. 특히 선교의 목적을 띄고 청에 왔던 선교사들이 청의 궁정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종교학적 관점에서 잘 해석하고 있다. 카스틸리오네의 궁정화가 시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예수회 선교사로서의 그의 삶 또한 고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서양루에 대한 가진 예술적, 정치적 가치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의 개인적, 역사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기반으로 서양루가 원명원 속에 지어질 수 있었던 설명을 보완하고자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라는 두 인물의 만남을 중점으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각 인물을 감싸고 있는 맥락을 즉 청황제로서의 혹은 필부로서의 건륭제와 청의 궁정화가 혹은 예수회 선교사로서의 카스틸리오네의 만남에 집중하여 앞서 던진 질문에 답하고자한다.

건륭제에게도 원명원 내에 서양루를 건축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스스로를 납득시킬만한 이유가 존재했을 것이다. 다른 공간도 아니라 원명원이었어야 했으며 그리고 그 곳에 왜 서양식 궁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원명원에 대한 건륭제 그리고 역대 중국 황제가 가졌던 개인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황제에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국가의 상징인 궁전에 서양식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퍼즐이 생긴다. 카스틸리오네가 청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예수회 선교회와 무역상인들은 청과 서양을 이어주고 있었다. 종교와 무역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18 세기와 19 세기 기독교를 앞세운 제국주의 세력의 신대륙 및 아시아 대륙 식민화를 연상케 한다. 예수회 선교회 역시 제국주의적 침탈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동시에 인류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한 선교의 역할을 역시 수행하였다(Lawrence 2008). 특히 무작정 현지의 신앙을 탄압하기보다 현지인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급진적인 접근 대신 청 황제의 관료로서 중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언어와 사상을 배웠다. 또한 서양의 과학과 문화, 문물들을 소개하며 서서히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중국 사회의 관념 속에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해 나갔다. 원명원 건축과 서양루 건설에 있어 예수회 선교회의 동화를 위한 노력은 나아가 중국 사회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서서히 확보해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번째 질문에 대한 가설로 원명원 내의 서양루 건축은 건륭제의 개인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개인적, 제국적 성과와 권위,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강희제부터 청 황실에서 화가와 건축가, 기술자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져온 '규범의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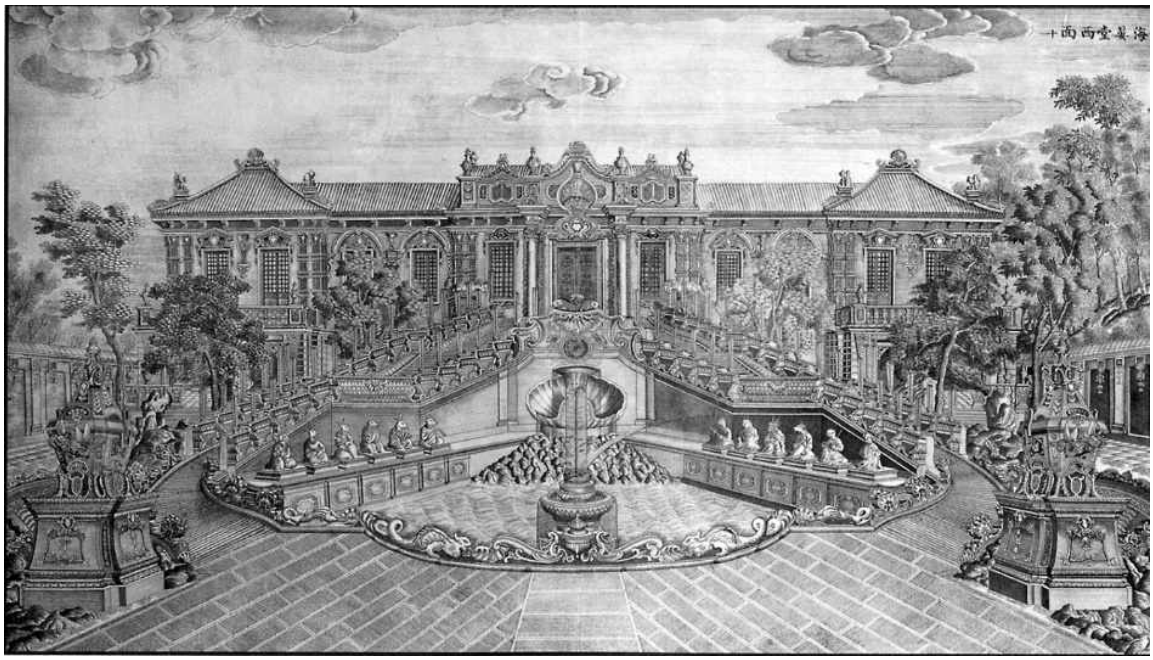
원명원 내의 서양루 건축에 기여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중국에 온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화가부터 과학자, 건축가까지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주세페 카스틸리오네는 그 가운데 뛰어난 화가였으나 분명한 것은 건축가는 결코 아니었다. 예수회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미 원명원 건축에 참가한 베테랑 건축가가 있었지만, 건륭제는 카스틸레오네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 이면에는 두 인물의 예술적, 인적 교류가 바탕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 건륭제는 카스틸리오네가 자신이 열망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건륭제가 서양루를 건축하게 된 이유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륭제에게 원명원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였으며 그 가운데 서양루가 건축된 것은 어떤 의도에서 기획되었으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서양루 건축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예수회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이 중국사회에 가져온 규범의 변화가 서양루 건축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3 장에서는 서양루의 건축을 왜 카스틸리오네에게 맡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의 궁정화가로서, 예수회 선교사로서, 건륭제의 신임을 얻는 한 인물로서의 카스틸리오네를 살펴볼 것이다.

2. 서양루의 건축에 대한 건륭제의 심상과 예수회 선교회의 역할

누군가에게나 가족들과 함께한 공간들은 소중한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이 된다. 건륭제가 황제가 아니었던 시기 원명원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강희제와 옹정제와 보내었다. 때문에 필부로서의 건륭제에게 원명원은 답답한 궁을 벗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름별장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개인적 취향을 마음껏 즐기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특히 건륭제에 와서 원명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궁정화가들에게 원명원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40 개를 뽑아 그림을 그려올 것을 명하였을 정도로 원명원의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적 관심과 취향의 실현 공간으로서 원명원 내 서양루의 건축을 바라본다면 서양식의 분수에 대한 건륭제의 지대한 관심이 서양루 건축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아티레(Jean-Denis Attiret)가 프랑스 예수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건륭제는 베노에 신부가 완성한 유럽의 분수에 고무된 건륭제가 유럽식 서양루의 건설을 지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해당 주장 또한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서양루 내에서 가장 정교하게 지어진 건물이 분수대였으며(Victoria Siu. 1988), 서양루 내 대나무 숲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분수대를 가린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구역에 설치되는 등(Hui Zou) 건륭제가 서양식 분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진기한 산물들을 수집하여 원명원에 전시한 것 역시 개인적인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원명원과 서양루 건축을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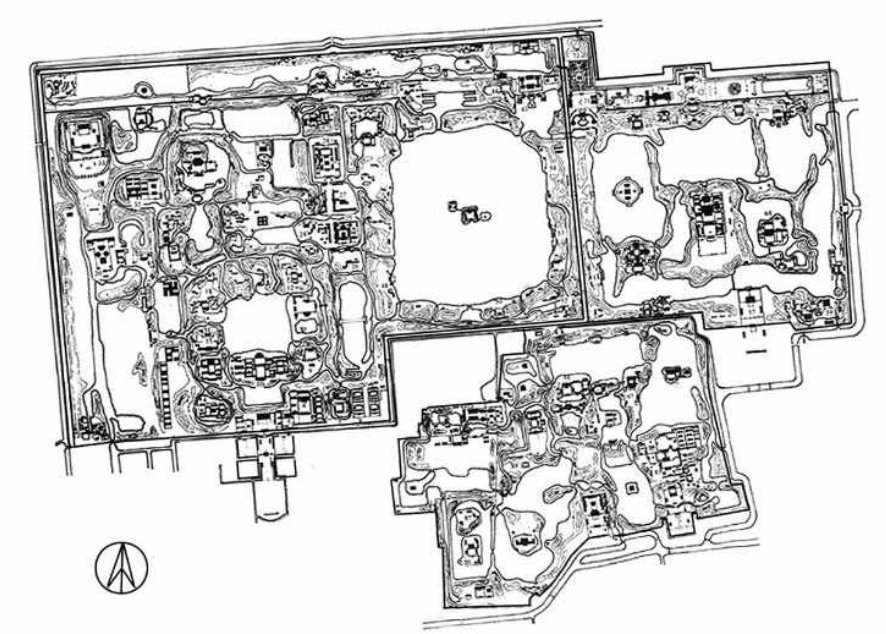
〈그림 2 (출처: MIT Visualizing Cultures)〉

하지만 아시아 최대 제국의 황제로서 한 공간 그것도 황제가 머무는 궁전이었던 원명원은 필부의 공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명원의 공간은 또 다른 공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원명원은 건륭제의 할아버지이자 옹정제의 아버지인 강희제 때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옹정제 그리고 건륭제까지 건축과 확장이 지속되었다. 원명원의 원명(圓明)은 '원만하니 입신이요 밝으니 널리 비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강희제가 곧 황제에 오를 자신의 아들 옹정제에게 하사한 별장인 만큼 '원명'에 담긴 의미는

황제가 될 자신에 아들에게 제왕의 자질을 갖출 것을 격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옹정제 역시 원명원이라는 공간에 도덕적 의미를 연계시킴으로써 모범적 국가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건륭제는 원명원이라는 공간을 확장하고 더욱 화려하게 만듦으로써 그 권위가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제국의 황제가 사용하는 개인공간이라는 복합적인 공간의 의미로서 원명원은 황제의 권위와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 왜 서양식 건축물을 설치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을 넘어 정치적 맥락에서 답해볼 필요가 있다.

원명원은 천하질서, 중화제국의 중심인 건륭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었던 만큼 원명원을 자신이 다스리던 제국의 축소판이자 넓게는 천하의 축소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것이다(이은상 2017). 즉 황제의 공간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중화제국 즉 천하를 담은 공간이었으며 서양의 건물 그것도 프랑스식 궁전 양식을 원명원 안에 건축한 것은 천하질서 속에 서양을 포함시키겠다는 정치학적 의도를 가진다(이다은. 2017). Clifford(1988)의 ‘문화수집’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진시황제가 자신이 정복한 제후국들의 궁전을 자신의 궁에 복제해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상징물을 ‘수집’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원명원 속에 서양루를 건축함으로써

서양 또한 천하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매카트니의 청 황제 알현 등의 사건이나 기존에 원명원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장 또한 충분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 (출처: 위키피디아)〉

따라서 원명원은 단순히 청 황실의 유흥만을 위해 지어진 정원이나 별장이 아니라 청의 정치적 이상과 정통성을 표현하면서 제국의 영역이 모든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서양식 문물에 대한 건륭제의 관심과 호기심이 정치적 의도와 합쳐지면서 원명원 내 서양루 건축을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퍼즐이 남게 된다. 단순히 서양식 문물에 익숙하다는 것만으로는 궁이라는 상징성이 강한 공간에 서양식 궁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아무런 맥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원명원 내부에 '서양루'라는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었고, 청의 황실과 수많은 교류를 지속해왔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져온 규범의 변화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희제 시기부터 이미 예수회 선교사들은 청의 궁정에서 황제에게 서양의 문화와 기술들을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포용적 자세는 청 황제와 사회가 예수회 선교사들을 자신들의 규범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더욱 가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가톨릭의 선교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수회 선교회가 중국 사회에 접근하였던 방식은 나름의 문화적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기독교가 아닌 유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풍경'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중국의 철학과 관습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였을 만큼,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태도들이 청의 황실과 사회에 더욱 빨리 스며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고, 강희제 때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중국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러한 교감을 바탕으로 북경 내에 도서관과 정원이 있는 교회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회 교회 건립을 허용하였던 강희제는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 하였을 만큼 청과 예수회 간의 교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Hui Zou 2011). 강희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시도 남겼는데, 강희제 집권 당시 천주교에 대한 중국 황실의 태도를 볼 수 있다.

功成十架血成溪，百丈恩流分自西。
身列四衙半夜路，徒方三背两番鸣。
五千鞭挞寸肤裂，六尺悬垂二盗齐。
惨动八垓惊九品，七言一毕万灵啼。

(해석)
십자가의 피가 물결이 되어 흐를 때 사명이 완수되었도다.
서쪽으로부터 은혜가 수백겹 굽이쳐 흐른다.
그 몸이 하룻밤에 네번 심문받으실 때
한 제자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등을 돌렸구나
오천 채찍이 그의 살을 찢으니
육척의 그가 두 도적과 함께 매달렸도다
팔방이 침통해하고 구품관리(황제)를 흔드는구나
칠언 후에 끝이 나닌 수백만 혼이 울음을 운다.

비록 옹정제 때부터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마카오로 추방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일부 예수회 선교사들은 청황실에 남아 과학기술과 서양식 문화예술, 통번역 등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들만의 선교를 이어 나갔다. 비록 종교 및 정치적 관점에서 청황실이 천주교의 포교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나 현지문화에 대한 존중과 친화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청의 황실과 가져왔던 관계는 카스틸리오네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청의 문화와 규범에 서양의 문화를 천천히 스며들 수 있게

하였던 계기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와 이해 속에서 청은 '중국적 가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낼 것만 같았던 '원명원' 속에 서양루라는 이방의 가치를 허용할 만큼 규범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공간이자 제국의 공간이었고 문화적, 정치적 공간이었던 원명원 내의 서양루 건축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건륭제 개인의 호기심이었던 것과 동시에 제국의 영역과 인식을 확장하고 다민족국가인 청이 비교적 익숙하지 않았던 문명인 서양에 대한 제국의 입장을 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 있어 예수회 선교회는 문화와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 안으로 스며들어가 이방의 가치에 대한 중국의 관점에 변화를 가져왔기에 문화적 전파의 성과로 서양루 건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륭제와 주세페 카스틸리오네의 예술적 교류

두번째 대질문은 왜 건륭제는 카스틸리오네에게 서양루의 설계를 맡기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ui Zou 의 저서에서도 제기하고 있듯, 서양루의 건축과 관련된 설계도 작성을 궁정에 소속된

예수회 건축가가 아닌 화가 카스틸리오네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부분 중 하나이다. 청의 황실에는 여러 황제를 모셨던 예수회 소속 건축가 Model Lei 는 다른 원명원 건축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건륭제는 이런 전문적인 건축가가 아니라 1756 년의 카스틸리오네, 냥세녕에게 서양루의 계획을 스케치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건륭제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희제부터 이어져왔던 예수회 선교사들과의 예술적 교류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며, 그 속에서 카스틸리오네가 어떤 독특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건륭제의 서양루 건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선 기법(line method)'라고 생각한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당시 유럽에서는 유행이었지만 중국에는 없었던 '선 기법(line method)'을 이용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특히 선기법과 함께 원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수회 선교사들이 그린 그림은 기존 중국의 그림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함과 현실감을 선보였다. 카스틸리오네 역시 중국으로 파견되기 전 제노바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었고, 예수회 화가 Pozzo 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을 보인다. 예수회는 원근법의 사용과 선의 기법을 그에게 가르쳤으며, 이후 중국에 파견된 카스틸리오네는 이런 원근법과 선개념을 중국에 전파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카스틸리오네는 강희제를 시작으로 건륭제까지 3 명의 황제를 모셨으며, 용정제에게 처음 황제에게 올린 그림을 시작으로 그의 화려하면서도 중국적 관습을 섬세하게 반영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그림에 대해 18 세기 중국 학자는 '그림이 사람을 깊이

끌어당겨, 그 마음이 그림 속안에서 방황하는 느낌이 난다'고 표현하였고 다른 학자는 그가 특히 꽃과 말 등의 그림에 능하다고 평하고 있다. 정리한다면, 카스틸리오네는 원근법과 선기법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Hui Zou 2011).



〈그림 4 (출처: arthistoryproject)〉

다만 카스틸리오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일하였던 청의 궁정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관습들이 많았으며, 카스틸리오네는 이 제한 속에서 황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초상화 속 그림자와 풍경에 대한 중국의 관습과 관련한 문제이다. 중국은 초상화나 그림에 그려진 얼굴에 그림자가 있으면, 불길한 것으로 보는

관습이 있었다. 때문에 얼굴에 그림자가 져있지 않는 그림을 그렸어야 했고, 이는 단순히 그림자를 빼고 그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인물들의 각도를 고려하여 자연적으로 그림자가 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초상화를 그리더라도 뒤의 '풍경'에 대한 중국적 관습과 가치를 이해해야 했다. 즉 단순히 서양의 기법을 활용하여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의 그림 속에 나타내야 하는 철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출처: Arthistoryproject)〉

청의 승리를 서양식 기법으로 그리라는 명을 받고 여러 명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작업을 하였을 때, 카스틸리오네는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더욱 섬세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 그의 그림은 중국인들의 감상을 섬세하게 고려했으며(중국측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그려지지 않는 등), 같은 표정으로 통일시켰던 동료의 그림과 달리 모든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건륭제가 그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의 그림을 받았을 때,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부인들의 그림을 그리라고 명하였던 것은 그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양루의 설계도에 대한 건륭제의 명령은 단순히 그림에 대한 그의 재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륭제는 여러 작품의 판화 등을 통해서 유럽의 정원과 궁전을 간접적으로 보아왔다. 특히나 프랑스 궁전의 정원 등 예수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그림을 마음 속에 상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륭제는 서양루가 건축되기 전 자신이 원하는 서양루의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였고, 그 그림을 카스틸리오네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카스틸리오네가 튀어나온 이유는 그가 사용했던 '선 기법'이 '판화'를 그리는데 적합하다는 점이다. 강희제 때부터 쌓여왔던 유럽 궁전에 대한 다양한 판화는 주로 '선 기법'을 통해서 제작된 그림들이었고, 당시 건륭제의 화가들 중에서 카스틸리오네가 가능 유능한 '선 기법' 화가 중 하나였다는 점은 중요한 지점이다.

카스틸리오네 역시 제노바에서 배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Pozzo'의 기하학은 현실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건축가가 원근법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카스틸리오네는 밀라노에서 시작해 제노바를 거쳐 청나라까지 오게 되면서 익혀왔던 능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건륭제의 복합적인 의도, 심상을 뚫어볼 수 있었고 건륭제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스틸리오네에게 설계를 맡겼을 것이라는 추측 가능하다. 그리고 카스틸리오네가 스케치를 마치고 건륭제에게 서양식 정원의 계획을 올리는 그날, 황제는 그 그림을 바탕으로 서양루를 건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가며: 원명원과 서양루를 돌아보며

본 연구는 서양루에 건축을 건륭제의 관점에서 그리고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개인으로서 서양루는 건륭제의 미적, 문화적 호기심을 황제로서, 국가로서 서양루는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중화질서의 범위를 넓히는 관념적 행위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의 선교에 대한 접근방식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자신들을 융화하며 일방적인 전파의 개념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의 규범을 수정하게끔

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가 생겼다. 그리고 그러한 전파의 큰 성과 중 하나로 서양루는 그 상징성을 가진다.

카스틸리오네에게는 3 가지의 삶이 존재하였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궁정화가로서의 삶이 있었고 그 두 삶이 섞이면서 건륭제 총애와 신뢰를 얻는 건륭제의 카스틸리오네로서의 삶이었다. 예수회의 선교사로서 그는 중국의 화법과 회화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궁중화가로서 중국인 화가가 그리지 못하는 서양식 기법을 선보임으로써 자신의 미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두 장점이 합쳐서 중국의 사회문화와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하면서 색다른 화법을 통해 건륭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건축가가 아님에도 예수회에게도 그리고 건륭제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서양루의 건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예수회의 선교사이자 서양루의 건축에 참가하였던 인물 중 하나이자, 서양루의 분수에 대한 건륭제의 각별한 사랑에 대해 보고하였던 Jean-Denis Attiret 는 원명원을 이해하는 방법은 오직 직접 보는 것밖에 없다고 하였다. 현재 원명원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불타 사라지고 폐허와 잔해만 남은 공간이 되었다. 원명원에 대한 복원의지는 항상 존재해왔고 원명원을 복원하는 노력들은 상당부분 진행되어 다른 도시들에 원명원의 과거 모습을 재현한 공원들이 건축되고 있다. 하지만 300 년전 3 명의 황제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제국에게 선물하였던 건축에 담긴 역사마저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가 서양루를

건축하는 과정까지 느꼈을 감정과 고민들 그리고 그들의 심상을 따라가보면, 폐허의 공간 서양루가 아니라 18 세기 문명 간의 만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공간으로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인(2016). 「서양 예수회 선교사가 청나라 궁정화가가 된 과정에 관한 선교학적 고찰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one)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2). P.29-55

이은상(2017). 「乾隆帝의 長春園 프로젝트에 관한 試論」. 『東洋學』 68(-). 29-43 쪽.

Clifford, James, The Predicament of Culture:Twentieth-Century Ethnography, Literature, and Art,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Hui Zou(2011). A Jesuit Garden in Beijing and Early Modern Chinese Culture

Hui Zou(2012). The Idea of Labyrinth(Migong) in Chinese Building Tradition.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Volume 46, Number 4, Winter 2012, pp. 80-95 (Article)

Marco Musillo. (2006). Bridging Europe and China: The Professional Life of Giuseppe Castiglione (1688-1766). University of East Anglia, Ph.D.

Marco Musillo.(2008) Reconciling Two Careers: The Jesuit Memoir of Giuseppe Castiglione Lay Brother and Qing Imperial Painter. Eighteenth-Century Studies , Fall, 2008, Vol. 42, No. 1 (Fall, 2008), pp. 45-59

Victoria Siu. (1988). Castiglione and the Yuanrning Yuan collections. Orientations, 19(11), 72-79.

Robert Weil (2013). Yuanmingyuan Revisited: The Confrontation of China and the West, Socialism and Democracy, 27:1, 95-135

Loehr,G.R. (1972). “European Artists at the Chinese Court.” The Westward Influence of the Chinese Arts from the 14th to the 18th Century. Art & Archeology in Asia (3). London: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Londres. 33-42

Lillian M.Li(2012)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The Yuanmingyuan as Imperial Paradise(1700-1860) MIT. 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garden_perfect_brightness/ymy1_essay01.html(검색일 : 06.05)

4 장

카타이가 구라파를 만났을 때: 곤여만국전도, 그리고 마테오 리치와 이수광의 세계관

_마테오리치 묘지, 고관상대

박시현

연세대학교

머리말





〈20기 고관상대 방문 사진>

답사의 마지막 날, 고관상대의 망루에 올라가 예수회 선교사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가 강희제의 명으로 보강한 6 개의 기구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개무량했다. 장엄하면서도 정교한 이

기구들은 17 세기 동서문명교류의 산물인데, 해당 기구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이야기들, 16 세기 말 17 세기 초의 문명교류 이야기를 마테오 리치와 이수광, 그리고 곤여만국전도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한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이들의 공간개념이 될 것이다.

"It's a little strange, but it's not a big deal. The Oscars are not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y're very local"(Jung 2019). 봉준호 감독이 2019 년, 벌쳐 인터뷰에서 한국영화가 30 년간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오스카 후보에는 오른 적 없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이상하긴 해도 별 일은 아니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축제가 아닌 매우 지역적인 축제다”라 한 말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다. 16 세기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들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시각도구였다. 헌팅턴의 냉전 종전 후 세계의 분쟁은 ‘문명이 충돌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1993 년 제시된 이후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문명이 충돌하기도 하지만, 그 충돌 내에서 융화가 발생함을 여러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문명의 전용과 수용은 시대별로, 환경별로 다른 형태로 발현이 되었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긴박했던 순간으로 19 세기 중국의 천하질서와 서양의 만국공법 질서가 충돌하던 때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 세기 함포외교, 아편전쟁, 그리고 이중굴절의 모습으로 서세동점이 발현된 때, 천하질서관을 담지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번역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호기심을 넘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양의 만국공법적 질서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기 위한 창작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시기가 오기 전에 역으로 '서양'이 '동양'을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를 자신들이 설득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과정이 존재했다—바로 16 세기 예수회의 선교이다.

예수회 동방전교 총책임자인 프란치크소 사베리오 (Franciscus Xaverius)는 20 만명을 전도하는데 성공한 일본선교에 이어 강력하게 중국전교를 추진하던 중 병환으로 사망했고, 이를 이은 Alessandro Valignano 는 그 유지를 이어 중국의 언어, 관습과 세계관을 철저하게 습득한 탁월한 인재를 통해 폐쇄된 중화제국을 복음화시키려는 계획을 수행해나갔다. 이때 마테오 리치와 미케일 루지에리는 인도 고아로부터 마카오로 부름을 받아 3 년여에 걸쳐 중국어와 한문을 배워 중국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선교는 설득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작업인데, 이들이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언어도, 문화도, 세계관도 다른 민족이었다. 애초에, 'Europa'를 음차해 만든 한자어인 구라파(歐羅巴) 자체도 1595 년 무렵 마테오 리치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스케히로 2002).



〈마테오 리치, 아담 샬,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의 그림과 '마테오 리치 묘'에 안장된 이들 (왼쪽부터 아담 샬, 마테오 리치,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





〈이수광, 이수광의 아버지 이희검과 아들 이성구, 손자 3대의 부부가 묻힌 경기도기념물 제49호 '이수광선생묘' 및 신도비〉

마테오 리치는 전교를 위해 종교, 천문, 지리, 수학 등에 대한 저술 약 20여권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전술했다. 송영배(2013)는 동서문명교류의 관점에서 리치의 가장 큰 업적으로 유클리드의 《기하원본》 번역소개와 〈곤여만국전도〉의 제작을 손꼽는다. 특히 〈곤여만국전도〉는 중국의 천원지방(天圓地方)적 우주관과 중국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리치가 예수회 본부에 보고한 다음과 같은 글은 세계지도에 관한 그의 생각을 잘 전해준다:

> "세계지도는 당시 중국이 우리의 신성한 믿음의 모든 것에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가 넓고 중국은 그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지한 사람은 지도를 비웃었고, 현명한 사람은 경위선 눈금의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서, 우리의 땅이 그들 왕조로부터 매우 떨어져있으며 그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놓여 있다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러 왔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양보경 2013, 127).

이렇게 만들어진 〈곤여만국전도〉는 간행된 다음해(1603) 조선에 도입되었다.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1603년 북경에 다녀온 사진 이광정과 권희가 ‘구라파국여지도’를 본관으로 보내옴을 기술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통상적으로 “서양학술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알려진 것과 조금 달라 보인다:

> 萬曆 癸卯年에 내가 부제학의 자리에 있을 때, 중국 서울에 갔다가 돌아온 使臣 李光庭·權愔가 歐羅巴國의 輿地圖 一件 六幅을 本館에 보내왔다. 아마 京師에서 求得한 것일 것이다. 그 지도를 보니 매우 精巧하게 되어 있었다. 西域에 대하여 특히 상세하였으며, 중국의 지방과, 우리나라의 팔도와, 일본의 六十州의 地理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곳, 크고 작은 것을 모두 기재하여 빠뜨린 것이 없었다. 이른바 구라파국은 서역에서 가장 동떨어지게 먼 곳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8 만 리나 되었다. 옛날부터 중국과 통하지 않다가, 明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두 번 入貢하였다.
>
> 지도는 바로 그 나라의 使臣인 馮寶寶가 만든 것으로서, 그 末端에 서문을 지어 기록하였는데, 그 文字의 바르고 숙련됨이 우리나라의 문자와 다름이 없었다. 비로소 글과 문자가 같은 것을 믿었으며,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었다. 생각하여 보건대, 그 나라 사람인 利瑪竇·李應誠이란 자도 또한 모두 『山海輿地全圖』와, 王泝의 『三才圖會』 등의 서적을 가지고 있어서 자못 그 설을 채용하고 있다.

> 구라파의 땅의 경계는 남쪽은 地中海에 이르고, 북은 氷海에 이르며, 동쪽은 大乃河에 이르고, 서쪽은 大西洋에 이른다. 지중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天地의 한가운데라고 하여 그렇게 이름붙인 것이라고 한다(이수광, 1614).

그는 곤여만국전도를 구라파국여지도로 부르고, '경위선 눈금의 아름다운 질서'가 아닌, 구라파 자체의 지식에 관심을 보인다. 곤여만국전도를 馮寶寶라는 그 나라의 대신이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한문으로 쓰여진 곤여만국전도 서문을 보고 구라파국 역시 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王泝(왕반)의 의뢰로 마테오 리치가 중국어 주석이 달린 세계지도를 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마테오리치의 저작물인 〈山海輿地全圖〉와, 그것이 소개된 〈삼재도회〉를 거꾸로 마테오리치 역시 채용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부분도 보인다. 더 나아가, 구라파국이 "명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다시 입공(入貢)"한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수광 역시 연행을 세 번 다녀오고, 안남, 류큐, 섬라(태국, Siam)의 사신들과 교류가 있었고, 그의 시는 1596 년 베트남 사신 풍 칵 코안(Phung Khac Khoan, 馮克寬)과 북경 사신 숙소에서 교류 후 안남에서 크게 유행했다는 점이다(한영우 2006). 또한, 〈지봉유설〉에 '외국'편이 따로 존재하며, 여기에 베트남, 라오스, 류큐, 태국, 말라카, 사마르칸트, 호르무즈,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도 서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대 조선에서 결코 그의 해외지식을

해박하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질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동서양의 만남 속에서, 여기에 소개된 마테오 리치와 이수광의 세계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된 마테오 리치와 이수광의 이러한 문명의 만남 속에서의 인식변화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둘은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으나, 사는 시대는 일정하게 공유했다. 여기서 김선희(2012)의 지적대로, 당대 지식인들의 다른 문명의 사상 수용은 긍정-수용, 부정-배척의 이분법이 아닌, 당대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사상의 어떤 점에 주목했으며, 그리고 이론적 토론의 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464). 마테오 리치의 경우에는 생애와 곤여만국전도의 판본 및 발문을 바탕으로, 이수광의 경우에는 곤여만국전도가 이수광의 지리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후, 그의 생애와 해당 논쟁에서 드러난 그의 지리인식을 서술할 것이다. 오상학(2015)은 전근대 사회에서 지도는 과학적 지도 제작법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한다(23-25). 전근대 지리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과학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 즉 세계관, 국가 통치의 필요 등 지리학을 둘러싼 사상적, 정치적 환경이 지리학적 표상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잠재적인 결론은,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는 단순한 서양 문물의 동양 전래가 아닌, 동서양의 자료가 아우러져 만들어진 지도였으며, 이수광의 곤여만국전도에 대한 영향은 서학 수용/배척의

문제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당대의 국제정치적 시대상황, 중화사상의 화이관, 천원지방관과 곤여만국전도의 오대륙 및 원형의 하늘 아래 원형의 땅이라는 인식차에서의 척도, 그리고 이수관 개인의 경험과 성향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동-서양의 만남이 아닌, 시대의 사고다발적인 영향과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이 견지했던 세계관, 그리고 같은 세계와 시대를 살면서도 가졌던 차이에 더 큰 의의가 있다.

해당 답사보고서는 세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마테오 리치'와 '이수광'이라는 16 세기의 인물들을 논의의 같은 장에 놓고, 비교하려는 최초의 시도와 둘째, 이수광을 외교관이자 서양을 문물로 새로이 접한 사람으로서, 마테오 리치를 새로운 문명의 전용을 통한 전파를 시도한 인물이면서 삶으로 동양을 새로이 만난 사람이라는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 셋째는 이 논의를 확장시켰을 때의 연장선상에서, 답사지와의 연계점이다. 마테오 리치 이후 파견된 두명의 선교사, 아담 샬과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는 마테오 리치가 본국에 차후 보내달라 요청했던 "천문학자"들이었고, 특히 강희제가 천문관의 직위를 주어 관상대를 만들도록 한 "극서쪽의 남회인"이 바로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1623~1688)이었다(스케히로 2002).

이수광

이수광의 생애

이수광은 임진왜란(1589), 광해군 즉위(1608), 후금의 건국(1616), 인조반정(1622), 정유호란(1627)을 모두 겪은 인물이다. 이수광은 총 세차례 연행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1590 년 사간원 호병이조좌랑겸지제교 성절사 서장관으로 다녀온 것이고 두 번째(1597.08~1598.01)은 연경에 머물며 안남의 사신과 만났다(이은직 2005). 이때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을 지었다. 1611 년에는 세자 관복을 추정하는 일로 연경에 갔다. 동지사의 부사가 되어 3 차 사행(1611.08~1612.05)을 다녀와 류큐, 시암의 사신들과의 문답 및 교류를 바탕으로 〈유구사신증답록〉 을 지었다. 그가 처음으로 명나라로 연행을 다녀온 것은 1590 년, 명나라 신종황제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발탁되어 6 개월간 북경에 다녀오게 되었다. 해당 연행 후 보고서에 안남 사신을 본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이 선조의 흥미를 끌어 안남 사신의 의복과 제도, 풍속 등을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답을 못한 것이 이수광에게는 한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30 년(1597.08~1598.01) 때는 마침 베트남 사신 풍극관(풍 칵 코안, 馮克寬)과 같은 숙소인 옥하관에 머물면서 자세한 필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김문식 2004). 이때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을 지었으며, 여기에서 이수광은 풍극관의 용모와 특징, 풍극관과의 필담에서 얻은 안남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 있고, 이는 차후 지봉유설의 외국부에 안남 서술에도 포함이 된다. 독특한 점은 〈만수경하집〉의 서문을 지어달라 이수광에게 요청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백선향과 지향을 선물로 주었고, 이수광도 조선의

필묵을 답례로 주었다. 풍극관이 이수광의 시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여 안남에 귀국해 이를 퍼뜨렸고, 차후 정유재란때 왜군에 포로로 잡혀가 한문실력으로 일본 상인에게 채용되어 안남을 다니던 조완벽이라는 진주지방의 선비가 안남의 연회에서 지봉선생의 시를 보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산은 기물을 내니 상골이 넉넉하고 / 山出異形饒象骨 땅은 영기를 뿜으니 용향이 생산되도다 / 地蒸靈氣產龍香”라는 문장을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나오는 산이 있으니 그러한 이유로 이 구절을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되며, 전후 포로교환으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김윤안이라는 사람이 이를 듣고 이수광에게 전해주었고, 이수광은 이 일이 신기해 〈조완벽전〉이라는 글로 남겼다. 해당 일은 조정에서도 신기해하여 실록에 기록으로 남겨졌다(이수광 1634). 이때 조선은 정유재란 중이었고, 왜군이 남해안 지역으로 철수하고 전쟁이 일시 휴전에 들어갔을 무렵에 이수광이 파견되었는데, 주된 임무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해진 조선의 실정을 명나라에 이해시키는 것이었다(이은직 2005). 조선정부는 아직 왜란의 휴유증을 치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했던 명의 세력은 약화되었으며, 만주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세력을 결집하고 있었다. 3 차 사행에서는 세자책봉문제로 연행에 파견된 후 유구의 사신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유구사신증답록〉을 작성했다. 1614 년 출간된 지봉유설(20 권)은 천문, 역학, 지리, 역사, 제도 ,풍속, 종교, 문학, 예술 등 25 부문에 걸친 자신의 견문과 견해를 3,425 조항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수광의 국제정치인식은 이러한 서술과 함께 드러나는데, 정치적으로는

특히 제국부 부분에서 북쪽의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해 조선으로 밀려옴을 감지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침략에 치를 떨면서도, 수차와 같은 제도들은 배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한영우 2006). 다만, 자아인식과 타자인식의 부분에서, 자아인식을 중화문명의 진정한 담지자로 여겨 높이 사고, 타자를, 예를 들어 섬라국과 류큐국의 사신을 평가할 때 의복이나 관례로 평가하는 모습 등이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국가를 알고 싶다는 아쉬움을 《지봉유설》 제국부 말미에 보이기도 한다.

곤여만국전도를 소개한 이수광: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논쟁

회답사로 북경을 방문한 이광정과 부사 권희가 곤여만국전도 6 폭을 구입하여 홍문관으로 보냈는데, 당시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던 이수광이 이를 보았고, 자신의 백과사전식 유설인 《지봉유설》에 이를 〈구라파국여지도〉 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2004 년 07 월 26 일, 鈴木信昭(스즈키 노부아키)는 〈朝鮮儒學者李睟光の世界地理認識(조선유학자 이수광의 세계지리인식)〉이라는 글을 통해 조선서학사상에서 이수광의 위상에 대해 반박했다(鈴木信昭 2004). 광해군 6 년에 간행한 《지봉유설》의 외국조에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곤여만국전도와

천주상의 교우론을 조선에서 처음 소개하고 나아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설을 덧붙인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지봉유설의 외국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수광이 세계지리에 관한 지식을 어떤 자료에서 획득하였는지 고찰한 결과 이수광의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은 주로 중국 사서나 지리서, 혹은 유서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럽지역 국가들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인들로부터 얻은 전문에 의한 것이지 〈곤여만국전도〉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이수광의 세계지리관은 〈삼재도회〉삽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통적인 지리관으로 〈곤여만국전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서구 세계지리관을 형성하기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논문이 반박하려 하는 글은 이원순(1991)의 〈조선실학지식인의 한역서학지리서 이해— 서구 지리학에 관한 계몽적 개안〉으로, 여기에서는 이수광을 “종래의 조선 지식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세계지리적 지식을 가졌었고 한역 세계지도를 통해 직방외계의 세계까지도 이해하였던 선각적 지식인이며, 지리지식의 세계화를 느끼게 한, 지리적 시야가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계몽적 깨우침을 느끼게 하는 17 세기 전반기 조선의 대표적 유학지식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에 관련 분야에서 출판된 다른 글들과 대조 결과, 해당 글들이 주장하는 바들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세계지리적 지식’은 단순히 국가의 수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직방내계와 천원지방, 화이관으로

대표되는 중화사상과 르네상스식 지리관의 세계지리관을 지칭하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글들 중 어느 글에서도 이수광이 오로지 〈곤여만국전도〉를 통해서만 서양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없었다. 해당 글들을 종합해보면, 이수광이 해외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들이 더 소상하게 드러난다. 정수일(2011, 222)에 따르면 이수광이 가진 정보는 중국, 일본에서 나온 서적, 조선인 통신사들의 기록, 일본을 방문한 조선인들의 경험담에 근거했다. 그는 1589 년에 일본에 다녀온 차태광과 친분이 있었고(권 11 문장부), 대마도를 왕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본과, 당대 일본은 네덜란드, 영국과 포르투갈 상인들과도 왕래가 있었기에 유럽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스즈키 노부아키는 이수광이 세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외국부를 서술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1. 중국 명대 편년사, 특히 「오학편」(1567)를 이용해 나라들을 해설한 것, 2. 중국의 정사 등에 의해 국가들의 존재를 지적하고, 나아가 설명을 덧붙인 것, 3. 이수광 스스로가 직접 체험한 바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다(鈴木信昭 2004). 정문식에 의하면 이수광이 아시아 및 서양 국가를 이해하는 기본 정보는 중국 서적이었다. 중국정사부 서적을 많이 인용한 까닭은 외국열전이 들어있어 주변 국가 이해에 참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상학의 경우 지봉유설에 불랑기국(포르투갈), 남번국(네덜란드), 영길리국(영국), 구라파국(또는 대서국) 네 개의 나라가 소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명칭들의 차이들에 대해 설명하며 오대주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읽었다면 구라파를 국명으로 오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유럽나라에 대한 내용은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지도보다 사행시 얻은 정보나 이후 문헌에서 획득한 지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오상학 2015). 다만 곤여만국전도를 참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봉유설 1 권 천문부에서는 하늘에 9 층이 있고 최성을 별행천으로 구분하는, 곤여만국전도 제 1 폭 상부의 구중천도의 내용이 분명히 인용되고 있다. 스즈키 노부아키도 인정하고 있듯이, 여러 문헌들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를 소개하면서도 이수광의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등과도 관련시켜 지리적 신지견까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지봉유설의 큰 특징이다(鈴木信昭 2004). 이러한 특징은 곤여만국전도의 영향력의 결과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교차검증하여 수록했는지의 예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수광이 〈외국〉조에서 다룬 나라들은 어떠한 사료적 근거나 견문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들만 수록되어있다.

그렇다면 지리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수광은 결국 서양의 5 대주 체제를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심국가와 주변국가라는 구분이 없는 세계 체제는 어색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 역시 화이관과 관련이 있다. 이수광이 많이 참조한 〈삼재도회〉는 세계를 중국과 8 방의 이적국가로, 〈오학편〉은 황명과 이를 둘러싼 사방의 이적국가로 세계를 설명하는, 세계를 중심부의 중화국가와 주변부의 이적국가로 구분했는데, 지봉유설의 경우 〈제국부〉는 〈본국〉, 〈외국〉, 〈북로〉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 군읍, 풍속, 도로의 각 조로 나누어져 있고, 세계지리에 대한 기술은 앞의 세가지에 있다. 본국은 조선, 외국은 안남국에서 서역국까지를, 북로는 조선과 북쪽

국경에서 접하는 지역의 나라나 민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는 '혼일'이라는 중화와 이적의 혼합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지봉유설》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칭을 '외국'이라는 객관적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수일 2011).

한영우는 유럽, 이슬람문명권, 불교문명권, 중국, 베트남, 유구, 일본 등 유교문명권까지. 왜란 이후의 사회문화 변동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이를 선도한 학자가 서울과 경기를 무대로 하여 살았던 이수광이었다 평가한다(한영우 2006). 임진왜란도 서양과 교역하면서 서양의 총포술(조총)을 받아들인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도전이었다. 중국의 명나라도 마카오를 중심으로 서양과 교역의 문호를 열고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조선만이 서양과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7 년간의 국제전쟁인 임진왜란을 통해 더 넓은 세계와 만나게 되었다. 정보의 중심지인 서울과 그 근처의 학인들이 이런 국제정세의 변동을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왜란은 그 전쟁의 참화와 별개로 서울문화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명나라 말기의 신문화를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의 지도제작기

최초의 두 예수회 선교사, 루지에리와 리치 최대의 과제는 자신들이 노략질이나 폭력을 일삼는 포르투갈이나 카스틸리아에서 온 상인(야만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일이었다(마테오 리치, 신진호 전미경 옮김 2011). '새로운' 우수한 서방의 기기를 소개하는 일은, 자신들이 '야만인'이 아님을 설득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오칭에 거주할 때, 마테오 리치는 주택내부의 벽면에 유럽의 세계지도(오르텔리우스의 지도로 추정)를 걸어두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문인들의 호기심을 끌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서 착안해 중국에 카톨릭 전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계지도를 소개했다—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지리적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김양선 1972). 그리고 중국을 통해 들여온 세계지도는 조선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마테오 리치는 〈여지산해전도〉를 1584 년 광동 조경에서 지역 군수인 왕반의 요청으로 제작하고, 1600 년 남경에서 이를 보증하여 〈산해여지전도로〉, 1602 년 북경에서 다시 보증하여 이름을 〈곤여만국전도〉로 고쳤다. 리치가 본부로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이지조와 각공이 2 종의 〈곤여만국전도〉를 만들었음에도 수요를 채우기가 부족하였다. 그때 어떤 신자가 내 동료의 손을 빌어 다시 신판을 만들었고, 이것을 일층 큰 것으로 판본 8 매에 조각하여 인쇄업자에게 팔았으며, 그리하여 북경발행의 지도가 3 판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김기혁 2005). 해당 지도가 〈양의현람도兩儀玄覽圖〉이다.

이응시(李應試)가 1603 년 북경에서 판각한 것으로, 6 폭이었던 〈곤여만국전도〉를 8 폭으로 확장한 지도이다. 중국에도 판본이 발견되었지만, 형태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한국의 판본이 유일한데, 현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지도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 1936 년 강원도 평해 황씨 종가에서 가보로 전해 내려져오다가 황씨 집안 종손 황병인(黃炳仁)이 일본 유학시절 스승인 이시다 미키노스케 교수와 차후 아유자와 신타로 교수에게 해당 지도의 분석을 부탁했고, 1936 년 아유자와 교수가 처음으로 이 지도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 광복 이후 황병인이 매산 김양선이 경영하는 기독교박물관에 기증했고, 6.25 전쟁 발발 직후 박물관 뜰에 파묻고 피난길에 오른 후 돌아와보니 박물관 소장품들은 거의 불태워졌으나 해당 지도는 보존되었다(김기혁 2005).

마테오 리치의 지도제작과 곤여만국전도의 판본들

〈표 2〉「곤여만국전도」의 版本

板 種	제작연대	소 장 처
가. 北京版「곤여만국전도」	1602	일본 京都大學, 宮城縣立圖書館, 바티칸도서관 소장
나. 刻工版「곤여만국전도」	1602	미국 California 개인소장
다.「양의현람도」	1603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
라. 獻上版「곤여만국전도」	1608	남아있지 않음
마. 繪入「곤여만국전도」(中國)	1608	南京박물원 소장
사. 繪入「곤여만국전도」(朝鮮)	170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奉先寺本은 燒失)
바. 淸朝版「곤여만국전도」	1644이후	영국왕립지리학회 소장
아. 日本版「곤여만국전도」	미상	일본 東北大學 소장
자. 日本 繪入「곤여만국전도」	미상	일본 南蠻文化館 소장

〈표1. 곤여만국전도의 판본〉(김기혁 2005)

김기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곤여만국전도〉의 판본은 총 9 가지로, 각각 〈북경판 곤여만국전도〉(1602), 〈각공판 곤여만국전도〉(1602), 〈양의현람도〉(1603), 〈헌상판 곤여만국전도〉(1608), 〈회입곤여만국전도〉(중국, 1608), 〈회입만국전도〉(조선, 1708), 〈청조판 곤여만국전도〉(1644 이후), 〈일본판 곤여만국전도〉(미상), 〈일본 회입 곤여만국전도〉(미상)이 있다. 〈북경판 곤여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의 대표적인 친우, 이지조(李之藻)가 6 폭에 걸쳐 판각한 것으로,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1603 년 사신들이 가져온 〈구라파국여지도〉가 6 폭이었던 것으로 비추어 〈양의현람도〉보다는 〈곤여만국전도〉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지조판이 당대에 대량으로 보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은 일본 교토대학과 미야기현립도서관, 그리고 로마 바티칸도서관 소장본 3 본이다. 마테오 리치는 해당 지도가 커서 ”그 내용을 다시 추가시킬 수 있었으며, 새로 생긴 국가와 새로운 주가 매우 많았다“고 기록한다(김기혁 2005). 교토대학본은 채색을 입힌 것이고, 미야기현립도서관본은 목판본 그대로이다. 각공판 지도는 한 각공이 북경판의 판본을 따로 만든 것이다. 해당 각공본은 미국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서문이 간략하고, 이지조판의 그림이 일부 생략되어있는 본이다. 〈양의현람도〉는 Baddeley(1917)연구에 의해 존재가 소개되고, 실물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 헌상판은 명나라 황제가 곤여만국전도를 보고 비단에 인쇄해달라 요청한 지도이다. 현재까지 전해져오지는 않는다. 〈회입곤여만국전도〉는 지도에 채색을 하고, 바다에는 배와 물고기,

대륙에는 동물을 그린, 회화를 추가한 지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봉선사본과 서울대학교 박물관본이 있으나, 봉선사본은 6.25 전쟁 중에 소실되었다. 이는 숙종 34 년에 8 폭으로 그려진 본으로, 최석정이 발문을 쓴 본이며, 서울대학교본은 이를 모사한 것이다. 청조판은 대명일통을 대청일통으로, 대명해를 대청해로 바꾼, 북경판의 청조대의 사본이다. 〈일본판 곤여만국전도〉는 북경판의 채색 필사본이며, 한문 지명 옆에 가나를 병기한 본이다. 숙종 35 년(1709 년), 통신사 趙泰億(조태억)과 일본의 학자 新井白石(아라이 하쿠세키)가 대화하던 중 만국전도 한본을 증정할 것을 약속하는 부분이 있다(김기혁 2005).

마테오리치는 〈곤여만국전도〉 서문에 광둥의 학자들이 자신이 지나온 여러 국가들의 지도를 만들어달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자신이 가져온 지도와 책들에서 몇몇 부분들을 발췌하고 자신의 일기를 참고해 새겼다고 했다(Giles 1918). 여기에 Ortelius(1570)의 세계지도와 Mercator(1569)의 세계지도 3 판이 사용되었다 추정되는데, 이들 지도들은 대서양을 중앙에 두고 있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대항해시대의 결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일대지역이 정확하지만 과장되게 그려져있으며, 조선은 묘사되지 않는다. 오르텔리우스 지도는 지명만 묘사되고 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메르카토르 지도의 경우 자세한 주기와 하단부 좌우측에 극지방의 지도와 그림이 그려져 있다(김기혁 2005).

김기혁(2005)은 곤여만국전도가 장방형에 타원형으로 지구를 표현하는 점, 경위선의 표현 방법에서는 오르텔리우스의 지도, 여백을 이용한 발문,

주기, 지지 내용, 개념도, 표 등의 삽입은 메르카토르 지도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해석한다. 세 지도 모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표현되지 않는 것은 똑같다. 대신,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조선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일본 열도도 자세하게 묘사된다. 이는 리치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조선과 일본의 지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지명들 외에 눈여겨볼만한 점은 여인국, 소인국과 같은 다소 신화적인 이야기가 기재된 지명들이다. Giles(1918)의 곤여만국전도 발문 번역에서는 "걸리버 여행기" 스러운 소인국이나 여인국에 대한 설명들도 확인되는데, Giles 는 이를 Plancius 의 1592 지도에서 이누이트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호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pigmies'를 지칭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거자오광(2011)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의 출처를 중국의 산해경에서 찾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후속연구에서는 해당 신화적인 국가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곤여만국전도의 발문들

곤여만국전도의 국역본은 가장 먼저 김양선(1972)의 명말청초선교사들의 지도연구에 수록된 발문 원문 전체와, 이에 대한 김기혁의 발문 및 주기 내용 목차 도식화(2005), 그리고 정기준(2013)의 완전한 해석이 있다.

마테오 리치의 발문을 읽으면 그의 지도제작 목적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천지와 천제의 부분에서, 그는 “일찍이 나는 듣기를, 천지는 하나의 큰 책이고, 이 책은 오직 군자만이 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고로 군자는 천지를 읽고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천지를 읽고 이해하면, 군자는 천지를 주재하는 이가 더 없이 선한 분이고, 더 없이 큰 분이고, 오직 한 분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토미즘의 믿음과 유교의 군자론을 적절히 혼합하여 서술하고 있다(서태열 2018). 그는 중국의 세계관을 바꾸기를 원하면서도 이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먼저, 그는 서문을 “바닷가의 나라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중화대국이 만리 떨어진 나라에까지 교화의 힘을 미친다는 소문을 듣고, 중화대국의 뛰어난 문화를 스스로 흠모하여 배를 타고 서역에서 왔다”고 서술한다. 다만, “지구의 모양이 본래 둥근 공인데, 평면으로 그리니, 그 이치를 한눈에 깨닫기 쉽지 않다”는 통찰에 기반으로 반구도 둘을 다시 그려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표 3〉「곤여만국전도」의 발문 및 주기 내용

유형	위치*	활동	비고
跋文	①	利瑪竇之序文	(萬曆壬寅孟秋吉旦歐羅巴人李瑪竇謹識)**
	②	李之藻序文	(浙西 李之藻 撰)**
	③	吳中明之跋文	(歙人 吳中明 撰)**
	④	陳民志之跋文	(泚陽 陳民志 跋)**
	⑤	楊景淳之跋文	(蜀東 楊景淳 識)**
	⑥	祁光宗之跋文	(東郡 祁光宗題)**
註記	ⓐ	註記(地球圖說)*	(李瑪竇撰) 지구의 경위도 및 대륙 설명
	ⓑ	論地球比九重天之星 遠且大幾何	(歐羅巴人 利瑪竇述) 九重天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
	ⓒ	總論橫度里分	南北直度와 東西橫度의 단위 거리 설명(表삽입)
	ⓓ	太陽出入赤道緯度	태양의 고도를 이용한 위도 측정법 설명
	ⓔ	看北極法	밤에 북극성을 이용한 위도 측정법 설명
	ⓕ	日月蝕圖	일 · 월식이 나타나는 원리 설명
	ⓖ	赤道北地半球之圖	지도에서 위도의 표현방법 설명
	ⓗ	九重天圖	구중천의 운동원리에 대한 설명
	ⓘ	天地儀	일월의 운행 및 낮과 밤의 순환원리 설명
	ⓙ	赤道線	적도와 기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
	ⓚ	四行論略	4행(火土水氣)의 운동원리 설명
	ⓛ	元史	낮과 밤의 길이의 순환에 대한 설명
	ⓜ	赤道南地半球地之	태양이 지구를 도는 원리에 대해 설명
	ⓝ	論日月離地遠近	지구와 해와 달의 거리에 대한 설명
地名 · 地誌	㉮	歐羅巴州	유럽주의 설명과 지명
	㉯	利未亞州	아프리카주의 설명과 지명
	㉰	亞細亞州	아시아주의 설명과 지명
	㉱	北亞墨利加州	북아메리카주의 설명과 지명
	㉲	南亞墨利加州	남아메리카주의 설명과 지명
	㉳	墨瓦蠟泥加州	남극대륙 및 마젤란해협에 대한 설명

* 주기와 발문에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편의상 김양선 선생(1972)의 제목을 이용하였다.
** 발문 말미에 첨부된 발문자의 표시 내용임.

〈표2. 김기혁(2005)의 곤여만국전도의 발문 및 주기 내용〉

카타이 바로알기

마테오리치는 1609 년 2 월 로마 예수회 총회장 알바레스(G.Alvarez)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처음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들 중, 마테오리치 홀로 남아 겪은 일들을 순서대로 써 놓는 것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리치가 처음에 겪었던 일을 썼던 것에 차이가 있어 이를 순서대로 기록을 한 보고서를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마테오리치의 〈중국선교사〉이다(마테오리치, 신진호, 전미경 역 2011). 1609 년말에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이것이 차후 포르투칼어로, 라틴어로, 독일어(1617)로, 스페인어(1621)로, 프랑스어(1616)로 번역이 되었다. 그는 중국에 대해 기록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중국의 상황과 서양의 상황은 대개 그 차이가 매우 크고, 이 기록과 보고가 주로 유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중국의 위치나 풍속, 법률제도 및 중국의 특유한 기타 사정들, 특히 우리 서양과는 다른 점을 이해하면 우리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가 선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서술한다(스게히로 2002). 마테오 리치에 따르면, 중국, 혹은 “극동에 있는 이 나라를 우리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른다. 가장 이른 시기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는 시나, 시나이로 불렀다. 그 후 티무르 시대에는, 마르코폴로가 남긴 자료에 따르면 카타이오, 카타이아, 카타이(cathay, 거란)으로 불렀다. 하지만 근래에 가장 유행한 이름은 ‘지나’였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널리 사용한 이름으로, 그들은 바다에서 오랫동안 항해한 끝에 중국에 도착하였고, 최남단 광동성에서 장사를 하였다.” 마르코 폴로의 ‘카타이’로 이해되던 중국을 서양에 ‘중국’이라 소개하고, 그 풍속, 지리, 상황, 정치, 법률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마테오리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차이점에 대한 이해로 선교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세계에 대한 눈은 더 넓어졌으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세계관은 그대로였다.

맺는 말

지도는 공간인식의 표현인가, 공간인식 변화의 수단인가? 언어와 사고의 논쟁과 같이, 가장 간명한 답은 '둘 다'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도제작 기술의 변화가 정치 행위자들이 영역에 기반한 권력의 인지, 비영역기반의 정치적 권위와 단체의 영향력 약화, 그리고 근대 주권국가의 인식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Branch(2011)의 연구처럼, 마테오 리치가 지도를 그린 것은 보는 중국 지식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다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는 곤여만국전도 발문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사람이 지도와 역사에 실어놓으면 후대 사람들이 이를 둘러보게 되니, 평안히 앉아서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일 수 있다. 크도다, 지도와 역사의 공이여!(정기준 2013)" 김기혁(2005)는 "지도는 고립된 것으로 보였던 각각의 지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지적한다. 마테오 리치는 동서양이 공간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광활한 육지와 바다로 떨어져있으면서도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와있는 지도를 통해 동양과 서양이 결국 한 세계에 속하며, 멀리 떨어져있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남기면서, 대명일통의 큰 글씨를 통해 지리적 중화관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직방세계를 외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가 세계지도에 과학지식에 가까운 발문들을 남겨놓은 것은, 토미즘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믿음에 근거했고, 가톨릭의 구중천도에 기반한 세계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과의 만남에서, 중국 뿐 아니라 조선, 일본에 대한 지식도 확충하고, 이를 다시 지도를 통해 역으로 서양에 알렸다. 이수광은 〈곤여만국전도〉를 부차적 수단으로 사용해 구라파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그의 지식은 수용의 과정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 일본의 지식, 선행문헌들을 종합해 변증의 과정을 통해 습득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세계관은 여전히 구중천도, 다른 한 사람은 중화관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동일한 영역에 존재하면서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다른 한 사람은 넓디 넓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보았던 것이다. 물론, 상호교류의 영향은 이들의 다음 세대 학자들에 더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의 이야기는, 결국 지식이 그 목적에 따라 성격과 활용도가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참고문헌

1 차사료

〈지봉유설〉 2 권(제국부)

〈지봉집〉 8 권(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9 권(琉球使臣贈答錄辛亥赴京時)

2 차사료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조선후기의 세계관〉(경인문화사, 2013).

김기혁, 2005, “마테오 릿치의 「坤輿萬國全圖」연구(I),” 지리학논총, 45, 141-163.

김문식. 「이수광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진단학보 no.98(2004) : 209-232.

김양선. 「明末淸初耶蘇會 宣敎師들이 製作한 世界地圖」.
梅山國學散稿(1972.)

김선희,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심산, 2012).

거자오광 『이 중국에 거하라』葛兆光
『宅茲中国:重建有关"中国"的历史论述』(北京:中华书局, 2011).

노정식, 1969, “서양지리학의 동점 -특히 한국에의 세계지도 전래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대구교대논문집, 5, 225-255.

이은직. 정홍준 옮김. 〈조선명인전〉(일빛, 2005).
이철.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다〉(알마, 2011).
오상학, 『한국 전통 지리학사』 (들녘, 2015)
이원순, 1991, “朝鮮實學知識人의 漢譯西學地理書 이해,”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서울: 민음사, 11-40.
임종태. "Matteo Ricci’s World Maps in Late Joseon Dynasty" 한국과학사학회지 33, no.2 (2011) : 277-296. https://www.academia.edu/17464240/_Matteo_Ricci_and_Korea_Korea_and_Matteo_Ricci_published_in_Glimpses_of_Korea_2013_
엄경흠. "芝峯 李睟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30, 호 (2010): 179-202.
정기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고지도의 우주관과 제도원리의 비교연구: 〈곤여만국전도〉에서 〈대동여지도〉까지 (경인문화사, 2013).
정수일. "제 2 부 : 세계인식에 관한 한국고전과 문명교류 ; 『지봉유설(芝峯類說)』 속 외국명 고증문제." 문명교류연구 2, 0 (2011): 187-224.
서태열.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의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7, no.3 (2018) : 319-336.

신진호·전미경 역, 2013,「마테오 리치 중국 선교사」(1-2 권),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한영우,《실학의 선구자 이수광》. 경세원, 2006).

히라카와 스케히로. 노영희 역, 2002,「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서울: 동아시아.

Alex Jung, E. 2019. “Bong Joon-Ho’s Dystopia Is Already Here.” Vulture. October 7, 2019. https://www.vulture.com/2019/10/bong-joon-ho-parasite.html.

Branch, Jordan. “Mapping the Sovereign State: Technology, Authority, and Systemic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5, no. 1 (2011): 1–36. http://www.jstor.org/stable/23016102.

Cawley, Kevin N. 2013, “Matteo Ricci and Korea: Korea and Matteo Ricci.” Roberto Bertoni, Vincenzo Bordo, Lorna Carson et.al, Glimpses of Korea: Scorci di Korea. Dublin: Trinity College and Trauben, 2013.

Ricci, Matteo, and Lionel Giles. “Translations from the Chinese World Map of Father Ricci.” The Geographical Journal 52, no. 6 (1918): 367–85. https://doi.org/10.2307/1780272.

鈴木信昭.「朝鮮儒學者李睟光の世界地理認識」. 朝鮮學報 192, (2002): 31-84.

5 장

중국의 지능화전 분석과 예측

_중국과학기술관

김창하

서울대학교

1. 머리말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던 2023 EAI 중국 답사에서, 마지막 날 중국과학기술관에 방문하게 되었다. 비록 전문적 지식보다는 흥미 위주의 체험형 활동에 집중했던 장소였지만, 3층의 로봇 전시관을 둘러보며 교과서에서만 들어본 '딥 페이크(Deep Fake)', 무인기 등의 용어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답사를 통해 그 전에는 다소 미약하게 존재했던 중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패권경쟁'내지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비록 신냉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시간이

지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일례로 미어셰이머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반드시 귀결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으며(Mearsheimer 2010, 389), 나이 역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에 접어든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Nye 2020, 15).

이러한 미중 갈등은 무엇보다 안보 경쟁에서 잘 드러난다. 미중은 경제적으로 특히 제조업, 금융 분야에 있어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이 강하지만(Nye 2020, 10), 안보나 군사적 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쉽게 디커플링이 가능하고, 상호의존성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갈등이 안보 경쟁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때, 일차적인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대만일 수밖에 없다.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두 국가 전부, 특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친미적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답사보고서는 “중국의 AI 관련 안보 정책은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2022년 미국은 통합억제(통합억지, Integrated Deterrence)라는 전술을 제창, 도입해 억지의 범위를 전통적 안보뿐만 아닌 경제, AI, 사이버 등 신흥안보 영역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이에 맞춰 중국은 지능화전(智能化战, Intelligentized Warfare)이라는 개념을 주창해, 전통적 군사력에 AI, 사이버 능력, 인지전(Cognitive Warfare) 능력 등을 더해 자국의 군사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와 함께 도전자인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AI 역량적 측면에서 미국보다 뒤떨어졌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역량적 측면에서 따라잡고 있기에(ITIF 2019, 2021) '패스트 캐치업(Fast Catch-Up)' 국가로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장에서는 중국의 지능화전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응되는, 혹은 배경이 되는 미국의 통합억지에 대해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이해한다. 2장에서는 중국의 지능화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지능화전의 안보 전술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안보 전술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파악한다. 중국은 지능화전에 대해 AI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AI가 지능화전의 세부 항목에 모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지능화전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중국이 지능화전의 세부 항목으로 무인화, 인지전(Cognitive Warfare), 정책결정(Decision Making)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과 각각 항목에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파악한다. 4장에서는 앞선 서술적 탐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능화전이, 경로의존적으로 진행된다면 미래 안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 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예측하고,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미국의 Center for Naval Analysis에서 발간한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전체를 바탕으로 중국 지능화전의 교리를

파악한다.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는 미국적 해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벌어진 AI와 자율성 관련 사건과 법제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1차 자료를 집약한 특징을 가진다. 특히 국내 문헌 중, 지능화전을 피상적으로 파악하거나 법제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 자체는 존재하지만 법제도 뿐만 아니라 사건과 군사의 발전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건 중심적으로 파악하여 중국의 물상과 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가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과연 지능화전의 실체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중국은 무엇을 지능화전의 하위 영역,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2. 지능화전에 들어가기 앞서: 통합억지란 무엇인가?

중국의 지능화전은 미래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지능화전은 그것 자체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중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통합억지는 2022년 1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주창한 개념으로(DOD 2022, The White House 2022), 2023년 현재 해당 개념이 정교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험적 과정 속에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국제, 안보적 상황과 이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통합억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통합억지 개념은 그렇게 자주

논의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논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더 중점적으로 이해하며, 통합억지를 일종의 최근 도입된 시범적 개념으로 보는 추세이다. 그러나, 통합억지는 확장억제의 개념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첫째, 안보 위협의 유형, 둘째, 전쟁 수행의 공간과 영역, 셋째, 현용 전력과 신종 군사기술, 넷째,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의 차원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김재엽 2022, 190). 즉, 확장억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미국의 억제력을 타국에게 '확장'하여 제공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통합억지는 비단 핵무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AI, 경제 등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운용해 전 영역에서의 공격을 방지하겠다는 이야기이다,

통합억지에서 중요한 개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김재엽 2022, 203). 첫째, 안보 위협의 차원이다. 과거 냉전 시기나 재래식 전쟁은 위협의 정도가 2차원적이었다.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와 전쟁이 일어난 상태의 두 차원만 존재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앞선 두 차원에 더불어, 소위 회색 지대라고 불리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지도 않은 상태가 등장하고 중요성을 갖기 시작했다. 즉 2차원적 위협에서 3차원적 위협으로 위협이 진화하며, 억지 역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둘째, 전쟁 수행의 차원이다. 기존 (재래식) 전쟁은 육, 해, 공 3차원적인 전쟁이 기본이었으며, 나머지 요소는 부수적인 경향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사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비단 기존의 3차원적 접근뿐만 아니라,



〈그림 1. 다차원 전쟁(출처: https://www.darpa.mil/work-with-us/darpa-tiles-together-a-vision-of-mosiac-warfare)〉

사이버와 우주의 두 차원이 새롭게 등장했다. 즉 3차원에서 5차원으로 차원이 증가하며, 전례없이 각 차원의 통합적 운용이 중요해 진 것이다. 인지전(Cognitive Warfare), 다영역 전쟁 등의 미래전 개념이 등장했으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이러한 차원이다. 따라서 억지적으로도 증가한 차원의 통합적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기술이다. 그 동안의 기술은 범용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 크게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AI, 사이버, 데이터 분야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단순히 기술이 존재하는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기술에 통합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즉, AI, 사이버, 데이터 등의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존 군사 체계에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지가 군사력 상승에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

넷째, 동맹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혼자 이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해양적으로 미국의 해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인근 국가들의 기지 및 보급 제공 등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협력을 강조했으며(The White House 2022, 11), 강조가 무의미한 수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로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려 한다.

현재 통합억지에서 미국의 AI 전략은 지금으로선 무인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미 해군은 2045년까지 약 140~240척의 무인 함정을 전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Fabey 2021), 이러한 해군의 경향을 상징하는 단어가 "유령함대[xlvi]"일 것이다. 공군 역시 무인기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고고도, 저고도 무인 정찰기 등을 통해 AI의 군사적 이용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무인화 외에도, 인간 결정자의 정책 결정(Decision Making)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해, 전쟁의 안개(Fog of War)를 최소화하는 등의 역할을 꾀한다.

3. 지능화전 분석과 예측: 과연 지능화전은 효과적 미래전 전략인가?

(1) 미국의 지능화전 인식



〈그림 2. 인민해방군 사열 장면

(출처:https://weekly.donga.com/List/3/all/11/520110/1)〉

Elsa Kania는 중국의 군사 혁신에 대해 경제와 군사적 요소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과 군사 영역을, 특히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통합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지속된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군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에 대해, 21세기 중반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인민해방군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이 목표를 이뤄나간다고 하였다(Kania 2019, 26).

그 중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영역은 AI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Informatization)을 넘어, 지능화(Intelligentization)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전영역전쟁(All-Domain Operations)을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반해 합동 전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전통적 열세를 극복한다는 것이다(Kania 2019, 27). 구체적으로, 중국의 신일대인공지능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에서는 신세대 AI 기술을 정책결정, 워게임을 지휘하는 데 강한 보조로써 사용법을 강화한다고 언급하였으며(国务院 2017), AI의 사용이 새로운 강점과 약점, 취약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단순히 새로운 첨단기술의 적용과 사용이 아닌, 미래의 군사 밸런스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지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Kania 2019, 28). 또한 인민해방군 산하 국방대학교에서는 지능영역군사경쟁(智能领域军事竞争)이라는 용어를 통해 새로운 영역의 군사 경쟁이 벌어진다고 정의하였다(Kania 2019, 29). 따라서 AI 레버리지를 통해 초기에는 정책결정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해, 결국 인간 명령자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며(Kania 2019, 30), 이에 대한 적용으로 조기 경보, 군사 정보, 정보 작전과 심지어는 인공 위성 궤도 제어 등에도 AI를 활용한다(Kania 2019, 30-31).

그러나 이러한 AI 적용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중앙 차원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데이터의 제한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는 잔존해 있다(Kania 2019, 33).

이러한 논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능화전에 대해 일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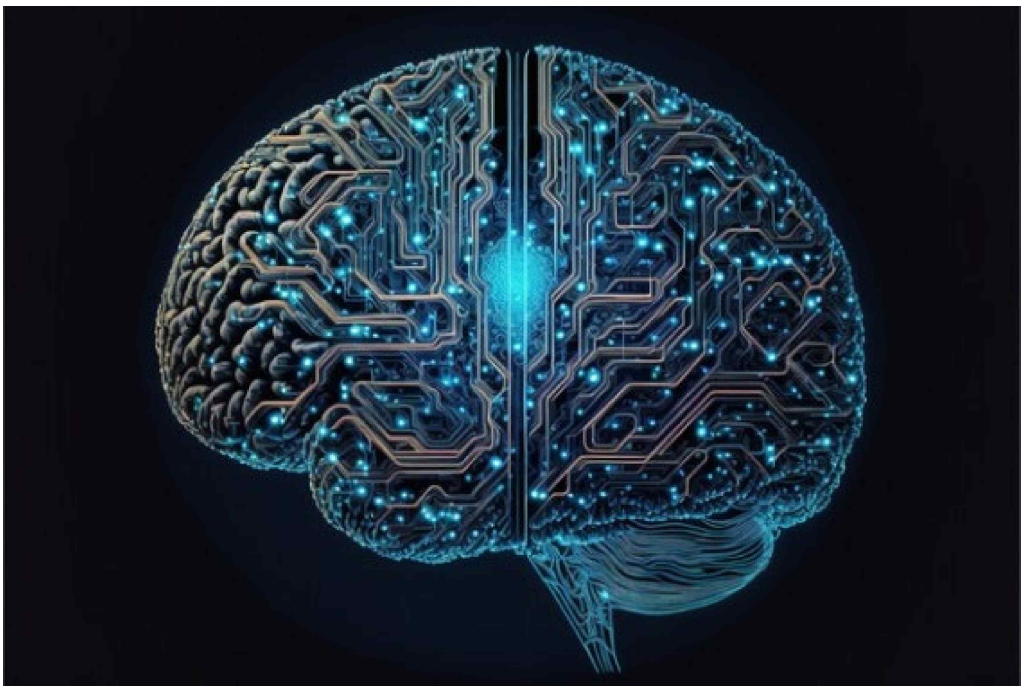
경쟁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내세우는 통합억지의 여러 계획과 교리에 맞서, 중국이 패권 경쟁 구도 하 군사적 갈등에서 압도당하지 않기 위한 수단임과 함께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꾀하는 수단으로써 지능화전을 내세웠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첨단 기술을 레버리지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과연 지능화전은 무엇인가?

지능화전은 중국이 내세우는 일종의 미래전적 전략 개념으로, "정보화전쟁의 새로운 고급단계라는 것이다. 지능화전쟁은 정보화전쟁의 또 하나의 새로운 전쟁형태이고, 지능화전쟁의 기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화 자율작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능화전쟁은 물리영역(지상, 해상, 공중, 우주, 전자기, 사이버)과 인지영역에서 진행되는 고도의 정보화 전쟁으로, 본질적으로는 정보화전쟁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양정학 2021, 138)." 즉, 중국의 지능화전은 배경의 공백상태(No background)에서 나온 전략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미래전의 개념을 정교화시킨 전략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지능화전에 대해 다섯 가지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다(CNA 2022c, 2). 첫째, AI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추후에 서술한 지능화전의 세부 목록을 보게 되면, 모든 측면과 함께 군사적, 민간 영역 모두 AI의 적용과 이에 따른 효율 향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둘째, 지지 기술(Supporting Technology)의 새로운 정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와 같은 영역이 새로운 기술 집약적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확대될 것이다. 셋째, 전장, 안보, 군사적 영역에 높은 정도의 직접 적용성을 가진다. 넷째, 인지, 기억, 생각, 배움과 정책결정에 높은 능력 적용 가능성을 가진다, 다섯째, 개인, 자동화된 기기, 조직이 자원을 더 합리적, 효율적, 고퀄리티적 수단으로 사용가능케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민간과 군사 영역을 가리지 않고 AI를 활용해 발전 속도를 더더욱 가속화시켜 국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림 3. AI 형상화

(출처: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5)〉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지능화전은 일곱 가지 트렌드를 가지게 된다(CNA 2022g, 3). 첫째, 기존 전쟁의 기초를 바꾸게 된다. 기존의 전쟁은 전통적 군사력에 따라,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러나 지능화전이 현실화된다면, 전쟁의 기초가 무인화와 인지전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 전통적 국력 측면에서의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인간과 기계의 협력적 측면이 강조된다.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는 전쟁이 아닌, 인간의 (AI가 보조하는) 정책 결정과 함께 무인화 AI가 수행하는 전쟁에서는 인간과 기계, 둘 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두 존재가 협력해야만 완전한 지능화전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전통적 수(Number)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핵과 같은 비대칭 무기가 아닌, 저가의 무제한 생산 가능한 무인 기계의 전쟁 양상에서는 인간의 수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넷째, 클러스터를 통한 승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비싸고, 기술집약적인 시스템을 싸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무인 기계가 대체하며 기존의 '통합을 통한 승리(Winning through integration)'보다는 클러스터화를 통한 승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본질적으로 지능화전은 하이브리드전이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지능화전은 하이브리드전의 여러 요소가 주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하이브리드전을 이해하는 것이 지능화전에 대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하이브리드전에 따른 '그레이존(Gray Zone)'의 중요성 역시 계속된다. 여섯째, 단순한 파괴를 하는 힘이 아닌, 상대의 인지를 조작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는 '싸울 의지'를 꺾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일곱째, 지능화전, 특히 AI를 통해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편견이나,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며 기존보다 더 합리적이고 나은 예측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중국의 심상을 잘 담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미국보다 열세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칭화대는 미국 AI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국의 AI 능력은 미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CNA 2022b, 6). 또한 베이징대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디커플링 시 특히 AI 산업 분야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명시하였다(CNA 2022g, 3). 그러나 이러한 열세를 자연적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전통적 방법으로 국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제 3의 길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주장과 미국이 주장하는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를 정면으로 겨냥한 듯한 통합을 통한 승리가 아닌 클러스터를 통한 승리를 보게 되면 전통적 군사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AI를 통한 미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듯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지능화전을 추동하는 요소로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다. 네트워크, 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전자기 스펙트럼, 알고리즘은 유동적으로 연계되어 AI를 위시한 지능화전의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지능화전에 대해 중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개척될 요소가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AI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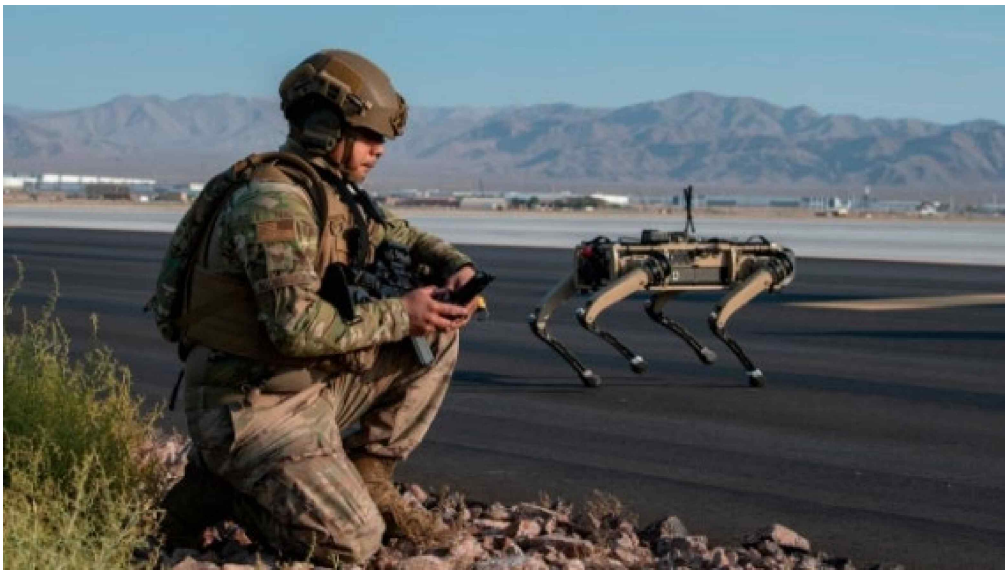
대해 중국은 중국 특색을 담고 있는 철학의 연구를 시작하였다(CNA 2022a, 6). 비록 그 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다소 모호한 측면이 다소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중국적 맥락에서의 AI 정당화와 사용법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CNA 2022c, 4). 구체적으로 ▲AI 이론과 간학문적 연구 활성화 ▲오픈소스 AI 형성 ▲AI를 국가의 필요에 맞춰 사용 ▲윤리적, 법적 프레임워크 구성으로 이뤄진 중국적 AI 정당화는 ▲유비쿼터스, 지능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변환과 발전 시스템 ▲공동 건설, 거버넌스, 공유된 디지털 사회 정부 시스템으로 사용법적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다. 공통적으로 철학적 영역에서는 중국이 뚜렷한 사상과 규범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AI 영역에 대한 정부의 종주권과 AI의 국가 전체적 발전을 위한 사용이라는 큰 틀에서의 사용법은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3. 지능화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은 지능화전의 추동 요소로 네트워크, 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전자기 스펙트럼, 알고리즘을 꼽았다. 그러나 전략, 전술적으로 지능화전을 볼 때에는 무인화(Unmanned) 전투, 인지전, 그리고 정책결정(Decision Making)의 보조로 지능화전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기물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요소로는 드론과 무인기, AI가

존재한다. 물론 AI의 사용이, AI의 범용기술적 측면으로 인해 비단 군사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사용적 측면이 존재하고 강조되지만, 지능화전은 기본적으로 안보 전략이며, 이름에도 전(战)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측면을 위주로 탐구한다.

첫째, 무인화 전투는 구체적으로 드론, 공중 비행체, 해상 차량 등의 총 관측체계를 뜻한다(CNA 2022c, 3). 즉 단순한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 로봇, 무인 선박과 인공위성, 심지어는 자동화된 미사일이나 총까지도 무인화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무인화가 성공하여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이는 지금까지 인간 위주의, 따라서 병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전통적 전투의 틀을, 값싸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무인기 위주의, 따라서 병력의 수보다는 병력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대량생산된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측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바뀔 것이다. 즉, 무인기는 저비용 대량생산이지만 유지적으로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CNA 2022c, 2) 전통적 병력으로는 무인기를 맞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CNA 2022c, 2). 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무인화 전투에 대해 기존의 재래식 전투는 상대 병력을 섬멸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무인화 전투는 무인 시스템의 약점을 비교해, 그 약점을 공략해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즉 전쟁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NA 2021c, 4).



〈그림 4. 미군의 로봇 개 (출처: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93)〉

재밌는 점은 무인화 전투를 강조하는 동시에 해당 전투에서 인간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무인화 전투에 대해, 중국은 동작 관리체계와 센서 관리체계를 분리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파악했다. 먼저 중국은 동작 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 완전한 무인화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센서 관리에 대해 완전히 무인화할 수 있으며, 동작 관리는 무인화로 진행하지만 센서 관리는 유인화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작 관리까지 유인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무인화 전투에 대해 많은 부분이 무인화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의 무인기에 대한 개입은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무인화 전투에서 역할을 조정자(Moderator)로 정의하며, 조정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언급한다. 약한 AI(Weak AI)의 확률성을 인간이 보조할 수 있으며, 인간 고유의

창의성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고, 이익과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에는 인간이 훨씬 더 장점을 가진다고 인지하고 있다(CNA 2022a, 4).

이러한 무인화 전투에 대해 중국은 네 가지 카운터 전술을 내놓고 있다. 첫째, 알고리즘을 공격한다. 무인기의 알고리즘을 변경시켜 무력화시키거나, (방어자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변경된 알고리즘으로 인해 아군을 공격하는 것이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을 공격한다.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나, 무인 지휘 서버와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게 되면 손쉽게 대량의 무인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셋째, 노드를 공격한다. 지휘부를 향한 물리적, 비물리적 공격은 단순히 무인기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넷째, 모든 무인기에 대해 다영역적으로 동시, 신속하게 공격을 가한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전통적 군사력과 비교해 공격 무기 그 자체를 타격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닌, 그 뒤에 있는 지휘부와 그물망을 타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승리에 다가서는 열쇠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현재 무인기에 대해, 중국은 민간용 무인기는 시험, 상용화 단계 중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나 분쟁 지역, 자연재해에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무인기를 구호용으로 시험하고 있으며(CNA 2021d, 2), 특히 퉁가 화산폭발 사태 당시 구호용 목적으로 무인기를 파견하였다(CNA 2022a, 4). 또한 현재 무인으로 자국 영토 내에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고 있을(CNA 2022h, 6) 정도로 무인기의 비군사적 상용화에 적극적이다. 반면 군용

무인기는 대다수 시험화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일부 제한적 사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CNA 2022h, 2).

제한적 사용 단계에 접어든 대표적인 무인기가 '드론(Drone)'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첨단 무기의 대표주자격으로 드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드론은 본질적으로 무인화가 핵심라는 점(CNA 2021a, 3)에서 무인화 전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저비용 대량생산의 무인 드론으로 값비싼, 하이-엔드 기술을 집약한 무기를 파괴하거나 적어도 자폭을 하게 된다면 드론 운용 측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며, 모스크바까지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던 점은 드론의 소형화가 일반적인 전장뿐만 아니라 사보타지(Sabotage)적 역량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림 5 중국군 군용 드론 이룽(翼龙)

(출처: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608192113005#c2b)〉

그런데 드론에 대해서는 민간과 국가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CNA 2021a, 3). 타 방산 무기처럼 방산업체가 지정된 상황이 아닌, 민간 드론 업체들이 생산하고 발전시킨 드론 기술을 국가가 개량하거나 채용하는 등의 지형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이 중국의 DJI사(DJI社) 드론에 대해 정보 수집용 백도어가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례와, 최근 저장대가 복잡한 환경에서의 드론 스웜 플라잉(Swarm Flying) [xlvii] 기술을 상용화하였으며(15-3) 타 영역과 다르게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드론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CNA 2022b, 2)에서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드론의 활용 전술을 시험하기 위해 드론을 통한 고립된 지역 보급(CNA 2021b, 3)을 시험하고 있으며, 2021넌에는 드론을 위한 미니 항공모함을 제작하였다(CNA 2021b, 2).

중국산 드론 활약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드론에 부분적으로 AI가 적용되어 있었다(CNA 2022e, 2). 이러한 드론 사용은, 그 자체로는 효율적이지만 전세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드론의 자체적인 수가 부족하였다. 이 수 부족은 드론이 자체적인 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하여 값싼 무인기로서의 장점이나 사보타주 측면에서의 장점을 반감하였다. 둘째, 군사 전 영역과의 통합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전 이후 다소 갑작스런 중국의 드론 도입은

러시아 군 영역과의 통합된 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따라서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자체적인 최첨단 드론 제작 능력의 중요성과, 그것을 운용하는 교리와의 일체성을 강조한다.

드론 이외에 가장 진전이 빠르고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요소가 AI이다. 중국은 미래전이 결국 AI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CNA 2021b, 4) 국가적으로 AI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 주도 하에 디지털 경제와 AI 발전을 강조하며(CNA 2022a, 3) 14차 투자 5개년 계획에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스마트 제조업의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중국 GDP의 10%를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CNA 2022f, 2).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시켜 그들의 주가를 폭락시킨다. 비교적 헐값이 된 주식을 공산당이 매입하여, 빅테크 기업의 최대주주나 2,3주주에 공산당이 들어서게 된다. 그 후 규제의 완화를 발표해 다시 빅테크 기업의 주가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대주주 지위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섭하게 된다. 즉 AI 영역에 대해 대부분의 공식적 정책은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은 경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경제와 군사의 의도적인 불명확성으로 인해 군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인공위성에 대해서 AI로 궤도 조작을 시행하고 있으며(CNA 2021b, 4), 궁극적으로는 인공위성의 수리 역시 AI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주 영역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AI는 입력된 일에 대해서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치명적인 우주 영역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자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장성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해 검열을 진행한다(CNA 2021b, 5). 심지어는 기후변화에 AI를 적용해(CNA 2022g, 5) 그 추세를 파악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파악하려 한다. 즉 AI를 단순히 AI로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산업과 결합시켜(CNA 2022a, 3) 미래전에서의 우위를 노린다.

그러면서 중국은 AI의 군사적 적용에 대해 다소 도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간의 AI에 대한 종주권을 강조(CNA 2021c, 2)하며, 미래전에서 AI가 중요함을 인지하지만(CNA 2021g, 3) 타국의 AI 사용을 견제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AI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 레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AI가 헤게모니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셋째, AI가 주권과 영토 침탈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AI 발전에 대한 방향을 견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AI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는 옹호하지만 그것이 공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공격자의 입장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격돌하게 되는 영역에 대해 무인화 전투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 뒤에 존재하는 인간 행위자들을 목표로 하는 전투는 인지전이라고 할 수 있다(CNA 2021b, 3). 인지전은 신경과학,

새로운 정보 기술, 그리고 매스 미디어 채널을 통해 사이버, 심리적, 여론, 법적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정보전을 전쟁의 모든 층위와 갈등 국면에 제공하는 전쟁 양식을 일컫는다(CNA 2021g, 2). 정보의 조작으로, 사람의 마음을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정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는 전쟁으로 정의된다. 만약 최전선에 있는 대대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특정 지역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화상 회의가 AI 기술로 만들어진 딥페이크(Deep Fake)였다면 필요치 않은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인지전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CNA 2021d, 2). 첫째, 정보 혼란 전쟁(Information Confusion Warfare)이다. 이 전쟁 종류에서는 적을 혼돈시키기 위해 공격자가 진짜, 혹은 가짜 정보를 활용한다. 즉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정보의 수신자가 정보의 진위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수신자의 의사결정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공격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행태이다. 둘째, 생각 오방향 전쟁(Thought Misdirection Warfare)이다. 앞선 정보 혼란 전쟁은 정보를 제공해 적을 혼돈시키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면, 이 전쟁은 공격 대상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군대, 사람들을 속이거나 잘못 이끄는 것이다. 전투 중 상대편의 병력 현황을 속여 자신이 병력적 열세에 빠져 있다고 믿게 만들거나, 국가의 가짜 항복 뉴스를 제작하는 전략 등이 이러한 전쟁의 예시이다. 셋째, 의지의 전쟁(War of Will Warfare)이다. 인간의 심리적 활동, 심리 상태, 전쟁에서의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전의 한 종류이다. 이는 특히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시킬 수 있다면 최종 정책 결정의 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전을 시행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를 포스트 진실의 시대(Post-Truth Era)로 정의하고 있다(CNA 2022m, 3). 포스트 진실의 시대란, 철저한 진실 대신,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으로 인해 여론과 선거 등의 요소가 가이드되는 시대이며,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는 데에는 온라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지한다(CNA 2022L, 2). 따라서 효율적인 인지전을 위해서는 첫째,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결과에 더 매료되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둘째,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보 없이는 인지전을 아예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상황을 연성해야 한다. 만들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배경 하에서 인지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전쟁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억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중들을 선동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인지전 자산에 대한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CNA 2022p, 3).

앞선 인지전은 본질적으로 정책결정(Decision Making)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정책결정에 대해 지능화전에서 오히려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로 인식하며, AI의 창의성 부재 등의 한계로 인해

결국 중점적인 정책결정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AI를 정책결정과정에서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AI의 빠른 결정,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등의 사항이 인간의 정책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다고 생각한다(CNA 2021d, 3).

4. 지능화전의 미래와 예측

(1) 과연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지능화전이 진행될 것인가?

앞선 논의는 대부분 실제로 시행된 정책이 아닌, 중국이 선언한 규범이거나, 현재 이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갖춰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 정책이다. 즉, 중국의 지능화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험적 논의를 벗어나, 정책의 성공 여부와, 미래전의 시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능화전을 예측해야 한다.

일단, 과연 지능화전은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지능화전에 대한 논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중국은 민간 영역과 군사 영역의 의도적 경계의 모호화를 통해 유연한 국력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지능화전의 성공 여부를 점치는 데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과거 중국 정부의 비슷한 경제 정책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는 중국 정부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동수서산(东数西算) 프로젝트이다(CNA 2022d, 3).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연안 지역의 발전된 인프라와, 동, 중부 지역의 광활한 영토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데이터 센터를 동, 중부에 위치시켜 물리적 크기를 감당하게 하고, 데이터의 활용은 연안 지역 위주로 하겠다는 기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즉,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국가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인 것이다.



그림 6 구이저우 데이터센터 조감도

(출처: http://chinafocus.mk.co.kr/view.php?no=19242&category=)

동수서산 프로젝트와 가장 비슷한 프로젝트는 과거의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이다(CNA 2022d, 3).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는 지식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연안 지역이 요구받고 있을 때, 연안

지역의 제조업 역량을 인건비가 비교적 낮은 동, 중부 지역으로 이전시켜 연안 지역은 지식 산업을, 동, 중부 지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실현시켜 둔화되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프로젝트가 100%의 성공을 거두었는가? 정책이 시행되고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 서부대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한 성공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서부대개발로 인해 지역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동, 중부 지역에 제조업적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은 거의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의 이유로는 첫째, 농민공이 있다. 당시 연안 지역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착해 있던 농민공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는 동,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도시 건설에 참여하면 도시 호구 제공 등의 유인책을 내걸었지만, 도시 호구에 따르는 연금, 의료 혜택 등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도시 호구 제공이었기에 농민공들의 이동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둘째, 도시 정책에 있다. 서부대개발 당시 중국 정부의 계획은 먼저 중점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점), 그 도시들 사이를 연결시켜(선), 최종적으로는 일종의 새로운 도시 권역(면)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는 기능적으로 연안 도시에 비교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가 시설이나 인프라적인 면에서 연안 도시들에게 열세였다. 따라서 도시들 사이를 연결시켜 새로운 도시 권역을 만드는 것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부대개발의 문제점은 동수서산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데이터센터를 운용하겠다는 계획부터, 수많은 전문 인력의 동, 중부 배치를 전제한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인프라 좋은 연안 도시를 버리고 굳이 동, 중부로 이주할 이유 자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문 인력은 농민공과 다르게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외부에서까지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에서 농민공의 재배치를 유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동수서산 프로젝트에서는 전문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여 데이터센터 운용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또한 지리적 위치 역시 문제이다.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조업을 이전할 때 경쟁자는 연안 지역이 아닌, 동남아였다. 노동자의 인건비와 함께 원재료와 완제품의 수송적 측면에서 지리적 위치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했다. 비록 동수서산 프로젝트에서는 외국 기업이 아닌, 중국 국내 빅테크 기업을 타킷으로 삼지만, 연안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비해서 동, 중부 지역이 에너지적 측면이나 데이터 케이블 관리적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두 프로젝트 모두 동, 중부가 모두 잠재적 경쟁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 국내 기업은 중국 정부의 명시, 묵시적 압력에 의해 동, 중부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압력에 의한 정책 실행은 자발적인 정책 실행에 비해 그 충성도가 낮고, 프록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소규모의 데이터

센터만 동, 중부에 설립하고 메인 데이터 센터는 연안 인근 지역에 설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화전에 대해, 그것의 경제 정책적으로 많은 우려점들이 존재하고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지능화전 정책을 지속하게 된다면 목표했던 지능화전의 수준보다 훨씬 약화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민간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며, 이는 민간 AI, 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군용으로 이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시한 지능화전의 개념은 상당 부분, 중국이 아니더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주요한 이유는 미국이다. 미국 역시 통합억지를 통해 다영역 전쟁이나, 인지전, 무인화 전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대비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양국이 비슷한 결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책이 해당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화 가능성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2) 지능화전의 미래: 컨트롤의 문제

만약 무인화 전쟁, 인지전이 현실화되고 그 중추에 중국과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AI가 있으면 국제정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까? 첫째, 우산 개념의 재편이 요구될 것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우산 개념으로 핵우산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래전에서 AI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 2023년 현재 미국, 중국, 대한민국, EU를 제외하면 마땅하게 AI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동맹의 요소에 AI를 포함하게 될 것이며, 결국 'AI 우산'이라는 개념 역시 등장할 것이다. 만약 높은 수준의 AI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낮은 수준의 AI, 혹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공격하게 되면 전통적 군사력이 대응하기 전에 무인화 기계, 인지전을 통해 전투가 압도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AI를 통해 무인화, 인지전을 방지할 수 있는 AI 우산 개념이 필요해질 것이다.

둘째, 핵무기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현재 핵무기는 전통적 무기와 운용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별개의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적, 비대칭 무기적 특징으로 말미암은 점이 있다. 그러나 AI가 발전하게 된다면 핵무기의 운용에 있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핵-사이버 넥서스(Nuclear Cyber Nexus)처럼 핵무기의 해킹을 통한 아군 공격이나 핵무기의 발사능력 제거를 통한 핵의 의미 축소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AI의 자동화적 능력과 실수의 제거가 특히 유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셋째, 억지 개념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다. 현재까지 억지는 동맹 개념과 연관되어 생각되는 경향이 존재했다. 그러나 AI가 발전하게 되면 동맹이 아니더라도, 자국의 생명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무인화 기계들을 지원해, 그 성능을 시험하는 행태가 이뤄질 것이다.

즉 인계철선적 요소가 제거되며 군사적 지원이 더욱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발한 군사적 지원은 특정 국가가 공격을 진행하기 전 잠재적 군사적 지원까지 계산 변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결국 간접적인 요소가 억지 개념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할 수 있다.

넷째, AI의 기술적, 경제적 성격으로 인해 역사상 어느 때보다 안보와 경제 영역의 통합이 강조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AI의 군사적 적용은 민간이나 군, 어느 한 집단이 주도해 나갈 수 없다. 오히려 민간에서 기본적 AI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전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적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AI 기술의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AI 기술 유출과 기업의 경제적 상황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국가 개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와 안보 분야의 밀접한 관계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요소를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컨트롤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중견국의 AI 수준이 무인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인지전 능력을 일정

상대국 능력 / 인프라	낮음	높음
무인화 전쟁	효율적이지만, 인프라가 비대칭적인 국가라면 비 효율적일 수 있음	효율적
인지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효율적	효율적

수준 이상 갖추게 된다면, 결국 그 자체적 의미와 함께 상대국의 능력으로 인한 그 능력의 컨트롤이 중요하게 된다. 컨트롤의 정도는 결국 작전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전에서 칼을 주 병기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칼을 사용할 시 작전의 효율성이 총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트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의 표 1을 참조한다

먼저 자국의 능력은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AI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애초에 컨트롤이나 효율성을 따질 이유와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국의 AI나 사이버, 혹은 첨단 기술 인프라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전쟁은 항상 강대국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만약 상대의 인프라가 높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AI 능력의 전력적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무인화 전쟁에서 상대보다 무인화 수준이 낮아서 무인기의 절대적 성능이 차이나거나, 무인기의 생산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싼 값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를 보유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인기의 성능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그 무인기를 통제하는 통신 시스템을 해킹하면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통신 시스템 해킹 능력은, AI 능력이 원숙한 국가라면 해킹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결국 상대의 인프라가 고도화되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높은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프라가 낮은 국가라면 값싼 무인기가 재래식 무기나, 인간 행위자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탱크와 무인기가 10대 1로 교환되더라도, 그 생산 시간이나 단가가 무인기 쪽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병력의 수나 질적인 면에서 압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비대칭적인 경우이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킹 능력이나 통신 인프라를 확보했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무인기들이 해킹으로 인해 작동 정지되거나 오작동하게 된다면 결국 재래식 무기와 인간 행위자들이 무인기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통적 군사력을 위주로 (그 질은 장담할 수 없지만) 10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형적으로 사이버, 핵 역량만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이 무인화를 급속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북한에 비해 발전한 사이버 인프라 때문에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무인화 기계가 공격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무인화 인프라의 비대칭에 의한 상대적 이익의 동기를 제거시킨다.

반면 인지전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전 영역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는 작전 수단이 다를 수 있다. 일단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내부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Disinformation)나, 소위 '딥 페이크(Deep Fake)'를 활용해 일반 대중들에게 전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군사적으로 전쟁의

안개(Fog of War)를 심하게 만들고 때때로 잘못된 작전명령 하달 등으로 적군을 아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인프라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인터넷 등 고차원적인 요소를 통한 인지전보다는, 기존의 '심리전'이라고 일컬어졌던 고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한 인지전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국가가 라디오나 TV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방송을 하이재킹해서 그럴듯하게, 진실 속 거짓을 섞는 방식으로 아군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국 AI 컨트롤을 논의해 보면, 국제적으로 AI 컨트롤은 AI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대국을 위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AI는 핵과 달리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수준을 특정하거나 제한하는 식의 컨트롤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 AI의 성격은 대칭적 무기이지만, 그 가격과 보충 속도가 굉장히 빠른 무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의 컨트롤은 다른, 다소 비공식적 방식이 지배적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AI는 기술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탈취해 빠르게 AI 격차를 좁혀 나가려는 시도가 빈번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AI의 컨트롤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 기술의 탈취와 그 탈취를 막는 사이버 억지 규범의 싸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기술의 탈취를 얼마나 규범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효율적인 규범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보편적인 가치 하에, AI의 군사적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개도국의 미래전 진입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AI의 군사적 사용이 가능해진 국가들 사이에는 서로 지적 재산권 탈취는 안 된다는 표면적 구호 하에 물밑에서는 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다만 AI가 비대칭 무기임과 동시에 MAD적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엄격히 사용이 추적, 제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인지전 측면에서는 비대칭 무기일 수도 있지만 MAD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각국은 AI를 컨트롤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 자국이 인지전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장 인구의 30퍼센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복탄력성(Resilience) 증대를 바탕으로 인지전에 맞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I가 MAD와 관련된 분야, 특히 핵과 관련된 분야는 엄격히 통제될 것이다. 현재 핵-사이버 넥서스(Nuclear-Cyber Nexus)를 포괄하는,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AI-사이버 넥서스(AI-Cyber Nexus)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AI는 핵 분야에 대한 공격성을 국가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발전시키되, 국제적으로는 AI의 핵 분야 관련성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방식으로 컨트롤이 이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AI의 발전 방향과 전략적 활용 방안으로 인해, AI의 발전이 본질적으로 저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 개념과 AI가 연관되며 동맹 개념의 요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AI

통제 부분에 있어서도 AI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사이버 영역에서 간접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다만 MAD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적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5. 맺음말

과연 중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능화전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현재 지능화전은 대부분 선언적, 규범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언과 규범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정책이 부족하며, 특히 몇몇 정책은 과거 실패했던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설정한 지능화전의 트렌드는, 국제정치적 환경과 국내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다.

지능화전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하이브리드전으로써의 지능화전 모습이 등장할 것이다. 특히 AI의 결합을 통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에게 국력의 급속 신장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핵무기의 효용성이 감소되며 무인화 기계, 특히 AI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값비싼 무기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값싼 무인화 기계 여러 대를 만드는 전략이 더 교환비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 또한 인간 행위자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결정을 도와주는 AI의 등장과,

그것을 가로막는 인지전의 등장은 인간 행위자의 통찰력이 더욱더 중요해짐을 암시한다. 이는 AI가 발전하며 결국 AI 우산, AI의 발전에 따른 억지 개념의 재편과 핵무기의 제어적 측면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지능화전에 '휩쓸려' 이에 대한 대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어느 정책을 선택할 때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무인화 전쟁은 주적과 현실적으로 군사적 마찰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잘 고려해, 발전된 인프라로 인해 오히려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지전적 부분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AI 관련 안보 정책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까라는 원대한 질문에 대해, 다소 포괄적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였다. 물론 미래의 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격동의 21세기에서 대한민국이 최선의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Department of Defense. (2022).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The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中国国务院. (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Daniel Castro, Michael McLaughlin. (2019).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data innovation. 1-105.

Daniel Castro, Michael McLaughlin. (2019).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2021 Update, Center for data innovation. 1-48.

Elsa B Kania. (2019). Chinese Military Innovation in the AI Revolution, The RUSI Journal. 164(5-6). 26-34.

John Mearsheimer.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 381-396.

Joseph Nye. (2020). Power and Interdependence with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7-21.

Michael Fabey. "Building a Bigger Navy: Future USN Force Structure,"

Jane’s Defence Weekly, May 19, 2021.

The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CNA. (2021).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1).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4.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1).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5.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6.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7.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8.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9.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0.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1.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3.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4.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5.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6.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19.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20.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21. Center for Naval Analysis.
____, (2022). The China AI and Autonomy Report vol.22. Center for Naval Analysis.
김재엽. (2022).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적 억지' 전략" 배경과 특징,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전략연구. 88. 191-222.
양정학. (2021).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군사현대화에 관한 연구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31. 11

xlvi 유령함대, Ghost Fleet란 유인 함정의 비중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대신, 그 공백을 무인 함정을 통해 운영하는 함대를 말한다.

xlvii 스웜 플라잉이란 드론 여러개가 분대를 이뤄, 분대 단위로 협동적 진형을 갖춰 비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스웜 플라잉 기술은 상대방의 레이더를 속여 침투하거나, 가짜 레이더로 상대방의 대공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재밍(Jamming)의 가능성과 실제로 물리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6 장

중국현대미술과 정치: 연구문헌사
_798 예술구

김서원

이화여자대학교

798 예술구는 사랑방 답사의 마지막 날 오후에 찾아가 볼 수 있었다. 심심치 않게 정치, 사회를 앞서가는 예술을 통해 어쩌면 중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미네랄 광산과 같은 흥미로운 답사지에 관한 보고서에 미래는 커녕 최신의 중국미술이 반추하는 중국의 모습도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버리고, 1950 년에서 80 년대에 대한 이야기만 담은 것 같아 아쉬움이 깊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중국현대미술을 접하는 나 자신 뿐 아니라 798 예술구의, 혹은 오늘날의 중국현대미술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이에게 거대한 중국현대미술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나마 움켜쥐어 보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의 공부가 헛되진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섭씨 40 도에 육박하는 베이징의 날씨에 그야말로 우당탕 798 의 갤러리들을 둘러본 것으로 기억한다. 이 과정을 불평 없이 함께 만들어간 사랑방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답사 소감을 마친다.

들어가며

중국의 미술과 정치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특히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술은—민주주의 사회가 표현의 자유의 맥락에서 예술을 생각하듯이—예술가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창작의 영역이기 보다 정치적 상황과 목표에 대한 '반응'으로써 더 큰 의미를 가지어 왔다. 중국현대미술의 발전 과정을 반응이라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 이였기보다, 이를테면 문화대혁명(1966-1977), 개혁개방(1978), 혹은 천안문 사건(1989)과 같은 당시 중국의 중요한 정치적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에 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동참하거나, 혹은 저항하며 독특한 중국만의 미술사조 [1], 즉 물줄기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현대미술을 연구하는 텅샤오빙 교수는 20 세기의 중국 예술가들은 순수한 의미의 예술가이기보다 예술가인 동시에 "사상가", 혹은 "정치 활동가"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Tang, 2010) 또한 중국현대미술이 가진 이러한 정치성은 21 세기, 즉 글로벌 예술 시장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난 오늘에도 정치적

[1] 예술에서 사조는 주로 작가와 작품이 추구하는 주제의식과 형식성에 따라 분류하는 틀로서 미술사의 줄기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일련의 작품들을 한 예술사조로 분류할 때는 그들이 주제의식과 형식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동질성을 보여야 한다.

팝(Political Pop), 시니컬 리얼리즘(Cynical Realism)으로 이어지며 중국현대미술에 국내외의 가장 큰 관심을 끌어다 준 요인이기도 하다.

정치와의 중첩으로 발전한 중국현대미술 사조의 시기적 구분에 관하여, 1950-70 년대에는 구소련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이라는 문화정책 아래,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으로서 미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가 유지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 시기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은—모두가 동의하는 용어는 아닐 수 있으나—"선전미술(Propaganda Art)"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기조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더욱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주석 개인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다. 다양한 평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1980 년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제한에 부합하는 특정한 미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한편 1979 년 등소평 주석이 이끈 개혁개방의 분위기에 따라 1980 년 '성성화회(星星畵會, Star Art Group)'라는 젊은 작가군의 일련의 '비공식적' 전시 및 운동을 시발점으로 중국현대미술계에 아방가르드(Avant-Garde)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아방가르드 사조는 이후 그 주제의식과 형식성에 있어 중국의 기존의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가치에 저항적이면서도 동시에 서양의 모더니즘이나 아방가르드 스타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Tang, 2010) 비록 1989 년 천안문 사건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이 아방가르드 운동은 가오밍루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중국미술이 정치적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표현의 개성으로 나아가고자 한 운동으로 평가되어왔다. (Gao, 2011; Andrews, 1995)

그러나 '반응'이라는 중립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듯이, 어느 시기에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작가들의 표현이 반드시 명확하게 순응과 저항 중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았고, 또 리얼리즘은 '체제 순응적인 미술', 아방가르드는 '저항적 미술'로 분류하면 그 복잡한 내막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심지어 1950 년대 유행한 선전미술의 경우에도 학자들 사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몇몇 이들은 이 시기의 작품도 정치적 맥락 뿐 아니라 당시 미술 작가들의 중국미술의 근대화 욕망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Liu; Lu, 2014) 마찬가지로 1980 년대 유행한 아방가르드 운동 역시 지배적 견해와 달리 여전히 근대화라는 일반적인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Bryson, 1998)

이러한 복합성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계속되는 정치와 예술 사이 관계의 특징이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사학계에서는 근현대 중국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공간에서 이러한 미적 개념들의 출현과 변화를 어떻게 평가, 해석할 것이냐 하는 "의미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Tang, 2010) 따라서 오늘날 중국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정치적 맥락과 더불어 '정치와 예술의 관계'라는 틀에서 그 사상적 기원들을 입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답사지 798 예술구에서도 볼 수

있는 '시니컬 리얼리즘', '정치적 팝',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스타일의 중국현대미술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 상위구조(Supra Structure)로서 중국현대미술의 소중한 자원이 된 두 사조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답사보고서는 이러한 관점과 의의를 가지고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와 같은 중국현대미술의 주류 사조의 흐름과 그 "의미의 경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 1949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현대미술 사조의 흐름을 대표적 사건, 작가, 작품과 함께 살펴본 이후, 중국의 예술-정치 관계의 핵심이었던 이데올로기와 근대성의 소화(消化)라는 맥락 안에서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을 해석하는데 있어 "의미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연구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현대미술의 복잡한 역사적 기원 위에 치열하게 중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오늘날의 작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논한다.

중국현대미술사조의 흐름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 사조 각각의 평가에 대한 논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사조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미술의 역사를 대표적 작가 및 작품과 함께 큰 물줄기로 정리해보도록 하자. 중국현대미술의 시작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발인 1949 년과 대체로 동일하게 본다.

이후 중국현대미술의 사조는 문화대혁명의 끝과 개혁개방의 시작을 기점으로 전후를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주의 리얼리즘 (1950-70 년대)

첫째로,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중국미술의 중심이 된 시기이다. 1942 년 5 월, 당시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마오쩌둥은 옌안의 문예 좌담회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계급 위에 존재하는 초계급예술, 그리고 정치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예술” 이란 없음을 선언한다. (McDougall, 2020) 이 옌안 ‘문예강화’ 는 마오 개인의 생각이었다기보다 막스-레닌주의 문예론에서 영향을 받아 옌안 해방구에서의 혁명운동에서 발전된 집단적 창작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 혹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란 소비에트작가연합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창작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1934 년 제 1 회 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정의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소비에트 문학과 문학비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폭로에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형상화 한다.[2] 이러한 문예론에 기초하여 중국 공산당 혁명

[2] 이 정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하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두 가지 기본 특징은 리얼리즘과 사회주의적 당파성이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 폭로하는 기존 리얼리즘의 전통에 사회주의적 당파성을 결합시켜 기존 리얼리즘과 달리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 그리고 ‘혁명적 낭만주의’를 기본 축으로 구성 · 발전하였다.

이후 중국의 미술은 “일반적이고, 이해가능한” 미적 형식으로 인민의 삶을 대표하고, 공산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Brennan, 2023)

> 为艺术的艺术，超阶级的艺术，和政治并行或互相独立的艺术，实际上是不存在的。
> 모든 문화와 문학예술은 반드시 어떤 계급과 정치노선에 속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 초계급의 예술, 정치와 병행하거나 상호 독립된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 예술은 정치에 예속되어야 하고 정치에 복종되도록 통일되어야 한다.
>
> 〈문예강화〉
>
> (번역문 출처: 중국학위키백과 [3])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는 둥시원(董希文, Dong Xiwen), 오인성(吴印咸, Wu Yinxian)[4]을 들 수 있다. 특히 둥시원이 1953 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4 주년을 기념하여 그린 〈The Founding of the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0771.

[3] http://chinesewiki.uos.ac.kr/wiki/index.php/연안문예강화

[4] 오인성은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사진 및 비디오 예술분야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조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있다. 예를들면, 그의 비디오 작품 〈Street Angel〉와 〈Long Live China〉는 혁명 이전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중국의 혁명군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중국을 지키기 위하여 행한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iu; Lu, 2014)

Nation(开国大典)〉은 이 시기 중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표본을 보여준다. 완벽하게 흩어진 구름과 함께 파아랗게 맑은 하늘에 중국 공산당 초대 주석 마오쩌둥이 빨간색의 거대한 재등과 기둥으로 장식된 천안문 위에 올라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민족주의 진영과의 긴 내전을 끝내고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위대한 출발과 긍정적인 미래를 상징하여 그리고 있다. (Brennan, 2023) 파란 하늘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반면, 그림의 중심에 있는 위풍당당한 마오쩌둥 초상은 그의 권위를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그의 뒤편에 나란히 서있는 인민해방군 수장 주더(Zhu De, 1886-1976)를 비롯한 당 간부들은 당 내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처음 이 그림이 제작된 후로 20 년간 총 5 번에 걸쳐 삭제, 대체, 수정되기도 했다. (Brennan, 2023) 이 사실만으로도 이 그림이 당시 정치 상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려진 그림인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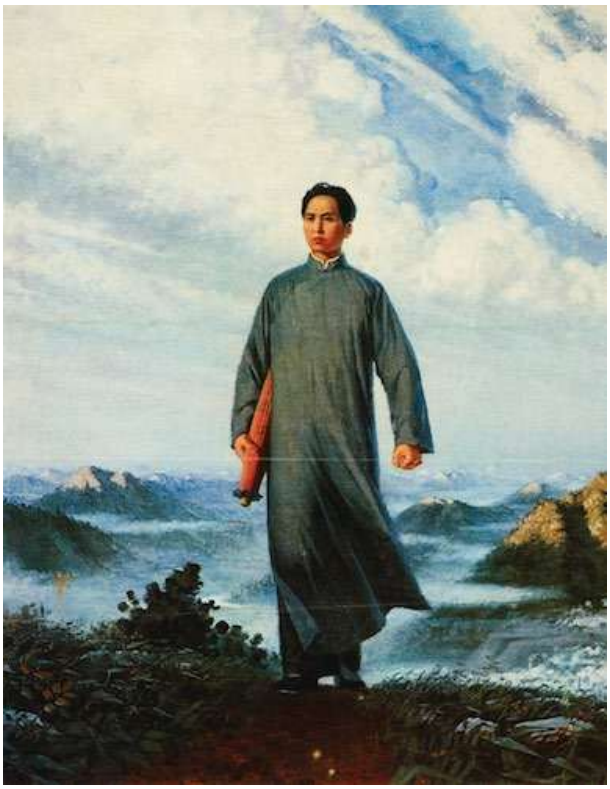
이 그림의 복사본은 이 시기 포스터로 제작되고 수많은 신문과 잡지에 실리며 공산주의 혁명의 일부로서 대중에게 보급되는 선전물로 활용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림이 그러하듯이, 스타일적으로 이 그림은 유럽의 대형 유화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상주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Brennan, 2023) 즉, 유럽의 인상주의 기법이 정치적 선전 및 사상교육에 알맞은 형태로 차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Founding of the Nation〉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도 1966 년부터 10 년간 회복불가능의 피해와 아픔을 낳은 문화대혁명의 시기를 겪으며 작은 변화의 바람을 겪는다. 이 시기 흔히 “마오 그림(Mao’s Paintings)”이라 불리는 마오쩌둥 주석의 영웅적 면모가 더 강조된 그림들의 등장한다. 일례로, 문혁 시기 그려진 리우춘후아(刘春华, Liu Chunhua)의 〈Chairman Mao Goes to Anyuan(毛主席去安源)〉은 본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주제의식과 표현기법을 유지하며 안위앤으로 향하는 마오쩌둥을 석탄 광산에서의 노동운동을 이끄는 초월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Brennan, 2023) 그 스스로 미술학도이자 중앙미술공예학교의 홍위병 조직 일원이었던 23 살의 리우춘후아는 석탄 광산 노동운동을 이끄는 마오에 대한 유화작업을

지도 받았고, 이 한편의 그림을 제작한 이후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Chairman Mao Goes to Anyuan〉은 1968 년 7 월부터 대량 복제를 통해 컬러본이 주요 신문과 잡지를 통해 인쇄, 유포되었다. 심지어 해당 복제본들은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미술품으로 물신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며 일상생활 속에서 마오쩌둥의 숭배가 스며들게 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해진다. (Tang, 2010) 마찬가지로 천옌닝(陈衍宁, Chen Yanning)의 〈Chairman Mao Inspects the Guangdong Countryside〉역시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 기간, 마오쩌둥 주석의 유명한 광저우 방문의 구체적인 역사적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Brennanm, 2016) 이 회화 역시 대량 인쇄, 복제되어 중국 인민들의 일상에 퍼져 나갔다. 이처럼 문혁시기 유행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회화들은 주로 마오쩌둥 주석을 성공적인 노동운동의 진정하고 유일한 지도자로서 재구성하려는 국가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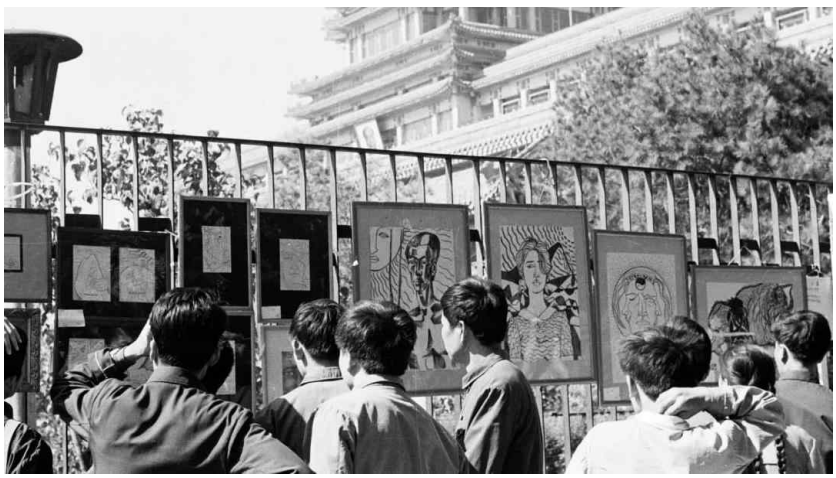
〈Chairman Mao Goes to Anyuan〉



〈Chairman Mao Inspects the Guangdong Countryside〉

(2) 아방가르드 (1980 년대 이후)

그러나 1970 년대 말 등소평 주석의 개혁개방과 함께 미술계에도 자유의 바람으로 “아방가르드(Avant-Garde)”라는 새로운 미학 개념이자 사조가 부상하기 시작한다. 아방가르드 사조, 혹은 운동의 본격적 시작은 일반적으로 1980 년 ‘성성화회(星星畵會, Star Art Group)’라는 전문적 미술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젊은 작가군의 “비공식적” 전시 및 운동에 의해서 였다고 여겨진다. 천안문 민주주의 운동의 에코로서 시작된 이른바 ‘성성화회 사건’으로, 스스로 “외부자”로서 위치를 공공연히 밝히는 이 젊은 작가집단은 중국 국립미술관밖 거리에서 마오사상,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이끈 4 인방(Gang of Four)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담은 비공식적 전시와 행진을 이어가며 베이징 거리의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과 충격을 안겼다. (Wu, 2011)



〈성성화회 전시회(1980)〉

성성화회 사건을 시작으로 1980 년대에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전의 문혁 시기 억압되었던 예술의 주제와 형식성에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움직임이 어떤 변화였는가, 즉 중국현대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그것이 중국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서구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혹은 다다이즘으로 불리는 스타일과 테크닉을 명백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의된다. (Tang, 2010; Gao, 1993) 두번째 기준에 관하여, 실제로 당시 성성화회 운동에 참여했던 작가, 왕캐핑(Wang Keping), 마대셩(Ma Desheng), 후앙루이(Huang Rui), 그리고 구레이레이(Qu Leilei)는 인터뷰에서 그들의 전시 및 운동의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Wu, 2011)

>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오직 그럴때만 우리는 중국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심지어 그 형식이 **무분별하게 빌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술에서 중국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5]
>
> 〈성성화회와의 대화〉

---

[5]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most of us have had no formal training in art, we must first go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some- thing new; only then can we talk about finding some sort of Chinese identity. It is criti- cal for us to be able to express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Chinese people in our art, even if the form we use is indiscriminately borrowed. (Wu, 2011).

그러나 본격적으로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 사조 및 운동이 꽃피운 시기에 대해서 가오밍루, 리시앤팅 등의 학자들은 1970 년대 말을 이야기한다. 특히 그가 미국에서 기획한 1993 년 〈Fragmented Memory: The Chinese Avant-Garde in Exile〉 전에서 가오밍루 교수는 쉬빙(徐冰, Xu Bing)을 대표적 아방가르드 예술가로 소개한다. 쉬빙의 기념비적인 작품 〈A Book from the Sky(天書)〉는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의 고급 판본 스타일로 제작한 거대한 책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한자처럼 디자인된 무의미한 상형문자로 채워져 있다. 이 무의미한 문자의 집합인 거대한 작품은 1988 년 처음 중국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후 그가 여러 기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아방가르드 미술가'라는 명칭을 얻을 길을 열어주었다.





〈A Book from the Sky〉

그의 문자에 대한 관심은 어린시절 경험에서 기원한다. 그의 어머니는 베이징대 도서관의 사서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일터에서 읽을 수 없는 거대한 책 더미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가 소학교에 들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문혁대혁명기(1966-76 년)를 지나고 있던 중국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마오쩌둥의 어록 뿐이었다. 그리고 1989 년 천안문 사건 이후 전위예술가로서 운신 폭이 좁아진 그는 이듬해 미국 위스콘신으로 건너갔고, 영어에 서툰 그가 주로 시간을 보낸 곳은 메디슨 대학교 도서관이었다. 어렸을 때처럼 그는 다시 읽을 수 없는 책들에 포위됐다.[6] 〈A Book from the Sky〉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살아내며 삶으로 경험한 바를 문자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표현한다. 앞서 제시한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구분에 있어 주제와 형식상의 기준을 상기하면, 쉬빙의 작품은 분명 아방가르드 이전의 미술과는 다른 미술을 보여주고 있다.

---

[6] 그의 어린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2011 년 그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참고했다. (권근영, 2022)

또한 가오밍루 교수가 왜 쉬빙과 같은 실험적인 작가들이 아방가르드 사조를 중국현대미술계의 주류로 이끌었다고 평가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는 미국에서 머물면서 중국 아방가르드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아방가르드의 정초를 1930 년대부터 40 년대 말까지 옌안 해방구에서 활동했던 구위앤(古元, Gu Yuan)등의 특정 목판화가들에게서 찾는다. 쉬빙은 이 시기 "해방구의 미술은 직접적인 사회참여의 실천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인에 한정된, 미술기법 향상의 문제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실용주의로부터 연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대신 미술 자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특정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완전히 새로운 미술이었고, 즉 그 시기 가장 선진적인 사상가들의 미술이었다"고 언급한다. (Tang, 2010) 그가 오래도록 중국 아방가르드 실험의 대표자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성성화회의 비공식적 전시 운동에서 시작한 정치적, 미술적 실험에 진정한 아방가르드 정신을 찾아 더했기 때문이다. 가오밍루 교수는 성성화회 전시에서 시작하여 쉬빙과 같은 작가들에 이어진 아방가르드의 물결은 일반적으로 당과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이었다고 평가한다. (Gao, 2011)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근대성 논쟁

앞서 살펴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 사조의 발전 과정 및 대표적 작품들에 대한 해석은 주류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견해는, 요약하자면, 중국현대미술이 1949 년 이후 사회주의 및 마오쩌둥 주석의 정치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다가 개혁개방과 함께 나타난 예술가들의 아방가르드 운동에 의해 서구의 미술 기법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보다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이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제한적인 예술로 인식되어 한동안 연구자들에 의한 관심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이해는—그로 인해 그 자체가 가지는 함의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중국현대미술에서 두 사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오직 부분적 이해만을 제공한다.

중국미술사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혹은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려면 당시 중국미술계에서—주로 서구의 근대적 미술 기법 및 화풍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근대성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둥시원 등 초기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도 이러한 근대성의 욕망 측면에서 다른 각도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The Founding of the Nation〉등을 제작하며 중국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가 된 둥시원역시 당시 공산당원으로서 쓴 자아비판문, 〈My Self-Examin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러낸다. (Liu and Lu, 2014)

> 예술의 정치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은 통합되어야 한다. 정치적 기준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이고 예술적인 질문에 관하여 나는 여전히 정치적 기준과 예술적 기준에 대해서 **전자는 단지 '립 서비스'를 지불하는 것인 반면 후자에는 위대한 중점을 둔다.** 내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방향성이 맞다고 믿지만, 나는 언제나 우리의 보편적인 (전통) 예술작품들이 스타일에 있어서 단조롭고 작가의 개성이나 감정은 거의 갖지 않은 채 형식의 부재를 보인다고 느껴왔다.[7]
>
> 〈My Self-Examination〉

이 자아비판에서 그는 '정치적 기준'과 '예술적 기준' 사이의 고민을 드러낸다. 그는 이외에도 다양한 자아비판 연설 및 글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 논리인 정치적 표현의 도구로서 예술의 존재적 가치에 동의하면서도 전통 중국 미술의 형식적 단조성을 비판하고 서구의 근대적 기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Liu; Lu, 2014) 따라서 그는 본인의 작품이 선전물로서 대대적으로 활용되고, 그

---

[7]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olitical and artistic aspects of art should be unified, nevertheless, political standards should come first, but in the question of conceptual and artistic, political standards and artistic standards, I still place great emphasis on the latter, while merely paying lip service to the former. Though I say that I believe the direction of Socialist Realism to be the correct one, I have always felt that our average artworks are monotonous in style and lacking in form, rarely possessing the personality and emotions of the artist." (Liu; Lu, 2014)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자각한 정치활동가이기도 하였으나, 리얼리즘을 통해 중국 미술의 근대화를 열망했던 예술가로서의 진정성도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 세기 초 중국에서 리얼리즘 기법은 전통회화, 특히 주관적인 면모가 두드러진 문인화보다 우월한 시각미술이 될 것이라 칭송되곤 했으며, 이것은 그 주창자들이 주장 하듯 리얼리즘이 우리 주위의 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이해를 이끌어낼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Tang, 2010) 즉, 리얼리즘적인 재현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의 도구일 뿐 아니라 중국 전통 미술의 근대화를 의미했다는 것이다.

이 리얼리즘 기법은, 정치적으로 제한된 주제와는 별개로, 1950-70 년대에 둥시원이 염원한 것과 같이 눈부신 발전을 이끈다. 이는 몇몇의 작가들은 언제나 정치와 미술의 미묘한 경계에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틈을 찾으며 변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혁 시기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들이 마오쩌둥 주석을 신성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소위 세 번째 물결(A Third Wave)이라고 불리는 몇몇의 작가, 작품들은 문혁 시기 정치적으로 고정된 주제에서 이탈하는 동시에 여전히 현실을 재현하는 리얼리즘의 주제의식과 기법에 입각하여 작가의 진정성이 담긴 표현을 보여주었다. 이 물결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작가 루오종리(罗中立, Luo Zhongli)의 유화작품 〈Father〉는 1980 년 베이징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었을 때 그 적나라한 진실성으로 관객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Eschenburg, 2021)



〈Father〉



〈Father (스케치)〉

그림 속 피사체의 모습은 이전에 강조되었던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혁명사회에 대한 묘사, 혹은 마오쩌둥 주석 개인에 대한 신성시화에서 크게 벗어나, 중국의 시골 소작농의 날것의 현실을 놀라운 디테일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소작농의 왼쪽 귀에 팬이 하나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 루오종리가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리얼리즘의 믿음대로 그는 순수하게 현실의 본질을 그리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혁명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세대로서 '교육받은

중국 시민'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받고, 그는 이 팬을 소작농의 귀에 추가하여 그려 넣었다. (Liu; Lu, 2014) 그렇게 이 작품은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루오종리는 〈Father〉를 국립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속 인물의 귀 뒤에 꽂힌 팬은 루오종리가 당시 정부의 정책을 교묘히 통과하면서도 작가 본인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명분이 되어준 것이다.

이렇게 근대성과 작가 개인의 예술적 욕망의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결국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조 역시 중국현대미술의 소중한 자원이 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발전한 리얼리즘 기법은 유화 뿐 아니라 사진, 영상 등 범분야에서 중국현대미술의 근대화와 발전의 기반이 된 것은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실제로 재현과 재현의 대상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리얼리즘의 미학적 기술, 그리고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재현하는 역사화라는 주제는 문혁 이후 최근의—심지어 798 예술구의 후속세대까지—작품에서도 계승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8] (강민아, 2020)

아방가르드의 의미 논쟁

[8] 가장 대표적으로 리송송(**李松松,** Li Songsong)을 들 수 있다. 〈Khmer Rouge〉 등 그의 대표작을 참고하길 바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마찬가지로 1980 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아방가르드 사조는 그 개념과 의미를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아방가르드라 불리는 작품들이 그 이전의 미술과 비교하여 이데올로기와 정치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혁신적인 예술을 펼쳤는지가 그 논쟁의 중심에 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가오밍루, 리시앤팅과 같은 학자들은 모두 성성화회에 의해 시작된 아방가르드 운동은 혁신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구현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중국 아방가르드를 연구한 또 다른 예술역사학자 노먼 브라이슨은 아방가르드 사조 안에 있는 쉬빙과 다른 중국 현대 미술가들에 관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근대화 프로젝트, 즉 1970 년대 말 이후 개혁개방이라는 전반적인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아방가르드 미술이 시각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공용어를 토착화하고, 새로운 욕망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개성과 자기표현과 같은 문화적 가치들을 불어넣음으로써, 중국사회가 글로벌 경제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Bryson, 1998; Tang, 2010) 다시 말해, 중국의 아방가르드는 가오밍루와 같은 기존 학자들이 본 것처럼 국가가 제한하는 예술의 가치와 필요로부터 독립된 혁신적인 문화적 가치의 구현이기 보다, 여전히 국가적 목표와 과제에 부합하여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통합되는데 필수불가결한 한 요소였던, 문화적 변환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다시 아방가르드의 시작인 1980 년 성성화회의 전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실제로 성성화회의 작가들은 첫번째 비공식적 거리 전시 및 운동 이후 중국작가연합회와의 협상 끝에 공식적으로 작가연합회에 등록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해에 대략 5 천명의 인파를 끌어 모은 두번째 전시의 기회를 얻는다. 게다가 이듬해에 이 작가들은 국립미술관에서 연장된 2 주를 포함한 총 5 주간의 전시를 성황리에 개최한다. (Liu; Lu, 2014) 이는 명백히 기존의 문화혁명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 형식성에서의 제한에 저항하는 성성화회라는 젊은 작가들이 국가의 체제, 혹은 권위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연히 한편으로는 1980 년대 문화대혁명을 끝내며 예술과 문화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당시 작가들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으로 등소평의 지휘 아래 개혁과 개방이 추진되고 있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문화사회적 개혁개방, 그리고 경제발전 정책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Liu; Lu, 2014) 이처럼 1980 년대 등장한 아방가르드 미술의 역할은 시장주의, 소비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포스트-혁명 사회(Post-revolutionary Society)로의 이행”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Tang, 2010)

맺음말: 예술-정치 관계와 중국현대미술

오늘날 국제적으로는 '시니컬 리얼리즘(Cynical Realism)', 혹은 '정치적 팝(Political Pop)'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현대미술은 이처럼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과 같이 미술과 정치, 형식과 주제가 얽히며 전개된 복잡한 사상적 기원 위에 있다. 물론 시니컬 리얼리즘이나 정치적 팝 이외에도 현재 중국 미술계에는 훨씬 다양한 미술의 모습이 존재하며, 중국미술계는 글로벌 미술시장으로의 완전한 전환과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 작가들에 의해 그 주제와 형식은 더욱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발을 딛고 있는 정치, 미술사상적 기원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술과 정치사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이 드러나고 활기 넘치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리얼리즘이나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미술 혹은 미술작품 그 자체를 넘어 보다 넓은, 미술 외적인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보게 된다. 798 예술구에서 마주치는 미술작품들에 풍부한 상상과 외연이 뻗어 나가고 활기찬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Andrews, Julia Frances, and Julia Frances Andrews Andrews. Painters and Politic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Univ of California Press, 1994.

Bryson, Norman, “The Post-Ideological Avant-Garde,” Inside Out: New Chinese Art, ed. Gao Minglu,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51-58.

Gao, Minglu, “What Is the Chinese Avant-Garde?”, Fragmented Memories: The Chinese Avant-Garde in Exile, catalogue, Wexner Center for the Art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3, pp.3-4.

Gao, Minglu. Total modernity and the avant-garde in twentieth-century Chinese art. MIT Press, 2011.

Li, Xianting, “Major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hinese Art,” China’s New Art, Post- 1989, HongKong: Hanart T Z Gallery, 1993, pp.X- X XII.

McDougall, Bonnie S. Mao Zedong’s “Talks at the Yan’an Conference on Literature and Art”: A translation of the 1943 text with commenta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0.

Tang, Xiaobing, “On the Concept of the Avant-garde in Chinese Art”,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2010, pp. 207-234.

Wu, Hung, ed. Contemporary Chinese art: primary documents. The Museum of Modern Art, 2010.

Liu, Ding, and Lu, Carol Yinghua, “From the Issue of Art to the Issue of Position: The Echoes of Socialist Realism, Part I - Journal #55, 1 May 2014, www.e-flux.com/journal/55/60315/from-the-is\sue-of-art-to-the-issue-of-position-the-echoes-of-socialist-realism-part-i.

Kristen Loring Brennan, "Dong Xiwen, The Founding of the Nation," in Smarthistory, January 25, 2023, accessed June 25, 2023, https://smarthistory.org/dong-xiwen-founding-nation/.

Kristen Loring Brennan, "Art in the Mao era and Cultural Revolution, an introduction," in Smarthistory, February 24, 2023, accessed June 25, 2023, https://smarthistory.org/art-mao-era-cultural-revolution-introduction/.

Kristen Loring Brennan, "Liu Chunhua, Chairman Mao en Route to Anyuan," in Smarthistory, January 26, 2016, accessed June 25, 2023, https://smarthistory.org/liu-chunhua-chairman-mao-en-route-to-anyuan-2/.

Madeline Eschenburg, "Luo Zhongli, Father," in Smarthistory, December 13, 2021, accessed June 25, 2023, https://smarthistory.org/luo-zhongli-father-2/.

강민아. "중국 현대미술의 역사재현에 대한 연구." *문화와융합* 42.11, 2020, pp. 1163-1189.

권근영, “서예가 죽었다는 말, 쉬빙에게는 헛소리다”, 중앙일보, 2022.09.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6145823#home

중국학위키백과, http://chinesewiki.uos.ac.kr/wiki/index.ph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0771.